자활사업조사연구
▌2018 - 05▐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기초연구

2018. 12.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연구책임자

최상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원

박성준　　연구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유송이　　보조연구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 청년들이 경험하는 생존의 위기와 청년대상 자산형성사업의 의미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청년들이 경기침체와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지위의 주 희생자로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족자원에의 의존도가 높고, 가족자원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 생존의 위기를 직면할 수 있음.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빈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가족 자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자원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짐.

□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구축 필요성

○ 청년대상 지원사업은 고용을 통한 자립 지원에 집중해오다가,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자산형성사업을 시도, 확대되고 있음.

○ 선행연구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의 성과로 심리적 안정감 및 지지 제공,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 수립과 실행력 향상, 교육비 향상을 통한 빈곤 대물림 완화, 사회활동 참여 여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관계 개선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측면의 성과를 보고함.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의 패널자료 구축이 요구됨.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사업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검증하는 한편 나아가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사업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짐

□ 청년희망키움통장 패널구축을 위한 성과 지표 구성

○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청년대상 사업임을 고려하여 성과 지표를 구성함. 보다 구체적으로 Sherraden(1991)이 제시한 7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긍정적 청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의 5가지 하위 요인인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연계(connection), 성향

(character), 공감(caring and compassion)을 포괄적으로 고려함. 더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균형있게 활용한 다음 <표>와 같은 성과지표를 구성함.

<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구분		Page-Adams & Sherraden(1997)		
		개인적 웰빙	경제적 성과	시민행동
객관적 지표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정도 - 외래진료, 입원, 건강검진, 만성질환여부 및 병명	소득, 자산, 부채, 수급현황, 소비, 저축액, 저축의 주목적, 저축 인식, 거주지유형, 점유형태, 점유형태별 거주자산 금액	
주관적 지표 (PYD)	역량	주관적 건강, 우울, 진로정체감, 1년 뒤 진로 예상, 진로준비행동,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주관적 경제적 상황	
	자신감	일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근로의욕, 고용장벽, 고용희망		
	연계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성향	생활만족도		시민성 사회신뢰
	공감	사회적응력		
일반적 특성 지표		성별, 학력,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고용 상태(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지표		(참여자) 사업만족도, 지원금 수령 시 사용계획,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참여자) 인지여부, 참여의향, 비참여 이유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및 비참여자 집단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2018년 실시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참여자 가운데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450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 조건을 만족하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 집단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비참여자 운데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50명의 표본집단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PC 및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 고용 상태: 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생각: 소득, 자산, 부채, 수급현황, 소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저축액, 저축의 주요 목적, 저축에 대한 생각
- 주거 상황: 거주지유형, 점유형태, 점유형태별 거주자산 금액
- 건강 상황: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정도
- 사회적 관계 상황: 사회 참여 정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
- 진로에 대한 생각: 1년뒤 예상 진로,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근로의욕, 일에 대한 생각, 고용장벽, 고용희망
- 자신의 정체성,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역량
- 사회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시민성
-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사업 관련
  - 참여자 대상: 사업 만족도, 지원금 수령시 사용계획,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사업 비참여자 대상: 사업 인지여부, 참여의향 및 미참여 이유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및 비참여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집단 비교 결과

- 전반적으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상용근로 및 전일제근로 비율이 높고 따라서 근로소득과 총소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등을 스스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1년 뒤 예상 진로와 관련하여 진학, 편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 저축, 주거, 의료서비스이용, 사회적 관계, 근로에 대한 생각,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두드러진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조사 시점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이전이며 사업 초기 참여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차이는 사업 성과, 즉 사업 수행으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참여를 결정한 대상자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상자 간의 차이로 이해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중 학력 수준(대졸이상-고졸이하)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 학력 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두 집단은 차별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고용 상황과 소득 및 대출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는 차이를 보임
- 대졸 이상 참여자의 경우 미혼 비율 및 종교를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일제 근로 비율, 전문직 및 관련 직종 종사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 참여자의 경우 근로 소득이 높은 데 비해 고졸 이하 참여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이 높아 학력에 따른 총소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두드러진 발견은 대졸이상 참여자의 경우 부채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중 근로 형태(전일제-비전일제)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 근로 형태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또한 두 집단 간 차별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음. 다만 고용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 전일제 근로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비전일제 근로자는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음
- 전일제 근로자는 비전일자 근로자에 비해 총소득, 근로소득 수준이 높은 반면, 비전일제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높음
- 전일제 근로자는 총생활비, 보건의료비, 교통/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소비 등의 지출수준이 더 높으며, 비전일제 근로자는 주관적 소득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전일제 근로자의 저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컸으며, 자산 및 부채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중 연령(15~24세 - 25~34세)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 연령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25~34세 집단의 경우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일관되게 부정적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기 청년에 대해 보다 시급한 개입의 필요성이 드러남
- 먼저 연령이 높은 25~34세 참여자의 경우 총소득, 부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 간 차이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25-34세 집단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부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25-34세 집단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조사 실시

○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초기 시점에서 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함

○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중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각 3명씩 집단을 이루어 집단별로 2시간 가량 진행함

○ 면접조사는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이용시 불편한 점, 제언 및 바라는 점'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 통장사업 참여 이후의 변화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측면 및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 참여자들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종자돈 마련, 목돈 마련을 통해 위험에의 대처능력 향상, 탈수급의 계기와 기회로서 통장사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저축 및 일에 대해 보다 진지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자립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드러남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사업 참여자들은 목돈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감소하는 한편 안정감을 느낌.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변화가 나타남

○ 향후 지원금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문화여가, 주거비, 교육비, 창업비용 등으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모습, 탈수급,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등의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제언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사업 홍보와 안내의 체계화, 번거로운 소득 변경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 탈수급 조건에 대한 부담과 조건 완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차등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발견되는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사업 시행 초기로서 사업으로 인한 참여자의 변화와 성과라기보다는 참여 결정자

와 미참여 결정자 간의 차이로 이해할 필요

□ 사업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조건에 대한 제고를 통한 대상자 및 참여자 확대 필요

○ 탈수급 조건은 일부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비현실적이기도 함

○ 가구당 1인만 가입 가능한 현재의 가입조건은 사업 참여 청년이 같은 가구의 형제, 자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음

○ 사업 참여와 함께 지원금의 일부만큼 가족의 수급액이 삭감되고 있음. 이는 사업 참여 청년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거나 가족과의 갈등 끝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음

□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고려 필요

○ 직업교육, 자격증취득 지원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기존 사업에서 높은 만족도 보고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심으로

○ 오프라인 집합교육, 오프라인 일대일 상담, 온라인 교육 균형 있게 활용 필요

○ 근로와 삶에 있어서 책임감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사업 절차 및 체계 관련 제언

○ 적극적·다각적 홍보 체계 구축

○ 진행사항에 대한 후속 안내 실시

○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의 사업 숙지

○ 인터넷 뱅킹에서도 통장 확인가능하도록

○ 사업자 등록 절차 간편화 및 전산화

□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조사인원 및 조사대상

- 패널조사의 경우 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이탈비율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최소 1,0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야 이탈함.
- 패널조사는 이탈의 최소화를 위해 패널관리가 중요함. 패널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사 및 가구분리 정보 제공 시 적절한 보상 제공, 주기적 연락 및 관계 형성 노력 실시, 관리체계의 일원화, 충분한 패널 구축 및 관리 비용 확보, 조사원의 체계적 선발/배치/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조사대상은 지역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해야하며, 그 외에도 성별과 연령을 층화변수로 고려할 수 있음

○ 조사간격 및 조사시기

– 조사간격은 1년, 조사시기는 연초 2-3월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

○ 조사방법

–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

– 대면 면접조사는 응답의 질 관리가 가능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반면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는 상대적으로 응답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나 비용효율적이며, 인지수준이 높은 청년의 특성상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가짐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공통문항을 설정하고, 패널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추가문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통장가입연도, 2차년도, 3차년도, 탈수급 이후 1년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내용을 조금씩 개별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제언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은 지양해야 하나 패널 연구의 특성 상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함.

○ 조사기관은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함.

○ 익명성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관리방침 수립,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개인정보관리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개인정보접근성 관리, 비식별화, 개인정보 파기 등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목차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내용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방법 ····· 7

3. 연구 수행 체계 ····· 9

Ⅱ. 이론적 논의 ····· 13

1.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해 ····· 13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 13

2)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 14

2.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기대효과 ····· 20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20

3.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패널 동향 ····· 22

1)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및 연구 동향 ····· 23

2) 저소득층 패널 동향 ····· 26

3)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27

Ⅲ. 조사 설계 ····· 31

1. 표본구성 ····· 31

1) 사업 참여자 집단 ····· 31

2) 사업 비참여자 집단 ····· 31

2. 지표 구성 ····· 31

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 31

2) 주관적 지표 ····· 35

3) 사회참여 및 기타 문항 ····· 36

4) 사업관련 문항 ····· 39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1
1) 자료수집 방법 ····· 41
2) 자료분석방법 ····· 42
3) 연구윤리 ····· 43

Ⅳ. 설문 조사 결과 ····· 47
1. 사업참여 여부(참여자집단과 비참여자집단)에 따른 집단 비교 ····· 47
1) 일반적 특성 ····· 48
2) 근로(고용) 상황 ····· 50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51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54
5) 주거 상황 ····· 56
6) 건강 상황 ····· 57
7) 사회적 관계 ····· 59
8) 진로에 대한 생각 ····· 61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63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63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64
12) 사회에 대한 인식 ····· 65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사업 참여자 및 사업 비참여자) ····· 66
2. 학력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 ····· 69
1) 일반적 특성 ····· 69
2) 근로(고용) 상황 ····· 7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75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76
5) 주거 상황 ····· 78
6) 건강 상황 ····· 80
7) 사회적 관계 ····· 81
8) 진로에 대한 생각 ····· 83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85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85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86
12) 사회에 대한 인식 ····· 87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87
3. 근로형태에 따른 집단 비교 ····· 90
1) 일반적 특성 ····· 90
2) 근로(고용) 상황 ····· 93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93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96
5) 주거 상황 ····· 99
6) 건강 상황 ····· 101
7) 사회적 관계 ····· 102
8) 진로에 대한 생각 ····· 104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106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106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107
12) 사회에 대한 인식 ····· 108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108
4. 연령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 112
1) 일반적 특성 ····· 112
2) 근로(고용) 상황 ····· 114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116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119
5) 주거 상황 ····· 121
6) 건강 상황 ····· 123
7) 사회적 관계 ····· 125
8) 진로에 대한 생각 ····· 126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128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129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130
12) 사회에 대한 인식 ····· 130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131
5. 조사결과 요약 ····· 135

Ⅴ. 초점집단면접 연구 결과 ····· 143
1.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 143
2.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 147
3.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 149
4. 통장사업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제언 ····· 150

Ⅵ. 결론 및 제언 ····· 155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및 제언 ····· 155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 155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 157
2.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163
1)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163
2) 조사대상 관리 관련 제언 ····· 165
3)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제언 ····· 166

참고문헌 ····· 169
부록 : 참여자대상조사표 ····· 175

부록 : 비참여자대상조사표 ····· 193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내용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
1) 연구 내용 ····· 6
2) 연구 방법 ····· 7
3. 연구 수행 체계 ····· 9

Ⅱ. 이론적 논의 ····· 13
1.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해 ····· 13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 13
2)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 14
2.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기대효과 ····· 20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20
3.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패널 동향 ····· 22
1)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및 연구 동향 ····· 23
2) 저소득층 패널 동향 ····· 26
3)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27

Ⅲ. 조사 설계 ····· 31
1. 표본구성 ····· 31
1) 사업 참여자 집단 ····· 31
2) 사업 비참여자 집단 ····· 31
2. 지표 구성 ····· 31
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 31
2) 주관적 지표 ····· 35
3) 사회참여 및 기타 문항 ····· 36
4) 사업관련 문항 ····· 39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1
1) 자료수집 방법 ····· 41
2) 자료분석방법 ····· 42
3) 연구윤리 ····· 43

Ⅳ. 설문 조사 결과 ····· 47
1. 사업참여 여부(참여자집단과 비참여자집단)에 따른 집단 비교 ····· 47
1) 일반적 특성 ····· 48
2) 근로(고용) 상황 ····· 50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51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54
5) 주거 상황 ····· 56
6) 건강 상황 ····· 57
7) 사회적 관계 ····· 59
8) 진로에 대한 생각 ····· 61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63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63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64
12) 사회에 대한 인식 ····· 65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사업 참여자 및 사업 비참여자) ····· 66
2. 학력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 ····· 69
1) 일반적 특성 ····· 69
2) 근로(고용) 상황 ····· 7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75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76
5) 주거 상황 ····· 78
6) 건강 상황 ····· 80
7) 사회적 관계 ····· 81
8) 진로에 대한 생각 ····· 83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85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85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86
12) 사회에 대한 인식 ····· 87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87
3. 근로형태에 따른 집단 비교 ····· 90
1) 일반적 특성 ····· 90
2) 근로(고용) 상황 ····· 93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93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96
5) 주거 상황 ····· 99
6) 건강 상황 ····· 101
7) 사회적 관계 ····· 102
8) 진로에 대한 생각 ····· 104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106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106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107
12) 사회에 대한 인식 ····· 108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108
4. 연령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 112
1) 일반적 특성 ····· 112
2) 근로(고용) 상황 ····· 114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116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119
5) 주거 상황 ····· 121
6) 건강 상황 ····· 123
7) 사회적 관계 ····· 125
8) 진로에 대한 생각 ····· 126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128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129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130
12) 사회에 대한 인식 ····· 130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131
5. 조사결과 요약 ····· 135

Ⅴ. 초점집단면접 연구 결과 ····· 143
1.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 143
2.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 147
3.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 149

4. 통장사업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제언 ····· 150

Ⅵ. 결론 및 제언 ····· 155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및 제언 ····· 155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 155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 157
2.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163
1)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163
2) 조사대상 관리 관련 제언 ····· 165
3)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제언 ····· 166

참고문헌 ····· 169
부록 : 참여자대상조사표 ····· 175
부록 : 비참여자대상조사표 ····· 193

표목차

<표 2-1>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 15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상지원사업 개요 ····· 16
〈표 2-3〉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 측정 틀 ····· 22
〈표 2-4〉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개요 ····· 24
〈표 2-5〉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조사 개요 ····· 25
〈표 2-6〉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사 개요 ····· 25
〈표 2-7〉 자활패널 개요 ····· 26
〈표 2-8〉 한국복지패널 개요 ····· 27
〈표 2-9〉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 28
〈표 3-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 34
〈표 3-2〉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 ····· 35
〈표 3-3〉 주관적 지표: 고용 관련 요인 ····· 37
〈표 3-4〉 주관적 지표: 사회적 요인 ····· 38
〈표 3-5〉 사회참여 및 기타 문항 ····· 39
〈표 3-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 39
〈표 3-7〉 자산형성지원사업 비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 40
〈표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사업참여 여부 구분 ····· 48
〈표 4-2〉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사업참여 여부 구분 ····· 49
〈표 4-3〉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0
〈표 4-4〉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1
〈표 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1
〈표 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2
〈표 4-7〉 월 평균 생활비(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2
〈표 4-8〉 월 평균 생활비(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3
〈표 4-9〉 월 평균 저축액(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3
〈표 4-10〉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4
〈표 4-11〉 저축에 대한 생각: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5
〈표 4-12〉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5
〈표 4-13〉 주거자산 금액(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6
〈표 4-14〉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6
〈표 4-15〉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7
〈표 4-16〉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7
〈표 4-17〉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8
〈표 4-1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9

<표 4-19>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사업참여 여부 구분 ····· 59
<표 4-20>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사업참여 여부 구분 ····· 60
<표 4-21>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사업참여 여부 구분 ····· 61
<표 4-2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사업참여 여부 구분 ····· 61
<표 4-23>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사업참여 여부 구분 ····· 62
<표 4-24>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사업참여 여부 구분 63
<표 4-25>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사업참여 여부 구분 ····· 64
<표 4-26>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 사업참여 여부 구분 ····· 64
<표 4-2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사업참여자 전체 ····· 65
<표 4-2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 사업참여자 전체 ····· 66
<표 4-2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사업참여자 전체 ····· 66
<표 4-3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사: 사업 비참여자 전체 ···
67
<표 4-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학력수준 구분 ····· 68
<표 4-32>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학력수준 구분 ····· 70
<표 4-33>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학력수준 구분 ····· 72
<표 4-34>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학력수준 구분 ····· 73
<표 4-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학력수준 구분 ····· 73
<표 4-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학력수준 구분 ····· 74
<표 4-37> 월 평균 생활비(만원): 학력수준 구분 ····· 74
<표 4-38> 월 평균 생활비(만원): 학력수준 구분 ····· 75
<표 4-39> 월 평균 저축액(만원): 학력수준 구분 ····· 75
<표 4-40>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학력수준 구분 ····· 76
<표 4-41> 저축에 대한 생각: 학력수준 구분 ····· 77
<표 4-42>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학력수준 구분 ····· 78
<표 4-43> 주거자산 금액(만원): 학력수준 구분 ····· 78
<표 4-44>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학력수준 구분 ····· 79
<표 4-45>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학력수준 구분 ····· 79
<표 4-46>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학력수준 구분 ····· 80
<표 4-47>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학력수준 구분 ····· 80

<표 4-4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학력수준 구분 ····· 81
<표 4-49>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학력수준 구분 ····· 82
<표 4-50>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학력수준 구분 ····· 82
<표 4-51>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학력수준 구분 ····· 83
<표 4-5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학력수준 구분 ····· 83
<표 4-53>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학력수준 구분 ····· 84
<표 4-54>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학력수준 구분 ····· 85
<표 4-55>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학력수준 구분 ····· 86
<표 4-56>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 학력수준 구분 ····· 86
<표 4-5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학력수준 구분 ····· 87
<표 4-5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학력수준 구분 · 88
<표 4-5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학력수준 구분 ····· 89
<표 4-60>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근로형태 구분 ····· 91
<표 4-61>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근로형태 구분 ····· 92
<표 4-62>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근로형태 구분 ····· 93
<표 4-63>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근로형태 구분 ····· 93
<표 4-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근로형태 구분 ····· 94
<표 4-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근로형태 구분 ····· 94
<표 4-66> 월 평균 생활비(만원): 근로형태 구분 ····· 95
<표 4-67> 월 평균 생활비(만원): 근로형태 구분 ····· 95
<표 4-68> 월 평균 저축액(만원): 근로형태 구분 ····· 96
<표 4-69>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근로형태 구분 ····· 97
<표 4-70> 저축에 대한 생각: 근로형태 구분 ····· 98
<표 4-71>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근로형태 구분 ····· 98
<표 4-72> 주거자산 금액(만원): 근로형태 구분 ····· 99
<표 4-73>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근로형태 구분 ····· 100
<표 4-74>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근로형태 구분 ····· 100
<표 4-75>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근로형태 구분 ····· 101
<표 4-76>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근로형태 구분 ····· 101
<표 4-77>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근로형태 구분 ····· 102

〈표 4-7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근로형태 구분 ····· 103
〈표 4-79〉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근로형태 구분 ····· 103
〈표 4-80〉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근로형태 구분 ····· 104
〈표 4-81〉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근로형태 구분 ····· 104
〈표 4-82〉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근로형태 구분 ····· 105
〈표 4-83〉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근로형태 구분 ····· 106
〈표 4-84〉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형태 구분 ····· 107
〈표 4-85〉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 근로형태 구분 ····· 107
〈표 4-8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근로형태 구분 ····· 108
〈표 4-8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 근로형태 구분 ····· 109
〈표 4-8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근로형태 구분 ····· 110
〈표 4-8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연령 구분 ····· 112
〈표 4-90〉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연령 구분 ····· 114
〈표 4-91〉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연령 구분 ····· 115
〈표 4-92〉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연령 구분 ····· 116
〈표 4-9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연령 구분 ····· 116
〈표 4-9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연령 구분 ····· 116
〈표 4-95〉 월 평균 생활비(만원): 연령 구분 ····· 117
〈표 4-96〉 월 평균 생활비(만원): 연령 구분 ····· 118
〈표 4-97〉 월 평균 저축액(만원): 연령 구분 ····· 118
〈표 4-98〉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연령 구분 ····· 119
〈표 4-99〉 저축에 대한 생각: 연령 구분 ····· 120
〈표 4-100〉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연령 구분 ····· 121
〈표 4-101〉 주거자산 금액(만원): 연령 구분 ····· 121
〈표 4-102〉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연령 구분 ····· 122
〈표 4-103〉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연령 구분 ····· 122
〈표 4-104〉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연령 구분 ····· 123
〈표 4-105〉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연령 구분 ····· 123
〈표 4-106〉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연령 구분 ····· 124
〈표 4-107〉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연령 구분 ····· 125

<표 4-108>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연령 구분 ····· 125
<표 4-109>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연령 구분 ····· 126
<표 4-110>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연령 구분 ····· 127
<표 4-111>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연령 구분 ····· 128
<표 4-112>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연령 구분 ····· 128
<표 4-113>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연령 구분 ····· 129
<표 4-114>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 연령 구분 ····· 130
<표 4-11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연령 구분 ····· 131
<표 4-11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연령 구분 ····
132
<표 4-11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연령 구분 ····· 133
<표 4-118> 영역별, 집단 구분별 조사결과 요약 ····· 138
<표 5-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대상 면접조사 참여자 ····· 143
<표 5-2>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 144
<표 5-3>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 148
<표 5-4> 통장사업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제언 ····· 150

01

서론 :
연구 배경 및 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수행 체계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청년의 삶

○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청년들이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지위의 주 희생자로서 경제적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낮은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대상이 아님으로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함. 의지할 사회적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성장보다는 생존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

– 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실패와 불평등,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불안감과 나아가 우울을 경험함.

– 경쟁주의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주변 친구들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가지기도 함.

○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성공과 실패는 상당부분 가족의 자원에 달려있음.[1] 즉 의지할 사회적 자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족자원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교육의 불평등은 다시 부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진입 시의 소득 격차가 평생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류대학, 대기업 정규직에의 취업을 원함. 그러나 일부만이 원하는 곳에 입학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 하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청년들은 상당부분 가족의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감.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으나 가족자원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 생존의 위협과 위기에 맞닥뜨리게 됨.

○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이 자립을 연기하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년 대상 복지제도와 자산형성지원사업

1) 실제로 이봉주(2018)는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16세 때 상태를 통해 19-24 때 니트청년이 될 가능성을 예측한 결과, 학교 성적이나 생활보다도 가구 소득의 영향력이 더 큼을 보고함. 이러한 상황과 결과는 최근 수저계급론, 헬조선과 같은 사회계층의 대물림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과 맥을 같이 함.

○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지배적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한 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통한 취창업 지원; 2)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고용지원; 3)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목돈마련 지원. 제도의 종류, 지원의 형태, 지원 대상은 세제혜택, 현물지원, 현금지원, 기업지원, 청년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나 제도의 목적과 내용은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 지원, 목돈마련 지원의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 즉 전통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는 복지보다는 고용(노동) 중심으로 청년의 고용과 구직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주를 이루어 옴

○ 전통적으로 고용을 통한 자립 지원에 집중해오다가, 최근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중소기업근로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등), 주거지원사업(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구직 및 사회활동지원(청년구직수당, 서울시 · 대전시 · 전주시 청년수당 등) 등의 청년 대상 복지 제도가 시도, 확대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옴.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 예방과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성과를 보고해왔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한 만큼 가족 자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자원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짐.

□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구축 필요성

○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 의료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부분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본인저축액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인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다는 특징을 가짐. 또한 가입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유지하고, 3년 이내 탈수급을 해야한다는 수급 조건을 가짐

○ 자산형성사업은 자산형성을 통한 경제적 여건 개선 외에도 가족 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 안정성 개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갑자기 닥칠 위험에 대비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및 지지 제공,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 수립과 실행력 향상, 교육비 향상을 통한 빈곤 대물림 완화, 사회활동 참여 여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관계 개선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측면의 성과를 보고해 옴(Galster, 1987; Oskamp et al., 1991; Perkins et al., 1990; Rohe & Stegman, 1994; Thompson, 1993; Levinson, 1989; Noponen, 1992; Page-Adams, 1995; Peterson, 1980; Schuler & Hashemi, 1994; Cheng, 1995; Green &

Whit, 1997; Sherraden, 1991; Page-Adams & Sherraden, 1997)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된 이래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서울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등 우리나라의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별로 성과평가 연구(최현수 외, 2010, 2011, 2012, 2013; 이순성 외, 2009, 2010; 2011; 서종녀, 2015, 2017; 최조순 외, 2017)가 이루어져 옴.

○ 최현수 외(2013)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대해 2010년 기초선 조사를 수행하며 참여자 및 참여가구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참여자의 저축 및 근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의 변화를 보고함. 이순성 외(2010)외의 경우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삶에 대한 만족감, 안정감, 자신감 회복과 같은 심리정서적 안정 및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개선, 근로 의지 등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발견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성과 분석 연구(최조순 외, 2017)는 경기도 저소득 근로 청년 대상 자산형성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효과와 심리적 측면 및 행동에서의 변화와 같은 간접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 및 자산 상황이 일부 개선된 정도의 성과만을 발견함으로써 청년들에 대한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를 제안한 바 있음.

○ 즉 국외 연구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형성사업의 성과가 패널조사와 같은 종단자료, 횡단자료와 같은 양적자료 분석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임. 다만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발견, 추정할 수 있음.

○ 이렇듯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그 대상과 지원 내용, 조건을 달리하며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특성과 변화,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패널자료 구축이 요구됨.

○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사업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검증하는 한편 나아가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사업 보완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짐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패널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함. 패널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으로 함

첫째,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패널연구에 대한 기존 문헌 및 선행 연구 검토

둘째, 패널구축을 위한 조사표 구축

셋째, 실제 조사표를 활용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중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참여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

넷째, 조사결과에 대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비교 분석 및 참여자 대상 초점집단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의 실태 및 사업성과 도출

다섯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 모색

여섯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패널구축을 위한 제언 도출

○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행 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국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기존의 자산형성지원 관련 연구(최현수 외, 2013; 이순성 외, 2010) 등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략함. 또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도출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본 연구는 특히 ‘청년’에 초점을 두고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함.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패널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패널연구를 검토함.

○ 본 연구의 3장에서는 패널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대상 조사설계 방법을 조사대상, 척도구성,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시함. 이어 4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사업참여여부, 학력수준, 근로형태, 연령에 따라 비교하여 제시함.

○ 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보완적으로 실시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집단 대상의 초점집단면접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조사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 6장에서는 조사결과로부터의 해석에 기반한 결론과 함의를 제시함. 결론과 함의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사업의 수급금액, 사업 내용, 사업 절차 및 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제시함. 더하여 본 연구는 패널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청년희망키움통상 사업 참여자 대상 패널조사를 구

축하는 데 있어서 패널조사 설계, 조사내용, 조사대상관리,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제언을 포함함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문헌연구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패널조사 연구 관련 국내외 법률과 제도,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검토함

(2) 설문조사

○ 본 연구는 2018년 실시하기 시작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패널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널 조사표를 활용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중 참여자 450명, 비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표는 청년 참여자의 실태, 특성 및 사업 참여를 통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간접적 효과,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단계적,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차원 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균형있게 구성함. 최종적으로 조사표에는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고용 상태(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생각(소득, 자산, 부채, 수급현황, 소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저축액, 저축의 주요 목적, 저축에 대한 생각), 주거 상황(거주지유형, 점유형태, 점유형태별 거주자산 금액), 건강 상황(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정도 - 외래진료, 입원, 건강검진, 만성질환 별), 사회적 관계 상황(사회 참여 정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 진로에 대한 생각(1년뒤 예상 진로,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근로의욕, 일에 대한 생각, 고용장벽, 고용희망), 자신의 정체성,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역량), 사회에 대한 생각(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시민성),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그 외에도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지원금 수령시 사용계획,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지여부, 참여의향 및 미참여 이유 등이 포함됨

○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정, 조사표 구성, 자료 분석과 같은 설문조사의 일련의 과정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중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사업 참여 성과 분석, 향후 패널조사를 위한 조사표 구성 및 조사체계에 대

한 제언의 주요 자료로 활용

(3) 심층면접조사

○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인 저소득 수급 가구의 근로 청년들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업 참여 후의 변화를 살펴보기위해 초점집단조사를 실시함. 초점집단조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청년 총 6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2회에 걸쳐 각 두 시간 가량 진행됨.

○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이용시 불편한 점, 제언 및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질문함.

3. 연구 수행 체계

□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문헌조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기존 보고서 및 논문 검토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관련 기존 보고서 및 논문 검토
주요 패널조사연구 검토

설문 조사

1) 지표 개발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 일반적 특성
- 고용 상태
-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생각
-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 주거 상황
- 건강 상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
- 사회적 관계 상황
- 진로에 대한 생각
-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자신의 정체성,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사회에 대한 생각
-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참여자 대상) 사업 만족도, 지원금 수령시 사용계획,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사업 비참여자 대상) 인지여부, 참여의향 및 미참여 이유

2) 참여자 및 비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 비참여자 특성 및 성과 파악
- 조사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450명 및 비참여자 50명
- 대상지역 규모 : 전국 대상
- 주요내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 비참여자 특성 및 성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면접 조사

1) 면접 질문 개발
-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 통장사업 이용시 불편한 점, 제언 및 바라는 점

2) 참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실시
- 목적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특성 및 성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조사대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6명
- 조사방법: 초점집단면접

결과분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 비참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결론 및 제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관련 제언
패널조사 관련 제언

02

이론적 논의

제1절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해
제2절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기대효과
제3절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패널 동향

Ⅱ. 이론적 논의

□ 본 장에서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을 검토함. 또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및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기대효과를 논의함.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을 비교・검토함.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기대효과에 관한 이론적 틀과 그 논의들을 검토하여 제시함

○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성과평가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패널조사 및 횡단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살펴봄.

○ 기존 연구와 이론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함.

1.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해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모든 국민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불평등을 고려하였으나, 자산불평등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음(Spilerman, 2000).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자산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Sherraden, 1991).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들도 소득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고,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저소득층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되었음.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산형성의 성과 뿐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희망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의 그 결과를 기대하며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경향을 보이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2)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10년 사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예, 아동발달계좌, 희망키움통장)을 도입・운영해 왔으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2015년 이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음.

□ 보건복지부 및 광역시도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하고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⑴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두 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으며, 연령은 모두 만 15~34세로 동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인 저축액이 없이 0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임. 매월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만기 후 탈수급이 수혜조건임. 월 80만원 소득기준으로 3년 후 1,500만원을 수령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조건은 가입기간 동안 매월 적립인 반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을 수혜조건으로 가지고 있어 타사업에 비하여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임.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가입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 근무와 매월 적립이 수혜조건임.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지원 400만원, 정부지원 900만원이 더해져 총 1,600만원에 이자를 수령함.

<표 2-1> 중앙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2018'4~)	청년내일채움공제(2016'7~)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대상	만15세~34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만 15세~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가입조건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근로사업소득 334,421원 이상)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의무적인 저축액 없음 (단, 0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2년간 300만원 납입(매월 12.5만원)
	정부 지원액	- 매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청년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 *근로소득장려금=(청년총소득-334,421원)*63%(장려율)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기업→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수혜 조건 지원	지원용도	- 가구, 교육, 취·창업 등 자활·자립에 활용	- 청년 목돈 마련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조건	- 생계수급 청년이 3년 이내 탈수급 시	- 최소 2~3년 동안 동일 사업장 근무 시 - 매월 적립 시
	실질혜택	- (월80만원 소득기준)월 40만원 지원→3년 후 1,500만원 지원 (월100만원 소득기준)	- (2년형)청년저축 300만원+기업 400만원+정부 900만원→2년 후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청년저축

⑵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을 시작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많은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들의 공통점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라는 점이며, 지원조건이 통장유지라는 점임. 충남은 일하는

중소기업 청년이라는 점에서 다른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과 구별됨.

□ 지원대상은 연령대가 다소 상이한데,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충남은 만18~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고, 광주시는 만19~34세이하의 청년이 대상임. 한편, 전남과 대전시는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으로 대상범위가 가장 넓음.

□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액은 각각 10~17.2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편임.

□ 경기도는 2015년 5월에 가장 먼저 일하는청년통장이라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희망두배청년통장사업을 시작하였음.

□ 서울시는 금융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상지원사업 개요

구분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15'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15'10~)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 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가입 조건	-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5만원
	정부 지원액	- 매월 17.2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5만원
수혜 조건 지원	지원 용도	-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 지원
	지원 조건	- 3년 동안 근로유지 시	- 적립금액 매월 적립 시 -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실질 혜택	- 본인저축 월 10만원+경기도 지원금 월 17.2만원 → 3년 후 1,000만원 적립	- (2년형,10만원) 480만원+이자 - (2년형,15만원) 720만원+이자 - (3년형,10만원) 720만원+이자 - (3년형,15만원) 1,080만원+이자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상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전남 청년희망디딤돌 통장(17'11~)	대전시 청년희망통장(18'2~)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 대상	- 전남 거주 만18세~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 대전시 거주 만18세~39세 저소득 근로청년
	가입 조건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근로자)대전시 사업장 소재 및 4대 보험 가입자로 3개월간 계속 근로중인 청년 - (근로자)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 (사업자)대전시 사업장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3개월간 운영 중인 청년 사업소득자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 매월 15만원
	정부 지원액	- 매월 10만원	- 매월 15만원
수혜 조건 지원	지원 용도	-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에 지원
	지원 조건	- 적립금액 매월 적립 시(연속or연3회 이상 미적립 시 통장해지) - 근로 유지 시(통장 가입 후 90일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 해지)	- 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실질 혜택	- 본인 월 10만원+전남 지원금 월 10만원 →3년 만기 후 720만원+이자	- 본인 월 15만원+대전시 지원금 월 15만원 → 3년 후 1,100만원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상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광주 청년13(일+삶)통장(18'8~)	충남 열혈청년통장(18'10~)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 대상	– 광주시 거주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 충남 거주 만18세~34세 또는 도내 대학 졸업자 중 중소기업 근로 청년
	가입 조건	–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 월 소득기준(세전) 602,000원~1,672,105원 이하 청년	– 월 소득 250만원 미만 – 정규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2년 240만원)
	정부 지원액	– 매월 10만원	– 260만원(1·6·12·18·24개월/5회)
수혜 조건 지원	지원 용도	– 소액단기 자산형성과 근로·상활역량 강화 지원	–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지원 조건	– 10개월 만기(본인 중도해지 불가)	– 2년 만기까지 통장유지
	실질 혜택	– 본인 월 10만원+광주시 지원금 월 10만원 → (만기)10개월 후 최대 200만원 – 근로·생활역량강화지원(재무·직업, 가족, 사회·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본인 월 10만원+충남 지원금 총 260만원 → 2년 만기 후 500만원+이자

<표 2-2>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상지원사업 개요(계속)

구분		대전시 청년희망통장(18'2~)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17'10~)
대상, 연령, 소득 자산 기준	가입 대상	대전시 거주 만18세~39세 저소득 근로청년	부산시 거주 만18세~34세 일하는 청년
	가입 조건	- (근로자)대전시 사업장 소재 및 4대 보험 가입자로 3개월간 계속 근로중인 청년 - (근로자)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 (사업자)대전시 사업장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3개월간 운영 중인 청년 사업소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 매월 15만원	- 매월 10만원
	정부 지원액	- 매월 15만원	- 매월 10만원
수혜 조건 지원	지원 용도	-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에 지원	- 창업, 교육, 결혼 및 주택자금 등 자립기반 목적
	지원 조건	- 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 3년 만기 이후 사용용도 증빙 시 (수강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
	실질 혜택	- 본인 월 15만원+대전시 지원금 월 15만원 → 3년 후 1,100만원	- 본인 월 10만원+부산시 지원금 월 10만원 → 3년 후 최대 720만원+이자

(3) 소결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가입대상: 모든 사업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청년임. 청년의 연령은 만 18~만 34세가 가장 일반적이며, 최소연령은 만15세이고, 최고연령은 만 39세임.

□ 가입조건: 일정소득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임.

□ 본인저축액: 일반적으로 10-15만원을 본인저축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0-50만원 중에서 납임액을 선택할 수 있음.

□ 정부지원액: 일반적으로 10-15만원을 정부지원액으로 설정하고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9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가장 큼.

□ 지원용도: 교육, 취창업, 결혼, 주거 등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임.

□ 지원조건: 대부분 가입기간 동안 통장유지 및 근로유지를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희망키움통제만 탈수급 조건이 있음.

□ 실질혜택: 2-3년 가입 유지 시 최소 약 500만원에서 최대 약 3,000만원까지 혜택이 있음.

2.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기대효과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1) Sherraden(1991)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

□ 자산형성지원사업(asset-building programs)의 성과는 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주 제안자이자 연구자인 Sherradon(1991)의 성과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Sherraden(1991)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산 축적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빈곤 탈출과 인적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구체적으로는 7가지의 기대효과를 제시함.

○ 경제적인 안정

○ 희망적 미래에 대한 심리적 지지지 제공

○ 인적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여러 유형의 자산 축적 증대

○ 위험 대처가 가능한 심리적·물적 기반 제공

○ 창업 등 특별한 사업 가능 및 삶의 질 향상

○ 정치참여 등 사회적 영향력 증가

○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지지 기반

□ 이러한 Sherraden(1991)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과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관리하였음.

□ 한편, Page-Adams & Sherraden(1997)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5가지로 함축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적 웰빙

○ 경제적 안정

○ 시민행동

○ 여성의 지위

○ 아동의 웰빙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별 측정도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Sherraden(1997)의 5가지 성과 중에 여성의 지위(주로 기혼여성 대상)와 아동의 웰빙은 청년의 성과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기준들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Sherraden(1991)이 제시한 성과를 기반으로 변수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으나, 7가지 성과를 정확히 어떠한 지표로 측정하였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도 Sherraden(1991)을 활용하여 자산형성, 적립금 외 지원 프로그램, 빈곤의 대물림방지 등을 측정하였음.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논리모델을 사용하여 투입, 전환, 산출, 결과 지표를 측정하였음.

□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은 직접 및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하였음.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성과 측정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고, 청년통장의 경우에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지는 않음.

〈표 2-3〉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 측정 틀

	성과 측정 틀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Sherraden(1991)의 7가지 성과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Sherraden(1991)의 7가지 성과 활용: 자산형성, 적립금 외 지원 프로그램, 빈곤의 대물림방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투입, 전환, 산출, 결과지표 등의 논리모델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	직접 및 간접효과

(3) 긍정적 청년 발달(PYD)를 고려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희망키움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사업의 성과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인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및 청년의 발달개념 중 긍정적 청년 발달(PYD: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청년희망키움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청년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함.

□ PYD는 기존의 문제 중심으로 청년의 발달을 파악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발달을 보는 개념임.

□ PYD는 5Cs의 하위요인: 역량(competence), 자신감(confidence), 연계(connection), 성향(character), 공감(caring and compas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역량(competence):사회적, 학문적, 인지적, 직업적 영역 등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 자신감(confidence): 긍정적 자기가치와 자기효용성에 대한 내적 감각

○ 연계(connection): 가족, 친구,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는 긍정적인 연계

○ 성향(character): 사회적 및 문화적 규칙에 대한 존중, 바람직한 행동, 도덕성, 정식 등의 기준에 대한 내면화

○ 공감(caring and compassion): 타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 능력

3.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패널 동향

□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기초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패널과 저소득층 관련 패널을 검토하였음.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패널은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패널이 유일하여, 검토 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확장하여 검토하였음.

1) 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 및 연구 동향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패널을 구축하여 관리해왔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유일함.

□ 그 외에 서울시가 2012년, 2014년, 2015, 2017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횡단조사로 패널조사는 아님.

□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차원에서 통장유지율, 근로지속률 등을 관리하고 있는 수준임. 그러나 이는 성과지표가 제한적이고, 결과의 신뢰도도 낮다는 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보기는 어려움.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패널

□ 보건복지부는 2010년 기초 & 1차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2차조사, 2012년 3, 4차조사, 2013년 5, 6차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2015년에 탈수급 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조사가 중단된 상태임.

□ 조사내용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조사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식 및 태도 영역: 자산활용계획,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인식, 저출에 관한 인식,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생각,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저축습관에 대한 생각, 탈수급 이후 정부 지원에 대한 도움예상정도 및 희망순위, 희망키움통장 사참여 중 정기적 저축 포기 생각 및 이유,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전후 일에 대한 생각 변화, 일을 하는 이유,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복지의식, 불평등 수준, 희망키움통장 참여 중 관심정도, 소비성향, 생활설계, 자아인식,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태도 등

□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교육경험, 향후 교육희망 여부, 희망하는 교육내용, 교육희망 목적, 교육비희망 이유, 취업상담 경험, 취업알선 경험,

□ 사례관리: 담당 사례관리자와의 연락 여부 및 방법, 다양한 지원 및 정서적 지지체계 제공, 담당 사례관리자의 도움 정도

<표 2-4>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패널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일하는 수급자(최저생계비 대비 60%), 탈수급자	
조사시기	– 2010(1차), 2011(2차), 2012(3차, 4차), 2013(5차, 6차) 2014–2015(탈수급자 추적조사) – 반기(6개월) 조사	
조사방법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 면접 및 자기기입방식 조사 병행 – 사례관리요원 담당 사례 수: 1차: 1인당 최대 20가구 2차 이후 1인당 10가구이하로 조정 – FGI 병행	
조사내용	<기초조사> – 가구일반사항 – 경제활동상태 – 생활비 소득 – 부채 및 이자 – 재산 – 주거 – 생활여건	<패널 추가 조사영역> – 인식 및 태도 –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 사례관리

(2)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플러스통장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연구

□ 서울시는 2012년과 2014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적 및 양적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조사는 중단됨.

□ 희망플러스통장의 성과 연구는 1차 참여자와 2차 참여자를 연결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패널연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 성과지표는 Sherraden(1991)의 성과 틀을 활용하였음.

<표 2-5>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근로빈곤층(1차 698명, 2차 731명)
조사시기	– 2012년(1차), 2014년(2차)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면접조사 병행
조사내용	– 자산형성: 자산 및 부채 증감, 수입 및 지출 내역 변화, 소비 및 저축 유형 변화, – 적립금 외 지원 프로그램:저축과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빈곤의 대물림 방지 – 가족관계 – 심리적지지 – 사회활동 참여 – 자립의지

□ 서울시는 2015년과 2017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연구를 실시함.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패널 성격이 있음.

□ 성과지표는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음.

<표 2-6>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설문조사: 2015년: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만18-34세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591명), 비참가자(단기근로자 200명) 2017년: 1차참여자(539명 중 응답자 139명) – 면접조사: 사업 참가자 20명
조사시기	– 2015년, 2017년
조사방법	– 사업참가자: 온라인 설문조사 – 면접조사 병행
조사내용	– 투입: 자원인력, 매칭비용 – 과정: 저축활동,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 – 산출: 저축만기여부, 저축률 – 결과지표: 정량(근로유인률, 부채 경감, 자산 증가) 정성(저축습관·저축인식, 소비성향, 개인심리상태, 삶의 만족도)

2) 저소득층 패널 동향

□ 저소득층 패널은 자활패널과 복지패널이 대표적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지표보다는 저소득층의 삶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표들을 파악하고,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조사방법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검토하였음.

(1) 자활패널

□ 자활패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조사임.

<표 2-7> 자활패널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일하는 수급자(최저생계비 대비 60%), 탈수급자	
조사시기	– 2010(1차), 2011(2차), 2012(3차, 4차), 2013(5차, 6차) 2014–2015(탈수급자 추적조사) – 반기(6개월) 조사	
조사방법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요원 면접 및 자기기입방식 조사 병행 – 사례관리요원 담당 사례 수: 1차: 1인당 최대 20가구 2차 이후 1인당 10가구이하로 조정	
조사내용	<기초조사> – 가구일반사항 – 경제활동상태 – 생활비 소득 – 부채 및 이자 – 재산 – 주거 – 생활여건	<패널 추가 조사영역> – 인식 및 태도 – 교육 및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 사례관리

(2) 한국복지패널

□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 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패널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되어 오고 있음.

□ 표본의 60%를 저소득층으로 과대표집하는 패널 조사이고, 가장 많은 저소득

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한 조사임.

<표 2-8> 한국복지패널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일반가구(저소득층 60%) 6,879가구(2016년 기준)
조사시기	–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조사 (2월~5월)
조사방법	– CAPI를 이용한 타계식 방문 면접 조사
조사내용	– 가구 조사표(가구 일반 사항, 건강 및 의료 A,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의료 B, 주거, 생활비, 소득, 부채, 이자, 재산, 생활여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족 – 가구원 조사표: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근로, 생활 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사 – 부가 조사표(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

3)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 본 조사가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는 점과 기존 조사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조사는 Page-Adams & Sherraden(1997), PYD모델을 고려하여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였음.

□ 또한 객관적·주관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혼합하여 지표를 구성함.

□ Page-Adams & Sherraden(1997), PYD모델, 객관적·주관적 관점으로 본 조사의 지표를 구분하면 <표 2-9>와 같음. 성과지표 관련 이론적 틀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특성 지표와 프로그램 관련 지표도 본 조사에 포함되었음.

<표 2-9>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구분		Page-Adams & Sherraden(1997)		
		개인적 웰빙	경제적 성과	시민행동
객관적 지표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정도 - 외래진료, 입원, 건강검진, 만성질환여부 및 병명	소득, 자산, 부채, 수급현황, 소비, 저축액, 저축의 주목적, 저축 인식, 거주지유형, 점유형태, 점유형태별 거주자산 금액	
주관적 지표 (PYD)	역량	주관적 건강, 우울, 진로정체감, 1년 뒤 진로 예상, 진로준비행동,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주관적 경제적 상황	
	자신감	일에 대한 생각 자아존중감, 근로의욕, 고용장벽, 고용희망		
	연계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성향	생활만족도		시민성 사회신뢰
	공감	사회적응력		
일반적 특성 지표		성별, 학력,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고용 상태(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지표		(참여자) 사업만족도, 지원금 수령 시 사용계획,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참여자) 인지여부, 참여의향, 비참여 이유		

03

조사 설계

제1절 표본구성
제2절 패널조사 지표 구성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Ⅲ. 조사 설계

1. 표본구성

1) 사업 참여자 집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표집

○ 2018년 실시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 가운데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450명의 표본집단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현황 및 사회경제적 여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2) 사업 비참여자 집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자에 대한 표집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집단을 모집단으로 선정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자 가운데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50명의 표본집단을 선정하였으며, 일반적 현황 및 사회경제적 여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비참여 사유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함.

2. 지표 구성

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 일반적 현황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응답자의 성별, 생년월일, 학력(졸업기준)장애여부(중증, 경증 구분), 종교 유무를 조사함.

○ 조사 대상의 가구 현황은 동거가족수, 응답자의 자녀수,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가구구성(1인가구, 부부, 부부 및 미혼자녀,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 등으로 구분됨)의 내용을 조사함.

○ 근로형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직종분류는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노동자, 기능직,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조사대상자의 근

로시간은 크게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현재의 근로가 지속가능한 상태인지를 질문하였음.

□ 소득 및 저축

○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저축 수준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됨. 기타 자산과 부채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총액을 조사함.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구분하여 측정됨.

○ 저축은 사회보험, 민간의료보험 및 개인연금, 은행계금이나 계 등과 같은 기타 보험,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사업을 통한 저축액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자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부채는 응답자 개인의 부채를 조사하였으며, 개인의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수준을 조사함.

○ 또한 저축의 주요 목적(교육비, 사업자금, 주택마련, 미래 대비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저축에 대한 응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하여 4개 문항(예.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을 질문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 조사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응답자가 포함된 가구의 총 수급기간을 월 단위로 조사함. 또한 현재 응답자가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을 조사함.

□ 지출

○ 조사대상자의 지출 수준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월세 등과 같은 주거비용은 제외됨.

○ 응답자의 지출 식료품비, 의료・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 소비 지출, 세금 및 관리비로 구분하여 측정됨.

□ 건강

○ 조사대상자의 건강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문항: 귀하의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의료기관 이용은 최근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와 그 사유(지병/질병, 사고, 출산,

건강검진, 요양/휴식, 성형/정형/교정), 입원여부와 그 사유(위와 동일),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 및 병명을 조사함.

○ 조사대상자의 음주 수준을 파악하고자 문제음주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2]을 활용함.

□ 주거

○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일반 아파트, 임대아파트,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준주택(고시원 등) 등을 구분하여 조사됨.

○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전제, 월세, 무상을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자가의 경우에는 주택 및 토지의 총 금액, 전세 및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 평균 주거비를 추가적으로 조사함.

□ 예상 진로 및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응답자가 생각하는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문항의 보기에는 상급학교 진학, 사업, 취업 등이 있음.

○ 응답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2) 문제음주 척도의 출처: Mayfield, D., McLeod, G., & Hall, P. (1974). The CAGE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new alcoholism screening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10), 1121-1123.

<표 3-1> 일반적 현황 및 객관적 지표

	영역	내용
A1	일반적 현황 및 근로상태	일반적 현황: 성별, 생년월일, 학력, 장애여부, 종교유무 가구 현황: 동거가족수,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근로상태: 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A2	소득, 저축, 수급여부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저축: 사회보험, 민간보험 예금, 자산형성사업 자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 개인부채, 월 평균 상환액 저축의 목적, 저축에 대한 인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및 기간
A3	지출	총생활비, 식료품비, 의료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 및 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세금 및 관리비
A4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11점 척도), 외래진료 여부 및 사유, 입원 여부 및 사유, 건강검진 여부, 만성질환보유 여부 및 병명, 문제음주
A5	주거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거 비용(주택 및 토지 총액, 보증금, 월세 등)
A6	예상 진로, 소득수준 인식	예상진로, 주관적 소득 수준(11점 척도)

2) 주관적 지표

□ 심리적 요인

○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우울, 자아정체감으로 구분됨.

○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61로 나타남.

○ 자기효능감은 8개 문항(예. 나는 나를 위해 설정한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45로 나타남.

○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소득수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로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됨.

○ 우울은 지난 1주일 동안 해당 문제(예. 상당히 우울했다.)의 정도를 4점 척도(전혀 없었다, 1~2번 있었다, 3~4번 있었다, 5~7번 있었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91로 나타남.

○ 자아정체감은 8개 문항(예.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674로 나타남.

<표 3-2> 주관적 지표: 심리적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비고
B1_1	자아존중감	10	5점 척도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1_2	자기효능감	8	5점 척도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B1_3	생활만족도	7	5점 척도	한국복지패널	7개 영역
B1_4	우울	11	4점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B1_5	자아정체감	8	5점 척도	송현옥(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8문항으로 재구성

□ 진로 및 고용 관련 요인

○ 진로정체감은 5문항(예.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725로 나타남.

○ 경제적 여건은 7문항(예.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61로 나타남.

○ 고용희망은 24문항(예.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함. 본 문항은 4개의 하위요인(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희망 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72이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902, .907, .903, .888인 것으로 나타남.

○ 진로준비행동은 4문항(예.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01로 나타남.

○ 근로의욕은 10문항(예. 지금 하는 일은 내 능력에 맞는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88인 것으로 나타남.

○ 자활행동은 14개 문항(예. 지각 및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한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71인 것으로 나타남.

○ 고용장벽은 해당 문제(18개 문항; 예.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문제)에 대한 영향수준을 5점 척도(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임, 보통, 영향을 미치는 편임, 매우 영향을 미침)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98로 나타남.

〈표 3-3〉 주관적 지표: 고용 관련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비고
B1_6	진로정체감	5	5점 척도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G. (1980). Some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수정·보완
B2_1	경제적 여건	7	5점 척도	Prawitz, A., Garman, E. T., Sorhaindo, B., O'Neill, B., Kim, J., & Drentea, P. (2006). InCharge financial distress/financial well-being scal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score interpretation.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성과 분석(2017)에서 참고
B2_2	고용희망	24	5점 척도	최상미(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4개 하위요인: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사용
B2_3	진로준비행동	4	5점 척도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행동준비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전체 16개 문항 중 4개 문항으로 재구성
B2_4	근로의욕	10	5점 척도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점 척도로 변환
B2_5	자활행동	14	5점 척도	연구진 개발	
B2_6	고용장벽	18	5점 척도	Hong, P. Y. P., Polanin, J. R., Key, W., & Choi, S. (2014).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scale (PEBS): self sufficienc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6), 689-706.	척도 재구성

□ 사회적 요인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을 11점 척도로 측정함.

○ 사회적응력은 5개 문항(예. 나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30인 것으로 나타남.

○ 시민성은 6개 문항(예. 나는 내가 속한 사회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라도 협력한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

뢰도는 .863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지지는 12개 문항(예.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45인 것으로 나타남.

<표 3-4> 주관적 지표: 사회적 요인

	지표명	문항수	측정	출처	비고
B3_1	사회신뢰수준	1	11점 척도		
B3_2	사회적응력	5	5점 척도	Baron RA and Markman, GD. (2003) Beyond social capital: the role of entrepreneurs' social competence in their financ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41-60.	5개 문항으로 재구성
B3_3	시민성	6	5점 척도	Poropat, A. E., & Jones, L.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unifactorial measure of citizenship performanc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2(4), 851-869.	1개 차원, 6개 문항으로 구성
B3_4	사회적지지	12	5점 척도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신준섭, 이영분(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3) 사회참여 및 기타 문항

□ 사회참여활동 및 기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 사회참여활동은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치활동, 자선・자원봉사활동, 기타 활동으로 구분되어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와 지난 1년 동안의 참여일수를 조사함.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기부여부와 기부액을 조사함.

○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문항: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은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함.

<표 3-5> 사회참여 및 기타 문항

	영역	내용
B3_5	사회참여활동	사회참여 여부 및 연간 총 참여일 (종교활동, 여가활동, 친목모임, 정치모임, 자선활동, 기타)
B3_6	기부	기부참여 여부, 기부액
B4	소득불평등 인식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11점 척도)

4) 사업관련 문항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문항

○ 청년희망통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지원 금액의 수준, 사업 관련 정보제공, 행정적 절차,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 해당 질문의 보기로는 가족상담 및 가족 교육, 의료지원, 재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문화여가, 직업교육 및 훈련, 금융교육, 후원금/물품, 자격증취득, 심리상담, 주거개선, 양육교육, 창업교육 등이 있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 후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조사함. 해당 질문의 보기로는 가구원 교육비, 주택마련, 결혼 및 상제비, 노후생활 대비, 사업(투자) 자금마련, 자동차・가구・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여행 및 여가생활, 부채 상환 등이 있음.

<표 3-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영역	내용
C1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원금액, 사업 관련 정보제공, 행정적 절차, 부가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C2	희망 프로그램	사업과 함께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C3	지원금 사용계획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후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

□ 자산형성지원사업 비참여자 대상 문항

○ 청년희망통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에 한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사업의 필요성, 사업 참여 의향을 측정함.

○ 청년희망통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 중인 사업명을 조사함.

<표 3-7> 자산형성지원사업 비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영역	내용
D1	사업 인지 및 필요성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사업의 필요성, 사업참여의향
D2	비참여 이유	청년희망통장사업 참여하지 않는 이유, 기타 참여 중인 사업명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방법

(1) 참여자 대상 조사

□ 조사방법

○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 조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PC와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활용함.

□ 표집방법

○ 참여자 대상 조사의 경우 모집단인 사업 참여자 중 조사에 동의한 참여자 리스트에 서 정확하지 않은 전화번호(기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중간에 끊긴 번호)를 제외한 유효 리스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활용함. 유효 리스트를 활용하여 확률 표집 방법 중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표집 수행함.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자가 반복된 조사 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리스트를 선정하여 조사 실시함.

□ 조사원 교육 및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설문 내용과 방식을 안내하고 응답자가 온라인에서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함. 자기기입식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을 발송하고, url을 클릭하여 접속하여 설문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PC와 스마트폰 모두 활용가능하도록 함.

○ 본 연구에 투입된 조사원은 ㈜리서치앤리서치 소속의 조사원 중에서 선발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참여자에게 전화를 통해 조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참여자 대상 조사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약 35일 동안 진행함.

(2) 비참여자 대상 조사

□ 조사방법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자에 대한 설문 조사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PC와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활용함.

□ 표집방법

○ 비참여자의 경우 사업 대상자 중 비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및 리스트가 전무하였음. 이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전에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조사 대상 리스트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함. 이에 17개 광역자치단체 별로 상대적으로 수급가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1곳에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비참여자 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중 비참여자를 전달받아 조사를 실시함.

○ 비참여자 대상 조사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 중 15개 광역자치단체[3]로부터 전달받은 조사에 동의한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조사에 동의하였어도 반복적 조사참여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두 개 지역을 선정하여 같은 과정으로 조사 대상자를 모집하여 조사를 수행함.

□ 조사원 교육 및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설문 내용과 방식을 안내하고 응답자가 온라인에서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을 활용함. 자기기입식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을 발송하고, url을 클릭, 접속하여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비참여자 대상 조사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보조연구원 1인과 조사원 2인 등 총 3인이 조사원으로 투입됨. 조사원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교육에 참여 한 후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조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참여를 요청함. 비참여자 대상 조사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약 35일 동안 진행함 .

2) 자료분석방법

□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함. 각 문항은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결과로 구분됨.

○ 일반적 현황이나 인지 여부 등과 같은 명목형 변수는 해당 문항의 빈도(n)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금액이나 척도의 평균값 등과 같은 연속형 변수는 평균

3) 강원(삼척), 경기(수원), 경남(창원), 경북(구미), 광주(광산), 대구(달서), 대전(서구), 부산(북구), 서울(강남), 인천(부평), 전남(순천), 전북(김제), 제주(제주시), 충북(청주), 충남(서산)

(m)과 표준편차(sd), 최소・최대값(min/max)을 제시함.

□ 집단 비교

○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함.

○ 사업참여자 가운데 학력구분(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근무시간 구분(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연령구분(15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함.

3) 연구윤리

□ 연구윤리 심의

○ 본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이므로 그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구윤리 심의 대상이 됨.

○ 본 연구의 계획서, 조사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동국대학교 IRB에 제출,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 받음.

04

설문 조사 결과

제1절 일반적 특성
제2절 고용 상태
제3절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제4절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제5절 주거 상황
제6절 건강 상황
제7절 사회적 관계
제8절 진로에 대한 생각
제9절 근로에 대한 생각
제10절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제11절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제12절 사회에 대한 인식
제13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Ⅳ. 설문 조사 결과

1. 사업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현황 및 가구 현황

○ 조사대상자의 약 39%(n=196)가 남성이며, 약 61%(n=304)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원수가 3명이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약 31%), 다음으로 2인 가구(약 25.6%), 4인 가구(약 17.4%), 1인 가구(13.8%)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주인 경우는 약 44.4%(n=222)였음.

○ 조사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77.6%(n=388)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미혼인 경우가 78.2%(n=391)로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0%(n=2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29.8%(n=149)로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약 93.6%(n=468)가 비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2.6%(n=163)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가구는 응답자와 그의 한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27.6%), 응답자와 그의 두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2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비율도 14.8%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음.

○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23.8세(표준편차: 4.07)로 조사되었음.

<표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성별	남	196.0(39.2)	175.0(38.9)	21.0(42.0)	0.18(1)
	여	304.0(60.8)	275.0(61.1)	29.0(58.0)	
가구원수 (본인포함)	1명	69.0(13.8)	65.0(14.4)	4.0(8.0)	9.8(9)
	2명	128.0(25.6)	116.0(25.8)	12.0(24.0)	
	3명	155.0(31.0)	137.0(30.4)	18.0(36.0)	
	4명	87.0(17.4)	80.0(17.8)	7.0(14.0)	
	5명	39.0(7.8)	34.0(7.6)	5.0(10.0)	
	6명	13.0(2.6)	9.0(2.0)	4.0(8.0)	
	7명	6.0(1.2)	6.0(1.3)	0.0(0.0)	
	8명	1.0(0.2)	1.0(0.2)	0.0(0.0)	
	9명	1.0(0.2)	1.0(0.2)	0.0(0.0)	
	10명 이상	1.0(0.2)	1.0(0.2)	0.0(0.0)	
가구주 여부	예	222.0(44.4)	205.0(45.6)	17.0(34.0)	2.43(1)
	아니오	278.0(55.6)	245.0(54.4)	33.0(66.0)	
자녀수	없음	388.0(77.6)	355.0(78.9)	33.0(66.0)	6.99(6)
	1명	36.0(7.2)	30.0(6.7)	6.0(12.0)	
	2명	47.0(9.4)	41.0(9.1)	6.0(12.0)	
	3명	17.0(3.4)	15.0(3.3)	2.0(4.0)	
	4명	7.0(1.4)	5.0(1.1)	2.0(4.0)	
	5명	4.0(0.8)	3.0(0.7)	1.0(2.0)	
	6명	1.0(0.2)	1.0(0.2)	0.0(0.0)	
혼인 상태	미혼	391.0(78.2)	356.0(79.1)	35.0(70.0)	29.22(6)***
	기혼이며 동거	49.0(9.8)	43.0(9.6)	6.0(12.0)	
	별거	6.0(1.2)	5.0(1.1)	1.0(2.0)	
	사별	4.0(0.8)	4.0(0.9)	0.0(0.0)	
	이혼	42.0(8.4)	37.0(8.2)	5.0(10.0)	
	사실혼관계	5.0(1.0)	5.0(1.1)	0.0(0.0)	
	기타	3.0(0.6)	0.0(0.0)	3.0(6.0)	
학력 (졸업)	초등학교	8.0(1.6)	7.0(1.6)	1.0(2.0)	4.51(4)
	중학교	51.0(10.2)	43.0(9.6)	8.0(16.0)	
	고등학교	280.0(56.0)	250.0(55.6)	30.0(60.0)	
	대학교	149.0(29.8)	138.0(30.7)	11.0(22.0)	
	대학원 이상	12.0(2.4)	12.0(2.7)	0.0(0.0)	
장애 여부	비해당(비장애인)	468.0(93.6)	418.0(92.9)	50.0(100.0)	3.8(2)
	경증(4~6급)	6.0(1.2)	6.0(1.3)	0.0(0.0)	
	중증(1~3급)	26.0(5.2)	26.0(5.8)	0.0(0.0)	
종교 유무	있음	163.0(32.6)	154.0(34.2)	9.0(18.0)	5.39(1)*
	없음	337.0(67.4)	296.0(65.8)	41.0(82.0)	
	1인 가구	74.0(14.8)	71.0(15.8)	3.0(6.0)	
	부부 (응답자+배우자)	7.0(1.4)	6.0(1.3)	1.0(2.0)	
	부부 (응답자+배우자)+미혼자녀	35.0(7.0)	31.0(6.9)	4.0(8.0)	
		125.0(25.0			

2) 근로(고용) 상황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조사대상자의 약 24.0%(n=120)가 상용직 근로자이며,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23.6%(n=118), 20.8%(n=104)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약 36.2%(n=18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는 단순노무직(10.4%), 사무직(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2.3%(n=1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종사자는 67.8%(n=339)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약 66.4%(n=332),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위험성을 가진 경우는 약 33.6%(n=168)인 것으로 조사됨.

<표 4-2>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20.0(24.0)	113.0(25.1)	7.0(14.0)	17.17(7)*
	임시직 근로자	118.0(23.6)	111.0(24.7)	7.0(14.0)	
	일용직 근로자	104.0(20.8)	90.0(20.0)	14.0(28.0)	
	자활근로/ 공공근로	19.0(3.8)	16.0(3.6)	3.0(6.0)	
	고용주/ 자영업자	9.0(1.8)	8.0(1.8)	1.0(2.0)	
	무급가족종사자	3.0(0.6)	2.0(0.4)	1.0(2.0)	
	실업자	28.0(5.6)	28.0(6.2)	0.0(0.0)	
	비경제활동인구	99.0(19.8)	82.0(18.2)	17.0(34.0)	
직종분류	관리자	10.0(2.0)	8.0(1.8)	2.0(4.0)	5.4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1.0(8.2)	40.0(8.9)	1.0(2.0)	
	사무 종사자	43.0(8.6)	40.0(8.9)	3.0(6.0)	
	서비스 종사자	181.0(36.2)	162.0(36.0)	19.0(38.0)	
	판매 종사자	30.0(6.0)	27.0(6.0)	3.0(6.0)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2.0(0.4)	2.0(0.4)	0.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0.6)	3.0(0.7)	0.0(0.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0(2.8)	12.0(2.7)	2.0(4.0)	
	단순노무종사자	52.0(10.4)	46.0(10.2)	6.0(12.0)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24.0(24.8)	110.0(24.4)	14.0(28.0)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61.0(32.2)	149.0(33.1)	12.0(24.0)	1.71(1)
	시간제	339.0(67.8)	301.0(66.9)	38.0(76.0)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332.0(66.4)	299.0(66.4)	33.0(66.0)	0.00(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168.0(33.6)	151.0(33.6)	17.0(34.0)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1) 소득・자산・부채

□ 소득 현황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소득은 약 117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월 평균 총 소득액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7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소득은 사업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소득은 평균 약 1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각각 약 21만원, 5만원으로 조사됨. 공적 이전 소득의 경우에 사업 비참여자가 사업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3〉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총소득	117.34(78.09)	0/640	120.11(77.94)	92.35(75.69)	2.397*
근로소득	74.68(63.02)	0/250	77.84(63.03)	46.24(55.89)	3.399***
사업소득	16.54(33.59)	0/175	16.99(33.88)	12.41(30.84)	0.915
공적 이전소득	21.45(31.61)	0/190	20.41(30.55)	30.84(38.99)	-2.222*
사적 이전소득	4.86(20.46)	0/260	5.09(21.37)	2.86(8.61)	0.73

*p < .05, **p < .01, ***p < .001

□ 자산・부채 현황

○ 조사대상자의 총 자산은 평균 4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금융자산 약 40만원 정도로 확인됨. 한편, 기타 자산은 평균 약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는 평균 41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은 약 7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4>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총자산	43.58(215.45)	0/3000	45.8(225.05)	23.62(90.36)	0.69
금융자산	40.49(214.54)	0/3000	42.7(224.11)	20.6(89.7)	0.691
기타자산	3.09(20.76)	0/275	3.1(21.26)	3.02(15.68)	0.025
개인 부채	418.71(1125.83)	0/10000	441.92(1169.71)	209.84(566.42)	1.384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7.48(22.42)	0/200	7.89(23.41)	3.8(9.08)	1.224

*p < .05, **p < .01, ***p < .001

(2) 수급현황

□ 수급여부

○ 조사대상자의 약 75%(n=375)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가구의 수급 기간은 평균 3년(35.7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수급급여는 생계급여(82.1%), 의료급여(73.3%), 주거급여(59.7%), 교육급여(26.4%) 순으로 나타남.

<표 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수급여부	비해당	125.0(25.0)	116.0(25.8)	9.0(18.0)	1.45(1)
	해당	375.0(75.0)	334.0(74.2)	41.0(82.0)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308(82.1)	274(82)	34(82.9)	25.76(25)
	의료급여	275(73.3)	241(72.2)	34(82.9)	
	주거급여	224(59.7)	199(59.6)	25(61)	
	교육급여	99(26.4)	89(26.7)	10(24.4)	
	해산장제급여	4(1.1)	3(0.9)	1(2.4)	
	자활급여	11(2.9)	9(2.7)	2(4.9)	

*p < .05, **p < .01, ***p < .001

□ 수급기간

○ 조사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은 평균 약 3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표 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수급기간(월)	35.74(45.06)	0/289	35.75(45.75)	35.71(39.56)	0.005

*p < .05, **p < .01, ***p < .001

⑶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약 9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총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비는 약 27만원, 의류 및 신발비는 약 10만원, 보건의료비는 약 6만원, 교육비는 약 13만원, 문화여가비는 약 7만원, 교통 및 차량유지비는 약 8만원, 통신비는 약 10만원, 기타 소비지출은 약 7만원, 세금 및 관리비는 약 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총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용도는 식료품비인 것으로 확인됨.

<표 4-7> 월 평균 생활비(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총생활비	98.21(72.62)	0/680	99.19(73.64)	89.39(62.64)	0.905
식료품비	27.48(21.06)	0/150	27.58(21.11)	26.52(20.84)	0.339
의류/신발비	9.84(10.85)	0/120	9.82(10.82)	9.98(11.2)	-0.097
보건의료비	6.46(12.66)	0/150	6.53(12.84)	5.82(10.94)	0.374
교육비	12.59(31.15)	0/530	12.71(32.28)	11.49(17.99)	0.259
문화여가비	6.53(8.71)	0/80	6.74(8.97)	4.71(5.52)	1.563
교통/차량유지비	7.95(10.98)	0/100	8.16(11.22)	6(8.25)	1.322
통신비	9.86(9.22)	0/60	9.85(9)	10.02(11.05)	-0.127
기타소비지출	7.27(11.31)	0/150	7.45(11.71)	5.68(6.66)	1.05
세금 및 관리비	10.26(13.27)	0/100	10.36(13.25)	9.4(13.51)	0.483

*p < .05, **p < .01, ***p < .001

⑷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주관적 소득수준 정도 및 경제적 여건 지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정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2.19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관적 소득 수준은 사업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 경제적 여건 척도의 평균값은 2.53으로 보통수준에 비해 낮게 인식함. 다시 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8> 월 평균 생활비(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주관적 소득 수준 정도	2.19(1.92)	0/9	2.12(1.92)	2.84(1.82)	-2.533*
경제적 여건 (척도값 평균)	2.53(0.83)	1/5	2.53(0.85)	2.56(0.73)	-0.273

*p < .05, **p < .01, ***p < .001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1) 저축 상황

□ 저축 현황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총 저축액은 약 24만원 것으로 조사됨.

○ 총 저축액 가운데 사회보험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민간 보험 및 개인 연금을 통한 저축액은 약 4만원, 은행예금이나 계・기타 보험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저축액의 평균은 약 9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월 약 10만원을 저축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저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4-9> 월 평균 저축액(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총저축액	23.77(51.42)	0/800	25.03(52.74)	12.4(35.92)	1.651
사회보험	5.04(19.51)	0/200	4.95(18.75)	5.9(25.73)	-0.323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	4.39(15.58)	0/230	4.5(16.15)	3.41(8.72)	0.465
은행예금, 계, 기타보험 등	5.39(19.27)	0/230	5.65(19.48)	3.02(17.17)	0.915
자산형성지원사업	8.99(18.46)	0/200	9.96(19.21)	0.26(1.44)	3.566***

*p < .05, **p < .01, ***p < .001

(2) 저축의 주요 목적

□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하는 경우가 26.0%(n=130)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구원 또는 자신을 위한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저축하는 경우가 24.8%(n=124)로 높았음. 그 외에 부채 상환을 위한 저축은 13.4%(n=67)였음.

<표 4-10>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주요 목적	가구원 교육비	124.0(24.8)	110.0(24.4)	14.0(28.0)	16.79(9)
	주택마련	130.0(26.0)	119.0(26.4)	11.0(22.0)	
	결혼, 상제비	31.0(6.2)	31.0(6.9)	0.0(0.0)	
	노후생활 대비	14.0(2.8)	14.0(3.1)	0.0(0.0)	
	사업자금 마련	19.0(3.8)	18.0(4.0)	1.0(2.0)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1.0(2.2)	10.0(2.2)	1.0(2.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34.0(6.8)	26.0(5.8)	8.0(16.0)	
	여행 및 여가생활	49.0(9.8)	41.0(9.1)	8.0(16.0)	
	부채 상환	67.0(13.4)	63.0(14.0)	4.0(8.0)	
	기타	21.0(4.2)	18.0(4.0)	3.0(6.0)	

*p < .05, **p < .01, ***p < .001

(3)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은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91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71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는 저축을 한 만한 여유가 없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3.71로 보통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라는 문항의 평균은 2.59로 보통 수준이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1> 저축에 대한 생각: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1(0.94)	1/5	3.91(0.94)	3.88(0.98)	0.205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71(0.96)	1/5	3.73(0.94)	3.54(1.11)	1.355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71(1.08)	1/5	3.69(1.08)	3.86(1.09)	-1.05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59(1.18)	1/5	2.58(1.18)	2.68(1.17)	-0.596

*p < .05, **p < .01, ***p < .001

5) 주거 상황

(1)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 조사 대상의 주거유형 및 점유 형태

○ 조사대상자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21.4%(n=107)로 가장 많았으며, 다가구 주택 거주자가 16.6%(n=83), 단독주택 거주자가 16.4%(n=82), 연립주택 거주자가 15.6%(n=78), 일반 아파트 거주자가 13.6%(n=68)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49.4%(n=2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15.0%), 무상거주(13.8%) 순으로 높게 조사됨. 그 외에 기타의견이 많았으며, 조사대상자가 가구주가 아니어서 정확한 점유형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표 4-12>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거주지 유형	일반 단독주택	82.0(16.4)	75.0(16.7)	7.0(14.0)	2.79(9)
	다가구주택	83.0(16.6)	72.0(16.0)	11.0(22.0)	
	다세대 주택	53.0(10.6)	48.0(10.7)	5.0(10.0)	
	연립주택	78.0(15.6)	70.0(15.6)	8.0(16.0)	
	일반 아파트	68.0(13.6)	61.0(13.6)	7.0(14.0)	
	임대아파트	107.0(21.4)	98.0(21.8)	9.0(18.0)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5.0(1.0)	4.0(0.9)	1.0(2.0)	
	준주택	17.0(3.4)	16.0(3.6)	1.0(2.0)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1.0(0.2)	1.0(0.2)	0.0(0.0)	
	기타	6.0(1.2)	5.0(1.1)	1.0(2.0)	
점유 형태	자가	26.0(5.2)	25.0(5.6)	1.0(2.0)	2.24(4)
	전세	75.0(15.0)	67.0(14.9)	8.0(16.0)	
	월세	247.0(49.4)	224.0(49.8)	23.0(46.0)	
	무상	69.0(13.8)	62.0(13.8)	7.0(14.0)	
	기타	83.0(16.6)	72.0(16.0)	11.0(22.0)	

*p < .05, **p < .01, ***p < .001

(2) 주거자산 금액

□ 점유형태별 주거자산 금액 실태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의 평균 주거자산액은 약 5163만원 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평균은 약 8121만원 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월세 혹은 넌세인 경우, 평균 월세보증금은 약 10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주거지출액은 약 2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13> 주거자산 금액(만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자가 총 금액	5162.81(5096.44)	0/18000	5129.32(5198.61)	6000(0)	-
전세보증금 총 금액	8121.02(18725.08)	120/120000	8566.88(19984.05)	5000(2255.79)	0.501
월세 보증금 총 금액	1034.69(1683.23)	0/8500	1099.39(1750.29)	404.57(412.87)	1.895
월 평균 주거지출	27.9(14.2)	0/85	27.93(14.26)	27.59(13.95)	0.107

*p < .05, **p < .01, ***p < .001

6) 건강 상황

(1)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음주행태

□ 주관적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5.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 비참여자가 참여자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음주 척도의 평균은 약 .91점으로 조사됨.

<표 4-14>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주관적 건강상태	5.7(2.74)	0/11	5.57(2.72)	6.84(2.69)	-3.125**
문제음주	0.91(1.11)	0/4	0.92(1.13)	0.84(1.02)	0.481

*p < .05, **p < .01, ***p < .001

(2) 의료서비스 이용

□ 외래진료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53.2%(n=266)가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됨.

○ 외래진료를 받은 사유는 지병/질병이 77.7%(n=205)로 가장 높았음.

<표 4-15>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외래진료 여부	없음	234.0(46.8)	211.0(46.9)	23.0(46.0)	0.01(1)
	있음	266.0(53.2)	239.0(53.1)	27.0(54.0)	
외래진료 사유	지병/질병	205.0(77.7)	183.0(77.2)	22.0(81.5)	2.97(4)
	사고	10.0(3.8)	8.0(3.4)	2.0(7.4)	
	건강검진	19.0(7.2)	17.0(7.2)	2.0(7.4)	
	성형, 정형, 교정	14.0(5.3)	14.0(5.9)	0.0(0.0)	
	기타	16.0(6.1)	15.0(6.3)	1.0(3.7)	

*p < .05, **p < .01, ***p < .001

□ 입원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13.8%(n=69)가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입원 사유는 지병/질병이 58.8%(n=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고가 30.9%(n=21)로 높게 나타남.

<표 4-16>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입원 여부	없음	431.0(86.2)	384.0(85.3)	47.0(94.0)	2.84(1)
	있음	69.0(13.8)	66.0(14.7)	3.0(6.0)	
입원 사유	지병/질병	40.0(58.8)	39.0(60.0)	1.0(33.3)	1.97(3)
	사고	21.0(30.9)	19.0(29.2)	2.0(66.7)	
	성형, 정형, 교정	2.0(2.9)	2.0(3.1)	0.0(0.0)	
	기타	5.0(7.4)	5.0(7.7)	0.0(0.0)	

*p < .05, **p < .01, ***p < .001

□ 건강검진 수검률 및 만성질환

○ 지난 2년 동안 조사대상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약 22.4%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다양하였으며, 주로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관련 질환, 천식이나 비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 관련 질환들이 다수 확인됨.

<표 4-17>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건강검진 여부	없음	388.0(77.6)	347.0(77.1)	41.0(82.0)	0.62(1)
	있음	112.0(22.4)	103.0(22.9)	9.0(18.0)	
만성질환 보유여부	없음	432.0(86.4)	389.0(86.4)	43.0(86.0)	0.01(1)
	있음	68.0(13.6)	61.0(13.6)	7.0(14.0)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관계

(1) 사회 참여

□ 사회참여 여부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약 22.4%(n=112)이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약 59.4%(n=297)인 것으로 조사됨. 친목모임 참여 비율은 52.4%(n=262), 정치관련 모임의 참여비율은 1.4(n=7), 자산단체 및 자원봉사 단체 참여비율은 10.8%(n=54), 기타 시민 단체 참여 비율은 0.8%(n=4)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18.4%(n=92)에 해당됨.

<표 4-1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종교활동	비참여	388.0(77.6)	348.0(77.3)	40.0(80.0)	0.18(1)
	참여	112.0(22.4)	102.0(22.7)	10.0(20.0)	
여가활동	비참여	203.0(40.6)	185.0(41.1)	18.0(36.0)	0.49(1)
	참여	297.0(59.4)	265.0(58.9)	32.0(64.0)	
친목모임	비참여	238.0(47.6)	217.0(48.2)	21.0(42.0)	0.7(1)
	참여	262.0(52.4)	233.0(51.8)	29.0(58.0)	
정치관련 모임	비참여	493.0(98.6)	443.0(98.4)	50.0(100.0)	0.79(1)
	참여	7.0(1.4)	7.0(1.6)	0.0(0.0)	
자원봉사 자선단체	비참여	446.0(89.2)	403.0(89.6)	43.0(86.0)	0.59(1)
	참여	54.0(10.8)	47.0(10.4)	7.0(14.0)	
기타시민단체	비참여	496.0(99.2)	446.0(99.1)	50.0(100.0)	0.45(1)
	참여	4.0(0.8)	4.0(0.9)	0.0(0.0)	
기부여부	기부 안 함	408.0(81.6)	367.0(81.6)	41.0(82.0)	0.01(1)
	기부 함	92.0(18.4)	83.0(18.4)	9.0(18.0)	

*p < .05, **p < .01, ***p < .001

□ 사회참여 빈도 및 기부액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한 일수는 평균 약 67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일수는 약 78일, 친목모임 참여일수는 약 41일,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는 약 16일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간 평균 기부액은 약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종교활동 참여 일수	67.28(94.84)	1/365	68.29(95.57)	56.9(91.11)	0.361
여가활동 참여 일수	77.96(111.52)	1/365	75.55(110.01)	97.91(123.35)	-1.071
친목모임 참여 일수	40.58(64.35)	1/365	41.57(66.93)	32.66(37.59)	0.703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	7.86(10.61)	1/30	7.86(10.61)	-	-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	16.26(23.96)	1/150	16.09(25)	17.43(16.67)	-0.137
기부액(만원)	23.72(80.02)	1/700	23.9(83.49)	22(37.25)	0.067

*p < .05, **p < .01, ***p < .001

(2)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 사회적지지

○ 사회적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42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사회적지지 (척도값 평균)	3.42(0.84)	1/5	3.41(0.82)	3.53(0.95)	-0.974

*p < .05, **p < .01, ***p < .001

8) 진로에 대한 생각

(1) 1년 뒤 예상 진로

□ 순위별 1년 후의 예상 진로

○ 조사대상자의 1년 후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취업 및 이직이 64.0%(n=3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개인 사업 및 창업이 8.8%(n=27), 상급학교 진학이 7.6%(n=38)로 높게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 취업 및 이직을 위한 준비 등이 확인됨.

○ 조사대상자의 1년 후 예상 진로 1순위 가운데 군입대 비율은 사업 비참여자가 참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순위별 예상 진로를 종합해보면, 취업 및 이직, 상급학교의 진행, 개인 사업 및 창업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21>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참여 여부		χ^2 (df)
			참여: n(%)	비참여: n(%)	
1순위	상급학교 진학	38.0(7.6)	35.0(7.8)	3.0(6.0)	14.7(6)*
	유학	9.0(1.8)	9.0(2.0)	0.0(0.0)	
	편입학(학생인 경우)	19.0(3.8)	18.0(4.0)	1.0(2.0)	
	취업 및 이직	320.0(64.0)	288.0(64.0)	32.0(64.0)	
	개인 사업 및 창업	44.0(8.8)	42.0(9.3)	2.0(4.0)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27.0(5.4)	19.0(4.2)	8.0(16.0)	
	기타	43.0(8.6)	39.0(8.7)	4.0(8.0)	
2순위	상급학교 진학	44.0(13.3)	36.0(12.2)	8.0(21.6)	6(6)
	유학	38.0(11.5)	37.0(12.6)	1.0(2.7)	
	편입학(학생인 경우)	27.0(8.2)	24.0(8.2)	3.0(8.1)	
	취업 및 이직	72.0(21.8)	66.0(22.4)	6.0(16.2)	
	개인 사업 및 창업	113.0(34.1)	99.0(33.7)	14.0(37.8)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9.0(2.7)	8.0(2.7)	1.0(2.7)	
	기타	28.0(8.5)	24.0(8.2)	4.0(10.8)	
3순위	상급학교 진학	54.0(19.6)	47.0(19.2)	7.0(22.6)	4.09(6)
	유학	44.0(15.9)	41.0(16.7)	3.0(9.7)	
	편입학(학생인 경우)	28.0(10.1)	24.0(9.8)	4.0(12.9)	
	취업 및 이직	26.0(9.4)	21.0(8.6)	5.0(16.1)	
	개인 사업 및 창업	62.0(22.5)	55.0(22.4)	7.0(22.6)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7.0(2.5)	7.0(2.9)	0.0(0.0)	
	기타	55.0(19.9)	50.0(20.4)	5.0(16.1)	

*p < .05, **p < .01, ***p < .001

(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 및 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을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94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평균은 약 3.27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진로정체감 (척도값 평균)	2.94(0.71)	1/5	2.96(0.7)	2.76(0.8)	1.926
진로준비행동 (척도값 평균)	3.27(0.81)	1/5	3.28(0.8)	3.2(0.95)	0.709

*p < .05, **p < .01, ***p < .001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 근로의욕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자활행동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7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장벽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81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 및 하위변인

○ 고용희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51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의 하위변인인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의 평균 점수는 약 3.28점,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약 3.56점, ‘목적지향’은 약 3.48점, ‘기술과 자원 사용’은 약 3.47점으로 나타남.

<표 4-23>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근로의욕(척도값 평균)		3.54(0.64)	1/5	3.52(0.63)	3.68(0.67)	-1.671
자활행동(척도값 평균)		3.57(0.59)	1/5	3.56(0.58)	3.63(0.64)	-0.773
고용장벽(척도값 평균)		2.81(0.67)	1/5	2.82(0.68)	2.78(0.61)	0.39
고용희망	전체	3.51(0.73)	1/5	3.52(0.72)	3.47(0.81)	0.426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48(0.75)	1/5	3.48(0.75)	3.48(0.77)	-0.043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56(0.82)	1/5	3.57(0.81)	3.53(0.91)	0.289
	목적지향	3.48(0.85)	1/5	3.49(0.83)	3.4(1.02)	0.747
	기술과 자원 사용	3.47(0.84)	1/5	3.48(0.82)	3.41(1.05)	0.526

*p < .05, **p < .01, ***p < .001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 자아정체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03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사업 참여자는 사업 비참여자에 비하여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32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효능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47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응력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28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자아정체감(척도값 평균)	3.03(0.44)	1.5/4.5	3.04(0.43)	2.91(0.47)	2.098*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32(0.66)	1.2/5	3.33(0.64)	3.22(0.81)	1.095
자기효능감(척도값 평균)	3.47(0.79)	1/5	3.48(0.78)	3.39(0.93)	0.747
사회적응력(척도값 평균)	3.28(0.74)	1/5	3.29(0.74)	3.26(0.75)	0.267

*p < .05, **p < .01, ***p < .001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우울 및 영역별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

○ 우울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2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2.91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사회적 친분 관계가 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간 관계가 3.36점, 건강상태가 3.11점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에 나의 소득 수준은 2.1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직업 만족도가 2.92점, 주거환경이 2.95점으로 낮게 나타남.

<표 4-25>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우울(척도값 평균)		2(0.63)	1/4	2(0.63)	2(0.62)	0.009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1(0.92)	1/5	2.91(0.91)	2.9(0.99)	0.049
만족 수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2.95(1.05)	1/5	2.94(1.03)	3.1(1.2)	-1.04
	나와 가족 간의 관계	3.36(1.02)	1/5	3.34(1)	3.58(1.16)	-1.58
	나의 직업	2.92(1.05)	1/5	2.93(1.04)	2.82(1.14)	0.709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	3.4(0.92)	1/5	3.39(0.92)	3.48(0.97)	-0.679
	나의 건강상태	3.11(1.03)	1/5	3.11(1.03)	3.08(1.07)	0.217
	나의 소득 수준	2.16(0.94)	1/5	2.18(0.93)	2.04(1.01)	0.986

*p < .05, **p < .01, ***p < .001

12)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약 4.4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임.

○ 조사대상자의 시민성을 5점 척도를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점수는 약 3.43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3.31점인 것으로 나타남. 다시 말해 조사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소 심화되었다고 느낌.

〈표 4-26〉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사업참여 여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사업 참여 여부		t - test
			참여: m(sd)	비참여: m(sd)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4.49(2.26)	0/11	4.39(2.22)	5.32(2.39)	-2.774**
시민성	3.43(0.65)	1/5	3.42(0.65)	3.51(0.61)	-0.885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3.31(2.27)	0/11	3.18(2.27)	4.52(1.96)	-4.016***

*p < .05, **p < .01, ***p < .001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사업 참여자 및 사업 비참여자)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함.

○ 본 사업의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89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참여 및 참여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상담 및 재무교육 등과 같은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4점으로 조사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3.48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2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사업참여자 전체

문항		전체: m(sd)	min/max
자산형성 지원사업 만족도 수준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2.93(0.99)	1/5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2.89(0.87)	1/5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2.96(0.81)	1/5
	상담 및 재무교육 등 부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2.94(0.88)	1/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48(0.9)	1/5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의 사용 계획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시에 수령하게 되는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사용계획의 1순위(39.6%)와 2순위(22.9) 모두 주택마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다음으로 가구원의 교육비(1순위: 22.7%, 2순위: 14.2%)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에 1순위 사용 계획으로는 부채상환(11.6%)의 비율이 높았으며, 2순위에는 결혼 및 상제비 마련(12.7%),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대비(11.8%)가 높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사용계획의 3순위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14.9%)이 높게 나타남.

<표 4-2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사업참여자 전체

구분	전체: n(%)		
	1순위	2순위	3순위
가구원 교육비	102.0(22.7)	64.0(14.2)	52.0(11.6)
주택마련	178.0(39.6)	103.0(22.9)	43.0(9.6)
결혼, 상제비	30.0(6.7)	57.0(12.7)	46.0(10.2)
노후생활 대비	21.0(4.7)	40.0(8.9)	50.0(11.1)
사업자금 마련	25.0(5.6)	27.0(6.0)	24.0(5.3)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1.0(2.4)	32.0(7.1)	46.0(10.2)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1.0(2.4)	53.0(11.8)	65.0(14.4)
여행 및 여가생활	18.0(4.0)	43.0(9.6)	67.0(14.9)
부채 상환	52.0(11.6)	28.0(6.2)	48.0(10.7)
기타	2.0(0.4)	3.0(0.7)	9.0(2.0)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 욕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후원금 및 물품 지원이 21.1%(n=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개선이 15.6%(n=70), 문화여가 지원이 12.9%(n=58), 자격증 취득 교육이 10.4%(n=47)로 높게 나타남.

<표 4-2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사업참여자 전체

구분	전체: n(%)
가족상담/가족교육	34.0(7.6)
문화여가	58.0(12.9)
후원금/물품	95.0(21.1)
심리상담	34.0(7.6)
양육교육	12.0(2.7)
의료지원	34.0(7.6)
직업교육/훈련	26.0(5.8)
자격증취득교육	47.0(10.4)
주거개선	70.0(15.6)
창업교육	16.0(3.6)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2.0(2.7)
금융교육	10.0(2.2)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사업 비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인지여부, 사업의 필요성, 참여의향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자 가운데 66.0%(n=22)가 본 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비참여자 가운데 92.0%(n=46)가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비참여자 중 80%(n=40)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미인지(42%, n=21)인 것으로 조사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자 가운데 18.0%(n=9)가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이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비참여자 가운데 14.0%(n=7)가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응답, 시기를 맞추지 못하였다는 응답 등이 있었음.

<표 4-3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의사: 사업 비참여자 전체

문항	구분	전체 n(%)
사업 인지여부	알고 있었다	33.0(66.0)
	모르고 있었다	17.0(34.0)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그렇다	46.0(92.0)
	아니다	4.0(8.0)
사업 참여 의향	그렇다	40.0(80.0)
	아니다	10.0(20.0)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	21.0(42.0)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할 수 없었다.	7.0(14.0)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않았다.	3.0(6.0)
	사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신청하지 않았다.	1.0(2.0)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	9.0(18.0)
	기타	9.0(18.0)

2. 학력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현황 및 가구 현황

○ 조사대상자의 약 38.9$(n=175)가 남성이며, 약 61.1%(n=275)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원수가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약30%), 다음으로 2인 가구(25.8%), 4인 가구(17.8%), 1인 가구(14.4%), 5인 가구(7.6%)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주인 경우는 45.6%(n=205),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54.4%(n=245)였음.

○ 조사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78.9%(n=355)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79.1%(n=356)으로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자의 92.9%(n=418)가 비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65.8%(n=29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자의 가구는 응답자와 그의 한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27.8%), 응답자와 그의 두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25.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비율도 15.8%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음.

<표 4-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성별	남	175.0(38.9)	116.0(38.7)	59.0(39.3)	0.02(1)
	여	275.0(61.1)	184.0(61.3)	91.0(60.7)	
가구원수 (본인포함)	1명	65.0(14.4)	42.0(14.0)	23.0(15.3)	4.42(9)
	2명	116.0(25.8)	76.0(25.3)	40.0(26.7)	
	3명	137.0(30.4)	94.0(31.3)	43.0(28.7)	
	4명	80.0(17.8)	53.0(17.7)	27.0(18.0)	
	5명	34.0(7.6)	24.0(8.0)	10.0(6.7)	
	6명	9.0(2.0)	6.0(2.0)	3.0(2.0)	
	7명	6.0(1.3)	3.0(1.0)	3.0(2.0)	
	8명	1.0(0.2)	1.0(0.3)	0.0(0.0)	
	9명	1.0(0.2)	1.0(0.3)	0.0(0.0)	
	10명 이상	1.0(0.2)	0.0(0.0)	1.0(0.7)	
가구주 여부	예	205.0(45.6)	142.0(47.3)	63.0(42.0)	1.15(1)
	아니오	245.0(54.4)	158.0(52.7)	87.0(58.0)	
자녀수	없음	355.0(78.9)	225.0(75.0)	130.0(86.7)	11.62(6)
	1명	30.0(6.7)	24.0(8.0)	6.0(4.0)	
	2명	41.0(9.1)	32.0(10.7)	9.0(6.0)	
	3명	15.0(3.3)	13.0(4.3)	2.0(1.3)	
	4명	5.0(1.1)	4.0(1.3)	1.0(0.7)	
	5명	3.0(0.7)	1.0(0.3)	2.0(1.3)	
	6명	1.0(0.2)	1.0(0.3)	0.0(0.0)	
혼인 상태	미혼	356.0(79.1)	225.0(75.0)	131.0(87.3)	11.95(5)*
	기혼이며 동거	43.0(9.6)	33.0(11.0)	10.0(6.7)	
	별거	5.0(1.1)	3.0(1.0)	2.0(1.3)	
	사별	4.0(0.9)	4.0(1.3)	0.0(0.0)	
	이혼	37.0(8.2)	30.0(10.0)	7.0(4.7)	
	사실혼관계	5.0(1.1)	5.0(1.7)	0.0(0.0)	
장애 여부	비해당(비장애인)	418.0(92.9)	278.0(92.7)	140.0(93.3)	4.24(2)
	경증(4~6급)	6.0(1.3)	2.0(0.7)	4.0(2.7)	
	중증(1~3급)	26.0(5.8)	20.0(6.7)	6.0(4.0)	
종교 유무	있음	154.0(34.2)	89.0(29.7)	65.0(43.3)	8.3(1)**
	없음	296.0(65.8)	211.0(70.3)	85.0(56.7)	
가구 구성	1인 가구	71.0(15.8)	46.0(15.3)	25.0(16.7)	12.1(8)
	부부 (응답자+배우자)	6.0(1.3)	6.0(2.0)	0.0(0.0)	
	부부 (응답자+배우자)+미혼자녀	31.0(6.9)	22.0(7.3)	9.0(6.0)	
	부모+자녀 (응답자)	116.0(25.8)	72.0(24.0)	44.0(29.3)	
	한부모가정(부모(응답자)+미혼자녀)	26.0(5.8)	21.0(7.0)	5.0(3.3)	
	한부모가정 한부모+자녀(응답자))	125.0(27.8)	76.0(25.3)	49.0(32.7)	
	형제자매	28.0(6.2)	20.0(6.7)	8.0(5.3)	
	조부모/한부모+손자녀(응답자)	33.0(7.3)	26.0(8.7)	7.0(4.7)	

2) 근로(고용) 상황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조사대상자의 25.1%(n=113)가 상용근로자이며,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24.7%(n=111), 20%(n=90)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36%(n=162)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졸이하의 조사대상자가 대졸이상의 조사대상자보다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1%(n=14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종사자는 66.9%(n=301)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학력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보다 고졸이하인 경우가 시간제 근로형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한 경우는 66.4%(n=299),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위험성을 가진 경우는 33.6%(n=151)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2>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13.0(25.1)	68.0(22.7)	45.0(30.0)	11.69(7)
	임시직 근로자	111.0(24.7)	67.0(22.3)	44.0(29.3)	
	일용직 근로자	90.0(20.0)	69.0(23.0)	21.0(14.0)	
	자활근로/ 공공근로	16.0(3.6)	11.0(3.7)	5.0(3.3)	
	고용주/ 자영업자	8.0(1.8)	4.0(1.3)	4.0(2.7)	
	무급가족종사자	2.0(0.4)	2.0(0.7)	0.0(0.0)	
	실업자	28.0(6.2)	21.0(7.0)	7.0(4.7)	
	비경제활동인구	82.0(18.2)	58.0(19.3)	24.0(16.0)	
직종분류	관리자	8.0(1.8)	7.0(2.3)	1.0(0.7)	36.1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0.0(8.9)	14.0(4.7)	26.0(17.3)	
	사무 종사자	40.0(8.9)	21.0(7.0)	19.0(12.7)	
	서비스 종사자	162.0(36.0)	110.0(36.7)	52.0(34.7)	
	판매 종사자	27.0(6.0)	21.0(7.0)	6.0(4.0)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2.0(0.4)	0.0(0.0)	2.0(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0.7)	3.0(1.0)	0.0(0.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2.7)	11.0(3.7)	1.0(0.7)	
	단순노무종사자	46.0(10.2)	34.0(11.3)	12.0(8.0)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10.0(24.4)	79.0(26.3)	31.0(20.7)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49.0(33.1)	89.0(29.7)	60.0(40.0)	4.82(1)*
	시간제	301.0(66.9)	211.0(70.3)	90.0(60.0)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299.0(66.4)	205.0(68.3)	94.0(62.7)	1.44(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151.0(33.6)	95.0(31.7)	56.0(37.3)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1) 소득・자산・부채

□ 소득 현황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약 1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7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며, 사업소득은 약 17만원으로 나타남. 한편 고졸이하의 조사대상자가 대졸이상의 조사대상자보다 근로소득은 낮고 사업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이전 소득은 약 20만원, 사적 이전소득은 평균 약 5만원으로 나타나며, 공적 이전 소득은 고졸이하의 조사대상자가 대졸이상의 대상자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3>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총소득	120.11(77.94)	0/640	120.76(82)	118.82(69.34)	0.249
근로소득	77.84(63.03)	0/250	71.87(60.21)	89.88(66.95)	-2.875**
사업소득	16.99(33.88)	0/175	20.11(36.85)	10.77(26.01)	2.777**
공적 이전소득	20.41(30.55)	0/190	23(32.72)	15.25(25.01)	2.551*
사적 이전소득	5.09(21.37)	0/260	5.87(23.63)	3.53(15.88)	1.095

*p < .05, **p < .01, ***p < .001

□ 자산・부채 현황

○ 조사대상자의 총 자산은 평균 4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금융자산은 약 43만원, 기타자산은 약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는 평균 44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에 ᄃᆞ른 월 평균 상환액은 약 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개인 부채는 대졸이상의 조사대상자가 고졸이하의 조사대상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4>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총자산	45.8(225.05)	0/3000	54.75(268.61)	27.9(85.78)	1.194
금융자산	42.7(224.11)	0/3000	51.42(267.87)	25.26(83.11)	1.168
기타자산	3.1(21.26)	0/275	3.33(19.86)	2.64(23.88)	0.323
개인 부채	441.92(1169.71)	0/10000	301.07(790.48)	723.61(1658.1)	-3.662***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7.89(23.41)	0/200	8.39(24.58)	6.89(20.91)	0.637

*p < .05, **p < .01, ***p < .001

(2) 수급현황

□ 수급여부

○ 조사대상자의 74.2%(n=33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가구의 수급 기간은 평균 3년(35.8개월)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수급급여는 생계급여(82%), 의료급여(72.2%), 주거급여(59.6%), 교육급여(26.7%) 순으로 나타남.

<표 4-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수급여부	비해당	116.0(25.8)	74.0(24.7)	42.0(28.0)	0.58(1)
	해당	334.0(74.2)	226.0(75.3)	108.0(72.0)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274(82)	184(81.4)	90(83.3)	31.74(24)
	의료급여	241(72.2)	162(71.7)	79(73.2)	
	주거급여	199(59.6)	137(60.6)	62(57.4)	
	교육급여	89(26.7)	69(30.5)	20(18.5)	
	해산장제급여	3(0.9)	3(1.3)	0(0)	
	자활급여	9(2.7)	5(2.2)	4(3.7)	

*p < .05, **p < .01, ***p < .001

□ 수급기간

○ 조사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은 평균 약 3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표 4-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수급기간(월)	35.75(45.75)	0/289	35.68(43.7)	35.89(49.98)	-0.04

*p < .05, **p < .01, ***p < .001

(3)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약 99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총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비는 약 28만원, 의류 및 신발비는 약 10만원, 보건의료비는 약 7만원, 교육비는 약 13만원, 문화여가비는 약 7만원, 교통 및 차량유지비는 약 8만원, 통신비는 약 10만원, 기타 소비지출은 약 7만원, 세금 및 관리비는 약 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총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용도는 교육비인 것으로 확인됨.

<표 4-37> 월 평균 생활비(만원):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총생활비	99.19(73.64)	0/680	98.85(74.27)	99.87(72.6)	-0.139
식료품비	27.58(21.11)	0/150	27.3(22.52)	28.15(18)	-0.399
의류/신발비	9.82(10.82)	0/120	10(11.45)	9.46(9.48)	0.502
보건의료비	6.53(12.84)	0/150	6.86(14.83)	5.85(7.41)	0.789
교육비	12.71(32.28)	0/530	11.23(17.55)	15.65(50.08)	-1.371
문화여가비	6.74(8.97)	0/80	6.56(8.88)	7.09(9.18)	-0.586
교통/차량유지비	8.16(11.22)	0/100	8.12(11.21)	8.24(11.3)	-0.11
통신비	9.85(9)	0/60	10.63(9.82)	8.27(6.86)	2.642**
기타소비지출	7.45(11.71)	0/150	7.69(13.12)	6.98(8.2)	0.603
세금 및 관리비	10.36(13.25)	0/100	10.44(12.98)	10.18(13.82)	0.195

*p < .05, **p < .01, ***p < .001

(4)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주관적 소득수준 정도 및 경제적 여건 지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정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2.12점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여건 척도의 평균값은 2.53으로 보통수준에 비해 낮게 인식함. 다시 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중간 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38〉 월 평균 생활비(만원):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주관적 소득 수준 정도	2.12(1.92)	0/9	2.24(1.98)	1.89(1.76)	1.832
경제적 여건 (척도값 평균)	2.53(0.85)	1/5	2.54(0.87)	2.52(0.8)	0.225

*p < .05, **p < .01, ***p < .001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1) 저축 상황

□ 저축 현황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총 저축액은 약 25만원 것으로 조사됨.

○ 총 저축액 가운데 사회보험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민간 보험 및 개인 연금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은행예금이나 계・기타 보험을 통한 저축액은 약 6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저축액의 평균은 약 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39〉 월 평균 저축액(만원):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총저축액	25.03(52.74)	0/800	23.2(57.27)	28.7(42.19)	-1.044
사회보험	4.95(18.75)	0/200	4.65(19.33)	5.56(17.58)	-0.488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	4.5(16.15)	0/230	4.74(19.2)	4.02(6.79)	0.441
은행예금, 계, 기타보험 등	5.65(19.48)	0/230	4.6(16.33)	7.76(24.56)	-1.62
자산형성지원사업	9.96(19.21)	0/200	9.23(18.64)	11.41(20.29)	-1.135

*p < .05, **p < .01, ***p < .001

(2) 저축의 주요 목적

□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하는 경우가 26.4%(n=119)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구원 또는 자신을 위한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저축하는 경우가 24.4%(n=110)로 높았음. 그 외에 부채 상환을 위한 저축은 14%(n=63)였음.

<표 4-40>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주요 목적	가구원 교육비	110.0(24.4)	78.0(26.0)	32.0(21.3)	13.1(9)
	주택마련	119.0(26.4)	76.0(25.3)	43.0(28.7)	
	결혼, 상제비	31.0(6.9)	20.0(6.7)	11.0(7.3)	
	노후생활 대비	14.0(3.1)	11.0(3.7)	3.0(2.0)	
	사업자금 마련	18.0(4.0)	10.0(3.3)	8.0(5.3)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0.0(2.2)	10.0(3.3)	0.0(0.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26.0(5.8)	19.0(6.3)	7.0(4.7)	
	여행 및 여가생활	41.0(9.1)	30.0(10.0)	11.0(7.3)	
	부채 상환	63.0(14.0)	36.0(12.0)	27.0(18.0)	
	기타	18.0(4.0)	10.0(3.3)	8.0(5.3)	

*p < .05, **p < .01, ***p < .001

(3)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은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91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3.73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나는 저축을 한 만한 여유가 없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69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2.58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41> 저축에 대한 생각: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1(0.94)	1/5	3.96(0.94)	3.81(0.94)	1.633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73(0.94)	1/5	3.76(0.94)	3.69(0.94)	0.745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69(1.08)	1/5	3.67(1.09)	3.74(1.06)	-0.68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58(1.18)	1/5	2.56(1.18)	2.61(1.18)	-0.481

*p < .05, **p < .01, ***p < .001

5) 주거 상황

(1)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 조사 대상의 주거유형 및 점유 형태

○ 조사대상자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21.8%(n=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 단독주택 16.7%(n=75), 다가구주택 16%(n=72), 연립주택 15.6%(n=70), 일반 아파트 13.6%(n=61)순으로 나타남. 한편 고졸이하의 조사대상자가 대졸이상의 대상자보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거주지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49.8%(n=22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6%(n=72), 전세 14.9%(n=67), 무상 13.8%(n=62), 자가 5.6%(n=25) 순으로 조사됨.

<표 4-42>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거주지 유형	일반 단독주택	75.0(16.7)	59.0(19.7)	16.0(10.7)	23.73(9)**
	다가구주택	72.0(16.0)	49.0(16.3)	23.0(15.3)	
	다세대 주택	48.0(10.7)	37.0(12.3)	11.0(7.3)	
	연립주택	70.0(15.6)	40.0(13.3)	30.0(20.0)	
	일반 아파트	61.0(13.6)	30.0(10.0)	31.0(20.7)	
	임대아파트	98.0(21.8)	69.0(23.0)	29.0(19.3)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4.0(0.9)	4.0(1.3)	0.0(0.0)	
	준주택	16.0(3.6)	8.0(2.7)	8.0(5.3)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1.0(0.2)	1.0(0.3)	0.0(0.0)	
	기타	5.0(1.1)	3.0(1.0)	2.0(1.3)	
점유 형태	자가	25.0(5.6)	14.0(4.7)	11.0(7.3)	1.93(4)
	전세	67.0(14.9)	43.0(14.3)	24.0(16.0)	
	월세	224.0(49.8)	150.0(50.0)	74.0(49.3)	
	무상	62.0(13.8)	43.0(14.3)	19.0(12.7)	
	기타	72.0(16.0)	50.0(16.7)	22.0(14.7)	

*p < .05, **p < .01, ***p < .001

(2) 주거자산 금액

□ 점유형태별 주거자산 금액 실태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평균 주거자산액은 약 51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은 약 8566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평균 월세 보증금이 약 10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주거지출액은 약 2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43> 주거자산 금액(만원):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자가 총 금액	5129.32(5198.61)	0/18000	4966.43(4314.15)	5336.64(6370.35)	-0.173
전세보증금 총 금액	8566.88(19984.05)	120/120000	10229.59(24450.77)	5328.95(2800.66)	0.867
월세 보증금 총 금액	1099.39(1750.29)	0/8500	961.71(1662.22)	1378.47(1897.64)	-1.683
월 평균 주거지출	27.93(14.26)	4/85	28.91(13.9)	25.94(14.85)	1.449

*p < .05, **p < .01, ***p < .001

6) 건강 상황

(1)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음주행태

□ 주관적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5.57점인 것으로 조사됨.

○ 문제음주 척도의 평균은 약 0.92점으로 조사됨.

<표 4-44>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주관적 건강상태	5.57(2.72)	0/10	5.68(2.78)	5.37(2.6)	1.139
문제음주	0.92(1.13)	0/4	0.91(1.14)	0.93(1.1)	-0.177

*p < .05, **p < .01, ***p < .001

(2) 의료서비스 이용

□ 외래진료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53.1%(n=239)는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됨.

○ 외래진료를 받은 사유는 지병/질병이 77.2%(n=1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45>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외래진료 여부	없음	211.0(46.9)	147.0(49.0)	64.0(42.7)	1.61(1)
	있음	239.0(53.1)	153.0(51.0)	86.0(57.3)	
외래진료 사유	지병/질병	183.0(77.2)	113.0(74.3)	70.0(82.4)	7.36(4)
	사고	8.0(3.4)	6.0(3.9)	2.0(2.4)	
	건강검진	17.0(7.2)	9.0(5.9)	8.0(9.4)	
	성형, 정형, 교정	14.0(5.9)	13.0(8.6)	1.0(1.2)	
	기타	15.0(6.3)	11.0(7.2)	4.0(4.7)	

*p < .05, **p < .01, ***p < .001

□ 입원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85.3%(n=384)가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입원 사유는 지병/질병이 60.0%(n=39)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가 29.2%(n=19)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표 4-46>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입원 여부	없음	384.0(85.3)	261.0(87.0)	123.0(82.0)	2(1)
	있음	66.0(14.7)	39.0(13.0)	27.0(18.0)	
입원 사유	지병/질병	39.0(60.0)	24.0(63.2)	15.0(55.6)	2.54(3)
	사고	19.0(29.2)	9.0(23.7)	10.0(37.0)	
	성형, 정형, 교정	2.0(3.1)	2.0(5.3)	0.0(0.0)	
	기타	5.0(7.7)	3.0(7.9)	2.0(7.4)	

*p < .05, **p < .01, ***p < .001

□ 건강검진 수검률 및 만성질환

○ 지난 2년 동안 조사대상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2.9%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다양하였으며, 주로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관련 질환, 천식이나 비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 관련 질환들이 다수 확인됨.

<표 4-47>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건강검진 여부	없음	347.0(77.1)	237.0(79.0)	110.0(73.3)	1.82(1)
	있음	103.0(22.9)	63.0(21.0)	40.0(26.7)	
만성질환 보유여부	없음	389.0(86.4)	257.0(85.7)	132.0(88.0)	0.46(1)
	있음	61.0(13.6)	43.0(14.3)	18.0(12.0)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관계

(1) 사회 참여

□ 사회참여 여부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22.7%(n=102)이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58.9(n=265)인 것으로 조사됨. 친목모임 참여 비율은 51.8(n=233), 정치관련 모임의 참여비율은 1.6%(n=7),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 참여비율은 10.4%(n=47), 기타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0.9%(n=4)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종교활동은 고졸이하의 조사대상자가 대졸이상의 조사대상자보다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18.4%(n=83)에 해당됨.

<표 4-4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종교활동	비참여	348.0(77.3)	243.0(81.0)	105.0(70.0)	6.9(1)**
	참여	102.0(22.7)	57.0(19.0)	45.0(30.0)	
여가활동	비참여	185.0(41.1)	132.0(44.0)	53.0(35.3)	3.1(1)
	참여	265.0(58.9)	168.0(56.0)	97.0(64.7)	
친목모임	비참여	217.0(48.2)	153.0(51.0)	64.0(42.7)	2.78(1)
	참여	233.0(51.8)	147.0(49.0)	86.0(57.3)	
정치관련 모임	비참여	443.0(98.4)	295.0(98.3)	148.0(98.7)	0.07(1)
	참여	7.0(1.6)	5.0(1.7)	2.0(1.3)	
자원봉사 자선단체	비참여	403.0(89.6)	272.0(90.7)	131.0(87.3)	1.19(1)
	참여	47.0(10.4)	28.0(9.3)	19.0(12.7)	
기타시민단체	비참여	446.0(99.1)	296.0(98.7)	150.0(100.0)	2.02(1)
	참여	4.0(0.9)	4.0(1.3)	0.0(0.0)	
기부여부	기부 안 함	367.0(81.6)	248.0(82.7)	119.0(79.3)	0.74(1)
	기부 함	83.0(18.4)	52.0(17.3)	31.0(20.7)	

*p < .05, **p < .01, ***p < .001

□ 사회참여 빈도 및 기부액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한 일수는 평균 약 68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일수는 약 76일, 친목모임 참여 일수는 약 67일,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는 8일,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는 약 16일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기부액은 약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49>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종교활동 참여 일수	68.29(95.57)	1/365	60.51(94.14)	78.16(97.52)	-0.925
여가활동 참여 일수	75.55(110.01)	1/365	74.43(109.89)	77.49(110.76)	-0.218
친목모임 참여 일수	41.57(66.93)	1/365	39.38(65.42)	45.31(69.66)	-0.652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	7.86(10.61)	1/30	7(12.86)	10(0)	-0.312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	16.09(25)	1/150	14.39(15.51)	18.58(35.01)	-0.559
기부액(만원)	23.9(83.49)	1/700	29.79(104.35)	14.04(19.48)	0.83

*p < .05, **p < .01, ***p < .001

(2)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 사회적지지

○ 사회적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41로 보통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0>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사회적지지 (척도값 평균)	3.41(0.82)	1/5	3.37(0.83)	3.5(0.81)	-1.529

*p < .05, **p < .01, ***p < .001

8) 진로에 대한 생각

(1) 1년 뒤 예상 진로

□ 순위별 1년 후의 예상 진로

○ 조사대상자의 1년 후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취업 및 이직이 64%(n=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개인 사업 및 창업이 9.3%(n=42), 상급학교 진학 7.8%(n=35)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 취업 및 이직을 위한 준비 등이 확인됨.

○ 순위별 예상 진로를 종합해보면, 취업 및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 상급학교 진학의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51>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1순위	상급학교 진학	35.0(7.8)	26.0(8.7)	9.0(6.0)	9.1(6)
	유학	9.0(2.0)	5.0(1.7)	4.0(2.7)	
	편입학(학생인 경우)	18.0(4.0)	14.0(4.7)	4.0(2.7)	
	취업 및 이직	288.0(64.0)	179.0(59.7)	109.0(72.7)	
	개인 사업 및 창업	42.0(9.3)	32.0(10.7)	10.0(6.7)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19.0(4.2)	15.0(5.0)	4.0(2.7)	
	기타	39.0(8.7)	29.0(9.7)	10.0(6.7)	
2순위	상급학교 진학	36.0(12.2)	19.0(9.9)	17.0(16.5)	7.08(6)
	유학	37.0(12.6)	24.0(12.6)	13.0(12.6)	
	편입학(학생인 경우)	24.0(8.2)	16.0(8.4)	8.0(7.8)	
	취업 및 이직	66.0(22.4)	45.0(23.6)	21.0(20.4)	
	개인 사업 및 창업	99.0(33.7)	61.0(31.9)	38.0(36.9)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8.0(2.7)	7.0(3.7)	1.0(1.0)	
	기타	24.0(8.2)	19.0(9.9)	5.0(4.9)	
3순위	상급학교 진학	47.0(19.2)	28.0(17.6)	19.0(22.1)	11.58(6)
	유학	41.0(16.7)	22.0(13.8)	19.0(22.1)	
	편입학(학생인 경우)	24.0(9.8)	19.0(11.9)	5.0(5.8)	
	취업 및 이직	21.0(8.6)	17.0(10.7)	4.0(4.7)	
	개인 사업 및 창업	55.0(22.4)	31.0(19.5)	24.0(27.9)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7.0(2.9)	6.0(3.8)	1.0(1.2)	
	기타	50.0(20.4)	36.0(22.6)	14.0(16.3)	

*p < .05, **p < .01, ***p < .001

(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을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94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평균은 약 3.28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진로정체감 (척도값 평균)	2.96(0.7)	1/5	3(0.71)	2.89(0.68)	1.632
진로준비행동 (척도값 평균)	3.28(0.8)	1/5	3.26(0.81)	3.32(0.79)	-0.636

*p < .05, **p < .01, ***p < .001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 근로의욕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활행동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6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장벽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82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 및 하위변인

○ 고용희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52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의 하위변인인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의 평균 점수는 약 3.48점,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약 3.57점, ‘목적지향’은 약 3.49점, ‘기술과 자원 사용’은 약 3.48로 나타남.

<표 4-53>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근로의욕(척도값 평균)		3.52(0.63)	1/5	3.52(0.65)	3.52(0.59)	-0.047
자활행동(척도값 평균)		3.56(0.58)	1/5	3.54(0.58)	3.61(0.57)	-1.332
고용장벽(척도값 평균)		2.82(0.68)	1/5	2.79(0.7)	2.86(0.64)	-0.973
고용희망	전체	3.52(0.72)	1/5	3.49(0.73)	3.58(0.69)	-1.223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48(0.75)	1/5	3.47(0.77)	3.49(0.72)	-0.206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57(0.81)	1/5	3.53(0.81)	3.65(0.81)	-1.497
	목적지향	3.49(0.83)	1/5	3.45(0.84)	3.59(0.8)	-1.675
	기술과 자원 사용	3.48(0.82)	1/5	3.45(0.83)	3.53(0.78)	-0.913

*p < .05, **p < .01, ***p < .001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 자아정체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04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33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효능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48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응력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29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4>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자아정체감(척도값 평균)	3.04(0.43)	1.5/4.5	3.04(0.44)	3.05(0.42)	-0.23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33(0.64)	1.2/5	3.3(0.64)	3.38(0.64)	-1.268
자기효능감(척도값 평균)	3.48(0.78)	1/5	3.45(0.8)	3.53(0.72)	-1.005
사회적응력(척도값 평균)	3.29(0.74)	1/5	3.24(0.76)	3.37(0.67)	-1.742

*p < .05, **p < .01, ***p < .001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우울 및 영역별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

○ 우울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2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2.91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가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3.34점, 나의 건강상태가 3.11점으로 나타남. 반면에 나의 소득수준은 2.1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직업이 2.93점,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2.94점으로 낮게 나타남. 한편, 대졸이상의 조사대상자가 고졸이하의 대상자보다 나의 직업과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5>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우울(척도값 평균)		2(0.63)	1/4	2.02(0.65)	1.95(0.59)	1.221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1(0.91)	1/5	2.93(0.93)	2.86(0.87)	0.769
만족 수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2.94(1.03)	1/5	2.95(1.04)	2.92(1)	0.259
	나와 가족 간의 관계	3.34(1)	1/5	3.34(0.97)	3.34(1.06)	0
	나의 직업	2.93(1.04)	1/5	3.01(1.04)	2.77(1.02)	2.381*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	3.39(0.92)	1/5	3.42(0.95)	3.32(0.85)	1.092
	나의 건강상태	3.11(1.03)	1/5	3.17(1.06)	3(0.96)	1.659
	나의 소득 수준	2.18(0.93)	1/5	2.26(0.97)	2.01(0.82)	2.672**

*p < .05, **p < .01, ***p < .001

12)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약 4.3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임.

○ 조사대상자의 시민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점수는 약 3.42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함.

○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3.18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소 심화되었다고 느낌.

<표 4-56>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4.39(2.22)	0/10	4.37(2.25)	4.44(2.18)	-0.315
시민성	3.42(0.65)	1/5	3.39(0.67)	3.48(0.61)	-1.356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3.18(2.27)	0/10	3.32(2.29)	2.91(2.21)	1.814

*p < .05, **p < .01, ***p < .001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함.

○ 본 사업의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본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89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참여 및 참여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상담 및 재무교육 등과 같은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4점으로 조사됨. 한편, 학력수준이 고졸이하인 응답자가 대졸이상의 응답자에 비해 사업 참여 및 참여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3.48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5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학력수준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학력수준		t - test
			고졸이하: m(sd)	대졸이상: m(sd)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2.93(0.99)	1/5	2.97(0.96)	2.85(1.03)	1.151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2.89(0.87)	1/5	2.91(0.88)	2.84(0.85)	0.839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2.96(0.81)	1/5	3.01(0.81)	2.85(0.82)	2.052*
상담 및 재무교육 등 부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2.94(0.88)	1/5	2.99(0.89)	2.84(0.86)	1.66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48(0.9)	1/5	3.53(0.89)	3.37(0.92)	1.818

*p < .05, **p < .01, ***p < .00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의 사용 계획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시에 수령하게 되는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사용계획의 1순위(39.6%), 2순위(22.9%)로 모두 주택마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다음으로 가구원의 교육비(1순위: 22.7%%, 2순위: 14.2%)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에 1순위 사용 계획으로는 부채 상환(11.6%)의 비율이 높았으며, 2순위에는 결혼, 상제비(12.7%)가 높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사용계획의 3순위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14.9%),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14.4%)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1순위	가구원 교육비	102.0(22.7)	72.0(24.0)	30.0(20.0)	13.56(9)
	주택마련	178.0(39.6)	120.0(40.0)	58.0(38.7)	
	결혼, 상제비	30.0(6.7)	18.0(6.0)	12.0(8.0)	
	노후생활 대비	21.0(4.7)	13.0(4.3)	8.0(5.3)	
	사업자금 마련	25.0(5.6)	17.0(5.7)	8.0(5.3)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1.0(2.4)	10.0(3.3)	1.0(0.7)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1.0(2.4)	6.0(2.0)	5.0(3.3)	
	여행 및 여가생활	18.0(4.0)	15.0(5.0)	3.0(2.0)	
	부채 상환	52.0(11.6)	27.0(9.0)	25.0(16.7)	
	기타	2.0(0.4)	2.0(0.7)	0.0(0.0)	
2순위	가구원 교육비	64.0(14.2)	48.0(16.0)	16.0(10.7)	14.83(9)
	주택마련	103.0(22.9)	66.0(22.0)	37.0(24.7)	
	결혼, 상제비	57.0(12.7)	35.0(11.7)	22.0(14.7)	
	노후생활 대비	40.0(8.9)	28.0(9.3)	12.0(8.0)	
	사업자금 마련	27.0(6.0)	21.0(7.0)	6.0(4.0)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32.0(7.1)	26.0(8.7)	6.0(4.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53.0(11.8)	37.0(12.3)	16.0(10.7)	
	여행 및 여가생활	43.0(9.6)	22.0(7.3)	21.0(14.0)	
	부채 상환	28.0(6.2)	15.0(5.0)	13.0(8.7)	
	기타	3.0(0.7)	2.0(0.7)	1.0(0.7)	
3순위	가구원 교육비	52.0(11.6)	32.0(10.7)	20.0(13.3)	9.81(9)
	주택마련	43.0(9.6)	31.0(10.3)	12.0(8.0)	
	결혼, 상제비	46.0(10.2)	32.0(10.7)	14.0(9.3)	
	노후생활 대비	50.0(11.1)	38.0(12.7)	12.0(8.0)	
	사업자금 마련	24.0(5.3)	20.0(6.7)	4.0(2.7)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46.0(10.2)	28.0(9.3)	18.0(12.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65.0(14.4)	40.0(13.3)	25.0(16.7)	
	여행 및 여가생활	67.0(14.9)	44.0(14.7)	23.0(15.3)	
	부채 상환	48.0(10.7)	28.0(9.3)	20.0(13.3)	
	기타	9.0(2.0)	7.0(2.3)	2.0(1.3)	

*p < .05, **p < .01, ***p < .00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 욕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후원금/물품 지원이 21.1%(n=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개선이 15.6%(n=70), 문화여가 12.9%%(n=58), 자격증취득교육이 10.4%(n=47)로 높게 나타남. 한편, 학력수준이 고졸이하의 응답자가 대졸이상의 응답자보다 후원금/물품,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59>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학력수준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학력수준		χ^2 (df)
			고졸이하: n(%)	대졸이상: n(%)	
부가 서비스 욕구	가족상담/가족교육	34.0(7.6)	25.0(8.3)	9.0(6.0)	21.34(12) *
	문화여가	58.0(12.9)	46.0(15.3)	12.0(8.0)	
	후원금/물품	95.0(21.1)	68.0(22.7)	27.0(18.0)	
	심리상담	34.0(7.6)	23.0(7.7)	11.0(7.3)	
	양육교육	12.0(2.7)	9.0(3.0)	3.0(2.0)	
	의료지원	34.0(7.6)	24.0(8.0)	10.0(6.7)	
	직업교육/훈련	26.0(5.8)	16.0(5.3)	10.0(6.7)	
	자격증취득교육	47.0(10.4)	25.0(8.3)	22.0(14.7)	
	주거개선	70.0(15.6)	41.0(13.7)	29.0(19.3)	
	창업교육	16.0(3.6)	9.0(3.0)	7.0(4.7)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2.0(2.7)	4.0(1.3)	8.0(5.3)	
	금융교육	10.0(2.2)	8.0(2.7)	2.0(1.3)	
	기타	2.0(0.4)	2.0(0.7)	0.0(0.0)	

*p < .05, **p < .01, ***p < .001

3. 근로형태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현황 및 가구 현황

○ 조사대상자의 38.9%(n=175)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1.1%(n=275)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원수가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0.4%),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25.8%(n=116), 4인 가구 17.8%(n=80), 1인 가구 14.4%(n=65) 순으로 나타남.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주인 경우는 45.6%(205)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78.9%(n=355)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미혼인 경우가 79.1%(n=356)로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5.6%(n=2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30.7%(n=138)로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92.9%(n=418)가 비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5.8%(n=296)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가구는 응답자와 그의 한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27.8%(n=125), 응답자와 그의 두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25.8%(n=116)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비율도 15.8%(n=71)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음.

<표 4-60>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성별	남	175.0(38.9)	66.0(44.3)	109.0(36.2)	2.74(1)
	여	275.0(61.1)	83.0(55.7)	192.0(63.8)	
가구원수 (본인포함)	1명	65.0(14.4)	13.0(8.7)	52.0(17.3)	13.17(9)
	2명	116.0(25.8)	37.0(24.8)	79.0(26.2)	
	3명	137.0(30.4)	51.0(34.2)	86.0(28.6)	
	4명	80.0(17.8)	26.0(17.4)	54.0(17.9)	
	5명	34.0(7.6)	13.0(8.7)	21.0(7.0)	
	6명	9.0(2.0)	4.0(2.7)	5.0(1.7)	
	7명	6.0(1.3)	4.0(2.7)	2.0(0.7)	
	8명	1.0(0.2)	0.0(0.0)	1.0(0.3)	
	9명	1.0(0.2)	1.0(0.7)	0.0(0.0)	
	10명 이상	1.0(0.2)	0.0(0.0)	1.0(0.3)	
가구주 여부	예	205.0(45.6)	62.0(41.6)	143.0(47.5)	1.4(1)
	아니오	245.0(54.4)	87.0(58.4)	158.0(52.5)	
자녀수	없음	355.0(78.9)	117.0(78.5)	238.0(79.1)	6.93(6)
	1명	30.0(6.7)	12.0(8.1)	18.0(6.0)	
	2명	41.0(9.1)	9.0(6.0)	32.0(10.6)	
	3명	15.0(3.3)	6.0(4.0)	9.0(3.0)	
	4명	5.0(1.1)	3.0(2.0)	2.0(0.7)	
	5명	3.0(0.7)	2.0(1.3)	1.0(0.3)	
	6명	1.0(0.2)	0.0(0.0)	1.0(0.3)	
혼인 상태	미혼	356.0(79.1)	119.0(79.9)	237.0(78.7)	2.72(5)
	기혼이며 동거	43.0(9.6)	17.0(11.4)	26.0(8.6)	
	별거	5.0(1.1)	1.0(0.7)	4.0(1.3)	
	사별	4.0(0.9)	1.0(0.7)	3.0(1.0)	
	이혼	37.0(8.2)	9.0(6.0)	28.0(9.3)	
	사실혼관계	5.0(1.1)	2.0(1.3)	3.0(1.0)	
학력 (졸업)	초등학교	7.0(1.6)	4.0(2.7)	3.0(1.0)	8.12(4)
	중학교	43.0(9.6)	11.0(7.4)	32.0(10.6)	
	고등학교	250.0(55.6)	74.0(49.7)	176.0(58.5)	
	대학교	138.0(30.7)	54.0(36.2)	84.0(27.9)	
	대학원 이상	12.0(2.7)	6.0(4.0)	6.0(2.0)	
장애 여부	비해당(비장애인)	418.0(92.9)	143.0(96.0)	275.0(91.4)	3.92(2)
	경증(4~6급)	6.0(1.3)	2.0(1.3)	4.0(1.3)	
	중증(1~3급)	26.0(5.8)	4.0(2.7)	22.0(7.3)	
종교 유무	있음	154.0(34.2)	55.0(36.9)	99.0(32.9)	0.72(1)
	없음	296.0(65.8)	94.0(63.1)	202.0(67.1)	
	1인 가구	71.0(15.8)	15.0(10.1)	56.0(18.6)	
	부부 (응답자+배우자)	6.0(1.3)	0.0(0.0)	6.0(2.0)	
	부부 (응답자+배우자)+미혼자녀	31.0(6.9)	15.0(10.1)	16.0(5.3)	
	부모+자녀 (응답자)	116.0(25.8)	45.0(30.2)	71.0(23.6)	

2) 근로(고용) 상황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조사대상자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36.0%(n=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24.4%(n=110), 단순노무종사자 10.2%(n=46)순으로 나타남. 한편, 비전일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66.4%(n=299),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위험성을 가진 경우는 33.6%(n=151)인 것으로 조사됨.

<표 4-61>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직종분류	관리자	8.0(1.8)	5.0(3.4)	3.0(1.0)	53.2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0.0(8.9)	24.0(16.1)	16.0(5.3)	
	사무 종사자	40.0(8.9)	24.0(16.1)	16.0(5.3)	
	서비스 종사자	162.0(36.0)	47.0(31.5)	115.0(38.2)	
	판매 종사자	27.0(6.0)	11.0(7.4)	16.0(5.3)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2.0(0.4)	2.0(1.3)	0.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0.7)	1.0(0.7)	2.0(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2.7)	6.0(4.0)	6.0(2.0)	
	단순노무종사자	46.0(10.2)	12.0(8.1)	34.0(11.3)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10.0(24.4)	17.0(11.4)	93.0(30.9)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299.0(66.4)	108.0(72.5)	191.0(63.5)	3.64(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151.0(33.6)	41.0(27.5)	110.0(36.5)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1) 소득・자산・부채

□ 소득 현황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소득은 약 1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월 평균 총 소득액은 전일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7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소득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가 비전일제 근무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소득은 평균 약 17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소득은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이전소득의 월 평균 총소득은 약 20만원이며, 사적 이전소득은 약 5만원으로 나타남.

<표 4-62>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총소득	120.11(77.94)	0/640	142.91(64.11)	108.83(81.72)	4.457***
근로소득	77.84(63.03)	0/250	115.48(62.76)	59.34(54.4)	9.762***
사업소득	16.99(33.88)	0/175	7.4(25.03)	21.74(36.62)	-4.306***
공적 이전소득	20.41(30.55)	0/190	17.89(28.45)	21.66(31.51)	-1.233
사적 이전소득	5.09(21.37)	0/260	2.92(12.06)	6.16(24.67)	-1.516

*p < .05, **p < .01, ***p < .001

□ 자산・부채 현황

○ 조사대상자의 총 자산은 평균 4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금융자산이 약 43만원, 기타 자산은 약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는 평균 44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은 약 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63>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총자산	45.8(225.05)	0/3000	54.63(226.37)	41.43(224.65)	0.585
금융자산	42.7(224.11)	0/3000	52.6(226.4)	37.8(223.19)	0.659
기타자산	3.1(21.26)	0/275	2.03(11.21)	3.63(24.77)	-0.751
개인 부채	441.92(1169.71)	0/10000	443.28(1103.31)	441.25(1203.01)	0.017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7.89(23.41)	0/200	9.82(21.37)	6.94(24.33)	1.224

*p < .05, **p < .01, ***p < .001

(2) 수급현황

□ 수급여부

○ 조사대자의 74.2%(n=334)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가구의 수급 기간은 평균 3년(35.8개월)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수급여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수급급여는 생계급여 82.0%, 의료급여 72.2%, 주거급여 59.6% 순으로 나타남.

<표 4-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수급여부	비해당	116.0(25.8)	57.0(38.3)	59.0(19.6)	18.13(1)***
	해당	334.0(74.2)	92.0(61.7)	242.0(80.4)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274(82)	67(72.8)	207(85.5)	36.37(24)
	의료급여	241(72.2)	67(72.8)	174(71.9)	
	주거급여	199(59.6)	49(53.3)	150(62)	
	교육급여	89(26.7)	24(26.1)	65(26.9)	
	해산장제급여	3(0.9)	0(0)	3(1.2)	
	자활급여	9(2.7)	4(4.4)	5(2.1)	

*p < .05, **p < .01, ***p < .001

□ 수급기간

○ 조사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은 평균 약 3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표 4-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수급기간(월)	35.75(45.75)	0/289	30.83(39.96)	37.62(47.71)	-1.213

*p < .05, **p < .01, ***p < .001

(3)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약 99만원인 것으로 조사함.

○ 총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비는 약 28만원, 의류 및 신발비는 약 10만원, 보건의료

비는 약 7만원, 교육비는 약 13만원, 문화여가비는 약 7만원, 교통 및 차량유지비는 약 8만원, 통신비는 약 10만원, 기타 소비지출은 약 7만원, 세금 및 관리비는 약 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총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용도는 식료품비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전일자 근로자에 비해 총 생활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평균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66> 월 평균 생활비(만원):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총생활비	99.19(73.64)	0/680	110(77.49)	93.84(71.19)	2.201*
식료품비	27.58(21.11)	0/150	30.09(23.04)	26.35(20.01)	1.774
의류/신발비	9.82(10.82)	0/120	11.65(10.97)	8.92(10.66)	2.537*
보건의료비	6.53(12.84)	0/150	8.78(15.78)	5.41(10.97)	2.639**
교육비	12.71(32.28)	0/530	10.23(27.04)	13.93(34.55)	-1.146
문화여가비	6.74(8.97)	0/80	7.07(9.69)	6.57(8.61)	0.551
교통/차량유지비	8.16(11.22)	0/100	9.72(12.9)	7.39(10.23)	2.087*
통신비	9.85(9)	0/60	12.17(11.14)	8.69(7.49)	3.916***
기타소비지출	7.45(11.71)	0/150	9.23(15.79)	6.57(8.94)	2.284*
세금 및 관리비	10.36(13.25)	0/100	11.05(12.18)	10.01(13.76)	0.786

*p < .05, **p < .01, ***p < .001

⑷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주관적 소득수준 정도 및 경제적 여건 지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정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2.12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관적 소득 수준은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 경제적 여건 척도의 평균값은 2.53점으로 보통수준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함.

<표 4-67> 월 평균 생활비(만원):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주관적 소득 수준 정도	2.12(1.92)	0/9	2.52(1.94)	1.92(1.87)	3.175**
경제적 여건 (척도값 평균)	2.53(0.85)	1/5	2.58(0.8)	2.5(0.87)	0.92

*p < .05, **p < .01, ***p < .001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1) 저축 상황

□ 저축 현황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총 저축액은 약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총 저축액 가운데 사회보험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은행예금이나 계, 기타보험 등을 통한 저축액은 약 6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총 저축액과 사회보험, 은행예금이나 계・기타보험 등을 통한 저축액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저축액의 평균은 약 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저축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8> 월 평균 저축액(만원):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총저축액	25.03(52.74)	0/800	36.89(52.59)	19.17(51.91)	3.393***
사회보험	4.95(18.75)	0/200	9.09(25.98)	2.9(13.43)	3.336***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	4.5(16.15)	0/230	5.02(9.18)	4.24(18.67)	0.481
은행예금, 계, 기타보험 등	5.65(19.48)	0/230	9.37(25.79)	3.81(15.18)	2.863**
자산형성지원사업	9.96(19.21)	0/200	13.46(21.79)	8.23(17.58)	2.742**

*p < .05, **p < .01, ***p < .001

(2) 저축의 주요 목적

□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우가 26.4%(n=119)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구원 교육비 24.4%(n=110), 부채 상환 14.0%(n=63) 순으로 나타남. 한편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가구원 교육비, 주택마련으로 저축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69>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주요 목적	가구원 교육비	110.0(24.4)	34.0(22.8)	76.0(25.2)	26.03(9)**
	주택마련	119.0(26.4)	48.0(32.2)	71.0(23.6)	
	결혼, 상제비	31.0(6.9)	15.0(10.1)	16.0(5.3)	
	노후생활 대비	14.0(3.1)	2.0(1.3)	12.0(4.0)	
	사업자금 마련	18.0(4.0)	8.0(5.4)	10.0(3.3)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0.0(2.2)	1.0(0.7)	9.0(3.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26.0(5.8)	5.0(3.4)	21.0(7.0)	
	여행 및 여가생활	41.0(9.1)	5.0(3.4)	36.0(12.0)	
	부채 상환	63.0(14.0)	27.0(18.1)	36.0(12.0)	
	기타	18.0(4.0)	4.0(2.7)	14.0(4.7)	

*p < .05, **p < .01, ***p < .001

(3)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은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91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73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나는 저축을 한 만한 여유가 없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3.69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한편 전일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저축에 대한 여유가 없다는 생각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2.58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70> 저축에 대한 생각: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1(0.94)	1/5	3.83(0.98)	3.95(0.92)	-1.217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73(0.94)	1/5	3.69(0.95)	3.75(0.93)	-0.668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69(1.08)	1/5	3.52(1.09)	3.78(1.06)	-2.426*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58(1.18)	1/5	2.47(1.19)	2.63(1.17)	-1.342

*p < .05, **p < .01, ***p < .001

5) 주거 상황

(1)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 조사 대상의 주거유형 및 점유 형태

○ 조사대상자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21.8%%(n=)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단독주택 거주가 16.7%(n=75), 다가구주택 거주가 16.0%(n=72), 연립주택 거주가 15.6%(n=70) 일반 아파트 거주가 13.6%(n=61)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49.8%(n=2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 14.9%(n=67), 무상거주 13.8%(n=62) 순으로 높게 조사됨.

<표 4-71>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거주지 유형	일반 단독주택	75.0(16.7)	21.0(14.1)	54.0(17.9)	6.96(9)
	다가구주택	72.0(16.0)	22.0(14.8)	50.0(16.6)	
	다세대 주택	48.0(10.7)	16.0(10.7)	32.0(10.6)	
	연립주택	70.0(15.6)	25.0(16.8)	45.0(15.0)	
	일반 아파트	61.0(13.6)	17.0(11.4)	44.0(14.6)	
	임대아파트	98.0(21.8)	36.0(24.2)	62.0(20.6)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4.0(0.9)	1.0(0.7)	3.0(1.0)	
	준주택	16.0(3.6)	8.0(5.4)	8.0(2.7)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1.0(0.2)	0.0(0.0)	1.0(0.3)	
	기타	5.0(1.1)	3.0(2.0)	2.0(0.7)	
점유 형태	자가	25.0(5.6)	11.0(7.4)	14.0(4.7)	1.57(4)
	전세	67.0(14.9)	22.0(14.8)	45.0(15.0)	
	월세	224.0(49.8)	74.0(49.7)	150.0(49.8)	
	무상	62.0(13.8)	20.0(13.4)	42.0(14.0)	
	기타	72.0(16.0)	22.0(14.8)	50.0(16.6)	

*p < .05, **p < .01, ***p < .001

(2) 주거자산 금액

□ 점유형태별 주거자산 금액 실태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의 평균 주거자산액은 약 51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평균은 약 85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에 평균 월세보증금은 약 10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주거지출액은 약 2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72> 주거자산 금액(만원):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자가 총 금액	5129.32(5198.61)	0/18000	6973.64(6325.68)	3680.21(3738.11)	1.625
전세보증금 총 금액	8566.88(19984.05)	120/120000	5438.24(2554.87)	9930.64(23853.47)	-0.771
월세 보증금 총 금액	1099.39(1750.29)	0/8500	1373.27(2129.11)	964.28(1519.36)	1.651
월 평균 주거지출	27.93(14.26)	4/85	28.7(12.97)	27.53(14.9)	0.572

*p < .05, **p < .01, ***p < .001

6) 건강 상황

(1)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음주행태

□ 주관적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5.6점인 것으로 조사됨.

○ 문제음주 척도의 평균은 약 0.9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보다 문제음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3>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주관적 건강상태	5.57(2.72)	0/10	5.7(2.61)	5.51(2.78)	0.72
문제음주	0.92(1.13)	0/4	1.11(1.23)	0.82(1.06)	2.589**

*p < .05, **p < .01, ***p < .001

(2) 의료서비스 이용

□ 외래진료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53.1%(n=239)가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됨.

○ 외래진료를 받은 사유는 지병/질병이 77.2%(n=183)로 가장 높았음.

<표 4-74>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외래진료 여부	없음	211.0(46.9)	68.0(45.6)	143.0(47.5)	0.14(1)
	있음	239.0(53.1)	81.0(54.4)	158.0(52.5)	
외래진료 사유	지병/질병	183.0(77.2)	58.0(73.4)	125.0(79.1)	1.76(4)
	사고	8.0(3.4)	3.0(3.8)	5.0(3.2)	
	건강검진	17.0(7.2)	8.0(10.1)	9.0(5.7)	
	성형, 정형, 교정	14.0(5.9)	5.0(6.3)	9.0(5.7)	
	기타	15.0(6.3)	5.0(6.3)	10.0(6.3)	

*p < .05, **p < .01, ***p < .001

□ 입원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85.3%(n=)가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입원 사유는 지병/질병이 60.0%(n=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고가 29.2%(n=19)로 나타남.

<표 4-75>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입원 여부	없음	384.0(85.3)	121.0(81.2)	263.0(87.4)	3.03(1)
	있음	66.0(14.7)	28.0(18.8)	38.0(12.6)	
입원 사유	지병/질병	39.0(60.0)	14.0(50.0)	25.0(67.6)	5.48(3)
	사고	19.0(29.2)	12.0(42.9)	7.0(18.9)	
	성형, 정형, 교정	2.0(3.1)	0.0(0.0)	2.0(5.4)	
	기타	5.0(7.7)	2.0(7.1)	3.0(8.1)	

*p < .05, **p < .01, ***p < .001

□ 건강검진 수검률 및 만성질환

○ 지난 2년 동안 조사대상자의 건가검진 수검률은 22.9%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다양하였으며, 주로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관련 질환, 천식이나 비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 관련 질환들이 다수 확인됨.

<표 4-76>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건강검진 여부	없음	347.0(77.1)	118.0(79.2)	229.0(76.1)	0.55(1)
	있음	103.0(22.9)	31.0(20.8)	72.0(23.9)	
만성질환 보유여부	없음	389.0(86.4)	123.0(82.6)	266.0(88.4)	2.88(1)
	있음	61.0(13.6)	26.0(17.4)	35.0(11.6)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관계

(1) 사회 참여

□ 사회참여 여부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22.7%(n=102)이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58.9%(n=265)인 것으로 조사됨. 친목모임 참여 비율은 51.8%(n=233), 정치관련 모임의 참여비율은 1.6%(n=7),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 참여비율은 10.4%(n=47), 기타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0.9%(n=4)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18.4(n=83)에 해당됨.

<표 4-77>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종교활동	비참여	348.0(77.3)	113.0(75.8)	235.0(78.1)	0.28(1)
	참여	102.0(22.7)	36.0(24.2)	66.0(21.9)	
여가활동	비참여	185.0(41.1)	63.0(42.3)	122.0(40.5)	0.13(1)
	참여	265.0(58.9)	86.0(57.7)	179.0(59.5)	
친목모임	비참여	217.0(48.2)	71.0(47.7)	146.0(48.5)	0.03(1)
	참여	233.0(51.8)	78.0(52.3)	155.0(51.5)	
정치관련 모임	비참여	443.0(98.4)	148.0(99.3)	295.0(98.0)	1.14(1)
	참여	7.0(1.6)	1.0(0.7)	6.0(2.0)	
자원봉사 자선단체	비참여	403.0(89.6)	137.0(91.9)	266.0(88.4)	1.36(1)
	참여	47.0(10.4)	12.0(8.1)	35.0(11.6)	
기타시민단체	비참여	446.0(99.1)	149.0(100.0)	297.0(98.7)	2(1)
	참여	4.0(0.9)	0.0(0.0)	4.0(1.3)	
기부여부	기부 안 함	367.0(81.6)	122.0(81.9)	245.0(81.4)	0.02(1)
	기부 함	83.0(18.4)	27.0(18.1)	56.0(18.6)	

*p < .05, **p < .01, ***p < .001

□ 사회참여 빈도 및 기부액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한 일수는 평균 약 68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일수는 약 76일, 친목모임 참여 일수는 약 42일,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는 8일,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는 약 16일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기부액은 약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8>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종교활동 참여 일수	68.29(95.57)	1/365	77.22(104.87)	63.42(90.56)	0.695
여가활동 참여 일수	75.55(110.01)	1/365	86.83(125.29)	70.14(101.8)	1.157
친목모임 참여 일수	41.57(66.93)	1/365	50.54(86.75)	37.06(54.08)	1.454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	7.86(10.61)	1/30	1(-)	9(11.14)	-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	16.09(25)	1/150	8.5(13.61)	18.69(27.54)	-1.224
기부액(만원)	23.9(83.49)	1/700	16.96(25.3)	27.25(100.27)	-0.524

*p < .05, **p < .01, ***p < .001

(2)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 사회적지지

○ 사회적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41로 보통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9>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사회적지지 (척도값 평균)	3.41(0.82)	1/5	3.37(0.85)	3.43(0.81)	-0.78

*p < .05, **p < .01, ***p < .001

8) 진로에 대한 생각

(1) 1년 뒤 예상 진로

□ 순위별 1년 후의 예상 진로

○ 조사대상자의 1년 후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취업 및 이직이 64.0%(n=2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개인 사업 및 창업 9.3%(n=42), 상급학교 진학 7.8%(n=35)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 취업 및 이직을 위한 준비 등이 확인됨.

○ 순위별 예상 진로를 종합해보면, 취업 및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 상급학교 진학

의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80>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1순위	상급학교 진학	35.0(7.8)	14.0(9.4)	21.0(7.0)	8.48(6)
	유학	9.0(2.0)	3.0(2.0)	6.0(2.0)	
	편입학(학생인 경우)	18.0(4.0)	2.0(1.3)	16.0(5.3)	
	취업 및 이직	288.0(64.0)	95.0(63.8)	193.0(64.1)	
	개인 사업 및 창업	42.0(9.3)	19.0(12.8)	23.0(7.6)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19.0(4.2)	6.0(4.0)	13.0(4.3)	
	기타	39.0(8.7)	10.0(6.7)	29.0(9.6)	
2순위	상급학교 진학	36.0(12.2)	16.0(15.1)	20.0(10.6)	5.73(6)
	유학	37.0(12.6)	14.0(13.2)	23.0(12.2)	
	편입학(학생인 경우)	24.0(8.2)	4.0(3.8)	20.0(10.6)	
	취업 및 이직	66.0(22.4)	25.0(23.6)	41.0(21.8)	
	개인 사업 및 창업	99.0(33.7)	37.0(34.9)	62.0(33.0)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8.0(2.7)	2.0(1.9)	6.0(3.2)	
	기타	24.0(8.2)	8.0(7.5)	16.0(8.5)	
3순위	상급학교 진학	47.0(19.2)	18.0(20.9)	29.0(18.2)	1.19(6)
	유학	41.0(16.7)	13.0(15.1)	28.0(17.6)	
	편입학(학생인 경우)	24.0(9.8)	7.0(8.1)	17.0(10.7)	
	취업 및 이직	21.0(8.6)	8.0(9.3)	13.0(8.2)	
	개인 사업 및 창업	55.0(22.4)	19.0(22.1)	36.0(22.6)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7.0(2.9)	2.0(2.3)	5.0(3.1)	
	기타	50.0(20.4)	19.0(22.1)	31.0(19.5)	

*p < .05, **p < .01, ***p < .001

(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 및 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을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96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평균은 약 3.28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1>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진로정체감 (척도값 평균)	2.96(0.7)	1/5	3.02(0.72)	2.93(0.69)	1.255
진로준비행동 (척도값 평균)	3.28(0.8)	1/5	3.24(0.81)	3.3(0.79)	-0.8

*p < .05, **p < .01, ***p < .001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 근로의욕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2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활행동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6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장벽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82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 및 하위변인

○ 고용희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52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의 하위변인인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의 평균 점수는 약 3.48점,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약 3.57점, ‘목적지향’은 약 3.49점, ‘기술과 자원 사용’은 약 3.48점으로 나타남.

<표 4-82>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근로의욕(척도값 평균)		3.52(0.63)	1/5	3.51(0.66)	3.52(0.62)	-0.155
자활행동(척도값 평균)		3.56(0.58)	1/5	3.63(0.61)	3.53(0.56)	1.828
고용장벽(척도값 평균)		2.82(0.68)	1/5	2.77(0.68)	2.84(0.68)	-1.071
고용희망	전체	3.52(0.72)	1/5	3.56(0.71)	3.5(0.72)	0.913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48(0.75)	1/5	3.53(0.77)	3.46(0.75)	0.935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57(0.81)	1/5	3.62(0.8)	3.54(0.82)	0.951
	목적지향	3.49(0.83)	1/5	3.52(0.83)	3.48(0.83)	0.402
	기술과 자원 사용	3.48(0.82)	1/5	3.49(0.8)	3.47(0.82)	0.236

*p < .05, **p < .01, ***p < .001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 자아정체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04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33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효능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48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응력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29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3>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자아정체감(척도값 평균)	3.04(0.43)	1.5/4.5	3.04(0.44)	3.04(0.43)	-0.019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33(0.64)	1.2/5	3.36(0.65)	3.31(0.64)	0.68
자기효능감(척도값 평균)	3.48(0.78)	1/5	3.51(0.75)	3.46(0.79)	0.519
사회적응력(척도값 평균)	3.29(0.74)	1/5	3.28(0.69)	3.29(0.76)	-0.07

*p < .05, **p < .01, ***p < .001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우울 및 영역별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

○ 우울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2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2.91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가 약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약 3.34점, 나의 건강 상태가 약 3.11점으로 나타남. 반면에 나의 소득 수준은 약 2.1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직업 약 2.93점,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약 2.94점으로 낮게 나타남.

<표 4-84>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우울(척도값 평균)		2(0.63)	1/4	2.01(0.63)	1.99(0.63)	0.371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1(0.91)	1/5	2.94(0.91)	2.89(0.91)	0.539
만족 수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2.94(1.03)	1/5	2.91(1)	2.95(1.04)	-0.46
	나와 가족 간의 관계	3.34(1)	1/5	3.44(0.98)	3.29(1.01)	1.536
	나의 직업	2.93(1.04)	1/5	3.05(1.09)	2.87(1.01)	1.761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	3.39(0.92)	1/5	3.36(0.87)	3.4(0.94)	-0.395
	나의 건강상태	3.11(1.03)	1/5	3.13(1)	3.11(1.04)	0.206
	나의 소득 수준	2.18(0.93)	1/5	2.26(0.95)	2.14(0.92)	1.35

*p < .05, **p < .01, ***p < .001

12)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약 4.3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임.

○ 조사대상자의 시민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점수는 약 3.42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함.

○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3.18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소 심화되었다고 느낌.

<표 4-85>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4.39(2.22)	0/10	4.22(2.23)	4.48(2.22)	-1.154
시민성	3.42(0.65)	1/5	3.38(0.62)	3.44(0.67)	-0.985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3.18(2.27)	0/10	3.01(2.25)	3.26(2.27)	-1.097

*p < .05, **p < .01, ***p < .001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함.

○ 본 사업의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본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89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참여 및 참여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상담 및 재무교육 등과 같은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4점으로 조사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3.48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8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근로형태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근로형태		t - test
			전일제: m(sd)	비전일제: m(sd)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2.93(0.99)	1/5	2.95(0.95)	2.92(1)	0.365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2.89(0.87)	1/5	2.95(0.85)	2.86(0.88)	1.096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2.96(0.81)	1/5	2.93(0.79)	2.97(0.83)	-0.455
상담 및 재무교육 등 부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2.94(0.88)	1/5	2.99(0.85)	2.91(0.9)	0.82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48(0.9)	1/5	3.48(0.92)	3.48(0.89)	0.016

*p < .05, **p < .01, ***p < .00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의 사용 계획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시에 수령하게 되는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사용계획의 1순위(39.6%), 2순위(22.9%) 모두 주택마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다음으로 가구원의 교육비(1순위: 22.7%, 2순위: 14.2%)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에 1순위 사용 계획으로는 부채 상환(11.6%)의 비율이 높았으며, 2순위에는 결혼 및 상제비(12.7%),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1.8%) 가 높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사용계획의 3순위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14.9%)이 높게 나타남.

<표 4-8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1순위	가구원 교육비	102.0(22.7)	28.0(18.8)	74.0(24.6)	13.98(9)
	주택마련	178.0(39.6)	65.0(43.6)	113.0(37.5)	
	결혼, 상제비	30.0(6.7)	14.0(9.4)	16.0(5.3)	
	노후생활 대비	21.0(4.7)	6.0(4.0)	15.0(5.0)	
	사업자금 마련	25.0(5.6)	12.0(8.1)	13.0(4.3)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1.0(2.4)	5.0(3.4)	6.0(2.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11.0(2.4)	1.0(0.7)	10.0(3.3)	
	여행 및 여가생활	18.0(4.0)	4.0(2.7)	14.0(4.7)	
	부채 상환	52.0(11.6)	13.0(8.7)	39.0(13.0)	
	기타	2.0(0.4)	1.0(0.7)	1.0(0.3)	
2순위	가구원 교육비	64.0(14.2)	18.0(12.1)	46.0(15.3)	8.77(9)
	주택마련	103.0(22.9)	34.0(22.8)	69.0(22.9)	
	결혼, 상제비	57.0(12.7)	18.0(12.1)	39.0(13.0)	
	노후생활 대비	40.0(8.9)	14.0(9.4)	26.0(8.6)	
	사업자금 마련	27.0(6.0)	6.0(4.0)	21.0(7.0)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32.0(7.1)	16.0(10.7)	16.0(5.3)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53.0(11.8)	14.0(9.4)	39.0(13.0)	
	여행 및 여가생활	43.0(9.6)	17.0(11.4)	26.0(8.6)	
	부채 상환	28.0(6.2)	11.0(7.4)	17.0(5.6)	
	기타	3.0(0.7)	1.0(0.7)	2.0(0.7)	
3순위	가구원 교육비	52.0(11.6)	15.0(10.1)	37.0(12.3)	8.77(9)
	주택마련	43.0(9.6)	15.0(10.1)	28.0(9.3)	
	결혼, 상제비	46.0(10.2)	18.0(12.1)	28.0(9.3)	
	노후생활 대비	50.0(11.1)	17.0(11.4)	33.0(11.0)	
	사업자금 마련	24.0(5.3)	7.0(4.7)	17.0(5.6)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46.0(10.2)	13.0(8.7)	33.0(11.0)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65.0(14.4)	18.0(12.1)	47.0(15.6)	
	여행 및 여가생활	67.0(14.9)	23.0(15.4)	44.0(14.6)	
	부채 상환	48.0(10.7)	22.0(14.8)	26.0(8.6)	
	기타	9.0(2.0)	1.0(0.7)	8.0(2.7)	

*p < .05, **p < .01, ***p < .00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 욕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후원금/물품 지원이 21.1%(n=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개선 15.6%(n=70), 문화여가 12.9%(n=58), 자격증취득교육 10.4%(n=47)로 높게 나타남.

<표 4-88>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근로형태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근로형태		χ^2 (df)
			전일제: n(%)	비전일제: n(%)	
부가 서비스 욕구	가족상담/가족교육	34.0(7.6)	11.0(7.4)	23.0(7.6)	7.02(12)
	문화여가	58.0(12.9)	17.0(11.4)	41.0(13.6)	
	후원금/물품	95.0(21.1)	28.0(18.8)	67.0(22.3)	
	심리상담	34.0(7.6)	10.0(6.7)	24.0(8.0)	
	양육교육	12.0(2.7)	3.0(2.0)	9.0(3.0)	
	의료지원	34.0(7.6)	12.0(8.1)	22.0(7.3)	
	직업교육/훈련	26.0(5.8)	10.0(6.7)	16.0(5.3)	
	자격증취득교육	47.0(10.4)	14.0(9.4)	33.0(11.0)	
	주거개선	70.0(15.6)	26.0(17.4)	44.0(14.6)	
	창업교육	16.0(3.6)	7.0(4.7)	9.0(3.0)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2.0(2.7)	4.0(2.7)	8.0(2.7)	
	금융교육	10.0(2.2)	6.0(4.0)	4.0(1.3)	
	기타	2.0(0.4)	1.0(0.7)	1.0(0.3)	

*p < .05, **p < .01, ***p < .001

4. 연령구분에 따른 집단 비교

1) 일반적 특성

□ 일반적 현황 및 가구 현황

○ 조사대상자의 39.3%(n=167)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0.7%(n=258)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원수가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0.6%),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26.1%(n=110), 4인 가구 17.2%(n=73), 1인 가구 15.1%(n=64) 순으로 나타남.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구주인 경우는 43.5%(n=205)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83.1%(n=353)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미혼인 경우가 83.1%(n=353)로 가장 많았음.

○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5.3%(n=2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30.8%(n=131)로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93.6%(n=398)가 비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6.6%(n=283)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가구는 응답자와 그의 한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29.2%), 응답자와 그의 두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25.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비율도 16.7%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음.

<표 4-8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성별	남	167.0(39.3)	106.0(35.9)	61.0(46.9)	4.57(1)*
	여	258.0(60.7)	189.0(64.1)	69.0(53.1)	
가구원수 (본인포함)	1명	64.0(15.1)	49.0(16.6)	15.0(11.5)	8.71(8)
	2명	111.0(26.1)	81.0(27.5)	30.0(23.1)	
	3명	130.0(30.6)	91.0(30.8)	39.0(30.0)	
	4명	73.0(17.2)	47.0(15.9)	26.0(20.0)	
	5명	31.0(7.3)	18.0(6.1)	13.0(10.0)	
	6명	9.0(2.1)	4.0(1.4)	5.0(3.8)	
	7명	5.0(1.2)	3.0(1.0)	2.0(1.5)	
	8명	0.0(0.0)	0.0(0.0)	0.0(0.0)	
	9명	1.0(0.2)	1.0(0.3)	0.0(0.0)	
	10명 이상	1.0(0.2)	1.0(0.3)	0.0(0.0)	
가구주 여부	예	185.0(43.5)	103.0(34.9)	82.0(63.1)	29.11(1)***
	아니오	240.0(56.5)	192.0(65.1)	48.0(36.9)	
자녀수	없음	353.0(83.1)	281.0(95.3)	72.0(55.4)	106.87(5)***
	1명	26.0(6.1)	9.0(3.1)	17.0(13.1)	
	2명	28.0(6.6)	4.0(1.4)	24.0(18.5)	
	3명	12.0(2.8)	1.0(0.3)	11.0(8.5)	
	4명	5.0(1.2)	0.0(0.0)	5.0(3.8)	
	5명	1.0(0.2)	0.0(0.0)	1.0(0.8)	
	6명	0.0(0.0)	0.0(0.0)	0.0(0.0)	
혼인 상태	미혼	353.0(83.1)	279.0(94.6)	74.0(56.9)	93.64(5)***
	기혼이며 동거	32.0(7.5)	9.0(3.1)	23.0(17.7)	
	별거	4.0(0.9)	1.0(0.3)	3.0(2.3)	
	사별	2.0(0.5)	0.0(0.0)	2.0(1.5)	
	이혼	29.0(6.8)	4.0(1.4)	25.0(19.2)	
	사실혼관계	5.0(1.2)	2.0(0.7)	3.0(2.3)	
학력 (졸업)	초등학교	7.0(1.6)	3.0(1.0)	4.0(3.1)	10.21(4)*
	중학교	41.0(9.6)	30.0(10.2)	11.0(8.5)	
	고등학교	235.0(55.3)	174.0(59.0)	61.0(46.9)	
	대학교	131.0(30.8)	83.0(28.1)	48.0(36.9)	
	대학원 이상	11.0(2.6)	5.0(1.7)	6.0(4.6)	
장애 여부	비해당(비장애인)	398.0(93.6)	278.0(94.2)	120.0(92.3)	1.96(2)
	경증(4~6급)	3.0(0.7)	1.0(0.3)	2.0(1.5)	
	중증(1~3급)	24.0(5.6)	16.0(5.4)	8.0(6.2)	
종교 유무	있음	142.0(33.4)	95.0(32.2)	47.0(36.2)	0.63(1)
	없음	283.0(66.6)	200.0(67.8)	83.0(63.8)	
	1인 가구	71.0(16.7)	51.0(17.3)	20.0(15.4)	
	부부 (응답자+배우자)	4.0(0.9)	3.0(1.0)	1.0(0.8)	
	부부 (응답자+배우자)+미혼자녀	25.0(5.9)	7.0(2.4)	18.0(13.8)	
	부모+자녀 (응답자)	110.0(25.9)	77.0(26.1)	33.0(25.4)	

2) 근로(고용) 상황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 조사대상자의 26.4%(n=112)가 상용직 근로자이며,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25.2%(n=107), 20.5%(n=87)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25-34세인 응답자가 15-24세인 응답자보다 일용직 근로 비율이 높고, 상용 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36.9%(n=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23.8%(n=1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9.2%(n=39)순으로 나타남. 연령이 15-24세의 경우가 25-34세 보다 서비스 종사 비율이 높게 조사됨.

○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33.2%(n=1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종사자는 66.8%(n=284)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15-24세가 25-34세보다 시간제 근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가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67.5%(n=287),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위험성을 가진 경우는 32.5%(n=138)인 것으로 조사됨. 근로지속 가능성이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90> 조사대상의 근로 현황: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12.0(26.4)	83.0(28.1)	29.0(22.3)	19.09(7)**
	임시직 근로자	107.0(25.2)	76.0(25.8)	31.0(23.8)	
	일용직 근로자	87.0(20.5)	47.0(15.9)	40.0(30.8)	
	자활근로/ 공공근로	9.0(2.1)	5.0(1.7)	4.0(3.1)	
	고용주/ 자영업자	8.0(1.9)	5.0(1.7)	3.0(2.3)	
	무급가족종사자	1.0(0.2)	1.0(0.3)	0.0(0.0)	
	실업자	23.0(5.4)	14.0(4.7)	9.0(6.9)	
	비경제활동인구	78.0(18.4)	64.0(21.7)	14.0(10.8)	
직종분류	관리자	7.0(1.6)	5.0(1.7)	2.0(1.5)	21.91(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9.0(9.2)	28.0(9.5)	11.0(8.5)	
	사무 종사자	38.0(8.9)	21.0(7.1)	17.0(13.1)	
	서비스 종사자	157.0(36.9)	114.0(38.6)	43.0(33.1)	
	판매 종사자	27.0(6.4)	16.0(5.4)	11.0(8.5)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2.0(0.5)	2.0(0.7)	0.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0.7)	3.0(1.0)	0.0(0.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2.8)	10.0(3.4)	2.0(1.5)	
	단순노무종사자	39.0(9.2)	18.0(6.1)	21.0(16.2)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01.0(23.8)	78.0(26.4)	23.0(17.7)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41.0(33.2)	89.0(30.2)	52.0(40.0)	3.93(1)*
	시간제	284.0(66.8)	206.0(69.8)	78.0(60.0)	
근로지속 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287.0(67.5)	215.0(72.9)	72.0(55.4)	12.6(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138.0(32.5)	80.0(27.1)	58.0(44.6)	

*p < .05, **p < .01, ***p < .001

3)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1) 소득・자산・부채

□ 소득 현황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총소득은 약 1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월 평균 총 소득액은 15세-24세가 25-34세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약 7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소득은 평균 약 17만원으로 조사됨.

○ 공적 이전소득의 월 평균 총소득은 약 20만원이며, 사적 이전소득은 약 5만원으로 나타남. 한편 공적 이전소득 수준은 15-24세의 조사대상자가 25-34세의 대상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4-91>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만원):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총소득	120.11(77.94)	0/640	116.7(78.64)	135.18(76.53)	-2.251*
근로소득	77.84(63.03)	0/250	77.17(64.77)	84.24(61.3)	-1.05
사업소득	16.99(33.88)	0/175	18.27(34.78)	16.6(33.79)	0.459
공적 이전소득	20.41(30.55)	0/190	16.59(28.98)	29.1(32.7)	-3.937***
사적 이전소득	5.09(21.37)	0/260	4.72(22.42)	5.89(19.08)	-0.518

*p < .05, **p < .01, ***p < .001

□ 자산・부채 현황

○ 조사대상자의 총 자산은 평균 46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금융자산이 약 43만원, 기타 자산은 약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개인 부채는 평균 44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은 약 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개인 부채는 15-24세인 경우가 25-34세인 경우보다 개인 부채와 이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2> 자산 및 부채 현황(만원):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총자산	45.8(225.05)	0/3000	47.55(233.86)	46.93(225.45)	0.025
금융자산	42.7(224.11)	0/3000	45.74(233.07)	42.42(225.01)	0.137
기타자산	3.1(21.26)	0/275	1.8(14.15)	4.52(23.16)	-1.481
개인 부채	441.92(1169.71)	0/10000	189.4(493.94)	885.12(1632.63)	-6.668***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7.89(23.41)	0/200	3.77(17.26)	14.79(31.14)	-4.653***

*p < .05, **p < .01, ***p < .001

(2) 수급현황

□ 수급여부

○ 조사대자의 73.4%(n=312)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가구의 수급 기간은 평균 3년(35.8개월)인 것으로 조사됨.

○ 수급급여는 생계급여 82.7%, 의료급여 71.2%, 주거급여 59.0% 순으로 나타남.

<표 4-9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수급여부	비해당	113.0(26.6)	82.0(27.8)	31.0(23.8)	0.72(1)
	해당	312.0(73.4)	213.0(72.2)	99.0(76.2)	
수급 급여 종류 (중복응답)	생계급여	258(82.7)	175(82.2)	83(83.8)	30.03(21)
	의료급여	222(71.2)	148(69.5)	74(74.8)	
	주거급여	184(59)	110(51.6)	74(74.8)	
	교육급여	80(25.6)	48(22.5)	32(32.3)	
	해산장제급여	3(1)	2(0.9)	1(1)	
	자활급여	6(1.9)	4(1.9)	2(2)	

*p < .05, **p < .01, ***p < .001

□ 수급기간

○ 조사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은 평균 약 3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표 4-9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총기간: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수급기간(월)	35.75(45.75)	0/289	33.62(43.79)	40.21(51.64)	-1.168

*p < .05, **p < .01, ***p < .001

(3) 소비현황

□ 생활비 지출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약 99만원인 것으로 조사함.

○ 총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비는 약 28만원, 의류 및 신발비는 약 10만원, 보건의료비는 약 7만원, 교육비는 약 13만원, 문화여가비는 약 7만원, 교통 및 차량유지비는 약 8만원, 통신비는 약 10만원, 기타 소비지출은 약 7만원, 세금 및 관리비는 약 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총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용도는 식료품비인 것으로 확인됨. 한편 15-24세의 경우 25-34세에 비해 총 생활비, 식료품비, 교통/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세금 및 관리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95> 월 평균 생활비(만원):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총생활비	99.19(73.64)	0/680	89.58(73.25)	115.79(71.98)	-3.417***
식료품비	27.58(21.11)	0/150	25.09(19.3)	32.24(24.32)	-3.239**
의류/신발비	9.82(10.82)	0/120	9.43(10.76)	11.17(11.4)	-1.508
보건의료비	6.53(12.84)	0/150	5.64(14)	7.54(9.14)	-1.416
교육비	12.71(32.28)	0/530	11.81(37.87)	13.43(15.61)	-0.47
문화여가비	6.74(8.97)	0/80	7.04(9.39)	6.21(7.51)	0.889
교통/차량유지비	8.16(11.22)	0/100	7.13(9.05)	9.75(14.75)	-2.24*
통신비	9.85(9)	0/60	9.05(8.29)	11.65(10.37)	-2.761**
기타소비지출	7.45(11.71)	0/150	6.1(8.74)	10.3(16.7)	-3.395***
세금 및 관리비	10.36(13.25)	0/100	8.3(13.04)	13.51(12.15)	-3.875***

*p < .05, **p < .01, ***p < .001

(4)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주관적 소득수준 정도 및 경제적 여건 지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소득 수준정도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2.12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관적 소득 수준은 15-24세 응답자가 25-34세 응답자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 경제적 여건 척도의 평균값은 2.53점으로 보통수준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하였으며, 15-24세의 응답자가 25-34세의 응답자에 보다 경제적 여건의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96> 월 평균 생활비(만원):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주관적 소득 수준 정도	2.12(1.92)	0/9	2.32(1.89)	1.82(1.94)	2.485*
경제적 여건 (척도값 평균)	2.53(0.85)	1/5	2.64(0.8)	2.36(0.9)	3.191**

*p < .05, **p < .01, ***p < .001

4)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

(1) 저축 상황

□ 저축 현황

○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총 저축액은 약 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총 저축액 가운데 사회보험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액은 약 5만원, 은행예금이나 계, 기타보험 등을 통한 저축액은 6약 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저축액의 평균은 약 10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97> 월 평균 저축액(만원):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총저축액	25.03(52.74)	0/800	27.09(61.33)	21.8(31.36)	0.931
사회보험	4.95(18.75)	0/200	5.15(19.68)	4.85(18.25)	0.148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	4.5(16.15)	0/230	3.95(18.51)	5.54(10.41)	-0.921
은행예금, 계, 기타보험 등	5.65(19.48)	0/230	6.74(22.83)	3.72(10.09)	1.438
자산형성지원사업	9.96(19.21)	0/200	11.25(21.31)	7.74(13.61)	1.728

*p < .05, **p < .01, ***p < .001

(2) 저축의 주요 목적

□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우가 26.6%(n=113)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구원 교육비 23.8%(n=101), 부채 상환 13.6%(n=58) 순으로 나타남. 한편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주택마련으로 저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8> 2017년 저축의 주요 목적: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주요 목적	가구원 교육비	101.0(23.8)	68.0(23.1)	33.0(25.4)	18.43(9)*
	주택마련	113.0(26.6)	79.0(26.8)	34.0(26.2)	
	결혼, 상제비	31.0(7.3)	23.0(7.8)	8.0(6.2)	
	노후생활 대비	13.0(3.1)	11.0(3.7)	2.0(1.5)	
	사업자금 마련	18.0(4.2)	12.0(4.1)	6.0(4.6)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0.0(2.4)	9.0(3.1)	1.0(0.8)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22.0(5.2)	14.0(4.7)	8.0(6.2)	
	여행 및 여가생활	41.0(9.6)	35.0(11.9)	6.0(4.6)	
	부채 상환	58.0(13.6)	30.0(10.2)	28.0(21.5)	
	기타	18.0(4.2)	14.0(4.7)	4.0(3.1)	

*p < .05, **p < .01, ***p < .001

(3)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

○ 저축에 대한 생각은 각 문항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91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문항의 평균값은 3.73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나는 저축을 한 만한 여유가 없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3.69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는 문항의 평균값은 2.58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15-24세의 응답자들이 25-34세 보다 저축이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생각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노력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저축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인식에서는 25-34세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99> 저축에 대한 생각: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1(0.94)	1/5	3.98(0.89)	3.75(0.98)	2.363*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3.73(0.94)	1/5	3.82(0.92)	3.55(0.95)	2.809**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3.69(1.08)	1/5	3.53(1.04)	3.93(1.14)	-3.547***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2.58(1.18)	1/5	2.6(1.11)	2.58(1.26)	0.126

*p < .05, **p < .01, ***p < .001

5) 주거 상황

(1) 주거지 유형 및 점유형태

□ 조사 대상의 주거유형 및 점유 형태

○ 조사대상자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21.9%(n=93)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단독주택 거주와 다가구주택 거주가 16.5%(n=70), 연립주택 거주가 15.8%(n=67), 일반 아파트 거주가 13.4%(n=57)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는 월세가 48.9%(n=2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 15.5%(n=66), 무상거주가 13.9%(n=59) 순으로 높게 조사됨.

<표 4-100> 거주지 유형 및 점유 형태: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거주지 유형	일반 단독주택	70.0(16.5)	50.0(16.9)	20.0(15.4)	9.77(9)
	다가구주택	70.0(16.5)	50.0(16.9)	20.0(15.4)	
	다세대 주택	42.0(9.9)	34.0(11.5)	8.0(6.2)	
	연립주택	67.0(15.8)	46.0(15.6)	21.0(16.2)	
	일반 아파트	57.0(13.4)	38.0(12.9)	19.0(14.6)	
	임대아파트	93.0(21.9)	58.0(19.7)	35.0(26.9)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4.0(0.9)	4.0(1.4)	0.0(0.0)	
	준주택	16.0(3.8)	12.0(4.1)	4.0(3.1)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1.0(0.2)	1.0(0.3)	0.0(0.0)	
	기타	5.0(1.2)	2.0(0.7)	3.0(2.3)	
점유 형태	자가	21.0(4.9)	16.0(5.4)	5.0(3.8)	5.04(4)
	전세	66.0(15.5)	46.0(15.6)	20.0(15.4)	
	월세	208.0(48.9)	136.0(46.1)	72.0(55.4)	
	무상	59.0(13.9)	41.0(13.9)	18.0(13.8)	
	기타	71.0(16.7)	56.0(19.0)	15.0(11.5)	

*p < .05, **p < .01, ***p < .001

(2) 주거자산 금액

□ 점유형태별 주거자산 금액 실태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의 평균 주거자산액은 약 51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평균은 약 85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 거주지의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에 평균 월세보증금은 약 10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주거지출액은 약 28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101> 주거자산 금액(만원):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자가 총 금액	5129.32(5198.61)	0/18000	3720.81(4209.19)	8540(6678.92)	-1.945
전세보증금 총 금액	8566.88(19984.05)	120/120000	10262.03(24444.85)	5280.56(2866.29)	0.858
월세 보증금 총 금액	1099.39(1750.29)	0/8500	968.09(1671.85)	1315.61(1862.77)	-1.37
월 평균 주거지출	27.93(14.26)	4/85	28.01(12.76)	28.34(16.98)	-0.156

*p < .05, **p < .01, ***p < .001

6) 건강 상황

(1)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음주행태

□ 주관적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5.57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5-24세가 25-34세보다 자산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음주 척도의 평균은 약 0.9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15-24세의 조사대상자가 25-34세 보다 문제음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02>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및 문제음주 수준: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주관적 건강상태	5.57(2.72)	0/10	6.01(2.66)	4.99(2.52)	3.695***
문제음주	0.92(1.13)	0/4	0.84(1.1)	1.12(1.17)	-2.348*

*p < .05, **p < .01, ***p < .001

(2) 의료서비스 이용

□ 외래진료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52.2%(n=222)가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됨.

○ 외래진료를 받은 사유는 지병/질병이 77.3%(n=170)로 가장 높았음.

<표 4-103>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외래진료 여부	없음	203.0(47.8)	145.0(49.2)	58.0(44.6)	0.74(1)
	있음	222.0(52.2)	150.0(50.8)	72.0(55.4)	
외래진료 사유	지병/질병	170.0(77.3)	110.0(74.3)	60.0(83.3)	5.23(4)
	사고	8.0(3.6)	4.0(2.7)	4.0(5.6)	
	건강검진	16.0(7.3)	13.0(8.8)	3.0(4.2)	
	성형, 정형, 교정	12.0(5.5)	10.0(6.8)	2.0(2.8)	
	기타	14.0(6.4)	11.0(7.4)	3.0(4.2)	

*p < .05, **p < .01, ***p < .001

□ 입원 여부 및 사유

○ 조사대상자의 약 85.6%(n=364)가 지난 1년 동안 입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입원 사유는 지병/질병이 58.3%(n=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고가 18.0%(n=30)로 나타남. 한편 지병/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25-34세에 비해 15-24세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04>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입원 여부	없음	364.0(85.6)	256.0(86.8)	108.0(83.1)	1.01(1)
	있음	61.0(14.4)	39.0(13.2)	22.0(16.9)	
입원 사유	지병/질병	35.0(58.3)	28.0(71.8)	7.0(33.3)	17.31(3)**
	사고	18.0(30.0)	5.0(12.8)	13.0(61.9)	
	성형, 정형, 교정	2.0(3.3)	1.0(2.6)	1.0(4.8)	
	기타	5.0(8.3)	5.0(12.8)	0.0(0.0)	

*p < .05, **p < .01, ***p < .001

□ 건강검진 수검률 및 만성질환

○ 지난 2년 동안 조사대상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2.1%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다양하였으며, 주로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관련 질환, 천식이나 비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 관련 질환들이 다수 확인됨.

<표 4-105>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여부: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건강검진 여부	없음	331.0(77.9)	234.0(79.3)	97.0(74.6)	1.16(1)
	있음	94.0(22.1)	61.0(20.7)	33.0(25.4)	
만성질환 보유여부	없음	372.0(87.5)	264.0(89.5)	108.0(83.1)	3.4(1)
	있음	53.0(12.5)	31.0(10.5)	22.0(16.9)	

*p < .05, **p < .01, ***p < .001

7) 사회적 관계

(1) 사회 참여

□ 사회참여 여부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22.4%(n=95)이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60.7%(n=258)인 것으로 조사됨. 친목모임 참여 비율은 52.2%(n=222), 정치관련 모임의 참여비율은 1.6%(n=7), 자원봉사 및 자선단체 참여비율은 10.4%(n=44), 기타시민단체 참여 비율은 0.7%(n=3)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1년 동안 기부에 참여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18.1%(n=77)에 해당됨.

<표 4-106>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여부: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종교활동	비참여	330.0(77.6)	231.0(78.3)	99.0(76.2)	0.24(1)
	참여	95.0(22.4)	64.0(21.7)	31.0(23.8)	
여가활동	비참여	167.0(39.3)	107.0(36.3)	60.0(46.2)	3.69(1)
	참여	258.0(60.7)	188.0(63.7)	70.0(53.8)	
친목모임	비참여	203.0(47.8)	133.0(45.1)	70.0(53.8)	2.78(1)
	참여	222.0(52.2)	162.0(54.9)	60.0(46.2)	
정치관련 모임	비참여	418.0(98.4)	292.0(99.0)	126.0(96.9)	2.36(1)
	참여	7.0(1.6)	3.0(1.0)	4.0(3.1)	
자원봉사 자선단체	비참여	381.0(89.6)	263.0(89.2)	118.0(90.8)	0.25(1)
	참여	44.0(10.4)	32.0(10.8)	12.0(9.2)	
기타시민단체	비참여	422.0(99.3)	293.0(99.3)	129.0(99.2)	0.01(1)
	참여	3.0(0.7)	2.0(0.7)	1.0(0.8)	
기부여부	기부 안 함	348.0(81.9)	243.0(82.4)	105.0(80.8)	0.16(1)
	기부 함	77.0(18.1)	52.0(17.6)	25.0(19.2)	

*p < .05, **p < .01, ***p < .001

□ 사회참여 빈도 및 기부액

○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한 일수는 평균 약 68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활동 참여 일수는 약 76일, 친목모임 참여 일수는 약 42일,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는 8일, 자선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는 약 일16인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의 지난 1년 동안 평균 기부액은 약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07> 지난 1년 동안 사회참여 기간 및 기부액: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종교활동 참여 일수	68.29(95.57)	1/365	66.33(97.21)	60.84(86.95)	0.267
여가활동 참여 일수	75.55(110.01)	1/365	81.4(112.77)	60.51(102.33)	1.356
친목모임 참여 일수	41.57(66.93)	1/365	46.77(70.93)	33.67(59.48)	1.274
정치관련 모임 참여 일수	7.86(10.61)	1/30	13.67(14.84)	3.5(4.36)	1.334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참여 일수	16.09(25)	1/150	14.97(16.77)	19.17(42.16)	-0.478
기부액(만원)	23.9(83.49)	1/700	32.61(104.78)	9.22(6.04)	1.111

*p < .05, **p < .01, ***p < .001

(2)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 사회적지지

○ 사회적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전체 문항의 평균값은 3.41로 보통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08> 사회적지지에 대한 인지 수준: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사회적지지 (척도값 평균)	3.41(0.82)	1/5	3.49(0.76)	3.3(0.95)	2.12*

*p < .05, **p < .01, ***p < .001

8) 진로에 대한 생각

(1) 1년 뒤 예상 진로

□ 순위별 1년 후의 예상 진로

○ 조사대상자의 1년 후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취업 및 이직이 64.7%(n=2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개인 사업 및 창업 9.2%(n=39), 상급학교 진학 7.3%(n=31)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 취업 및 이직을 위한 준비 등이 확인됨.

○ 조사대상자의 1년 후 예상 진로 1순위 가운데 취업 및 이직이 고졸이하 조사대상

자가 대졸이상 참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순위별 예상 진로를 종합해보면, 취업 및 이직, 개인 사업 및 창업, 상급학교 진학의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4-109> 1년 뒤 예상 진로(순위별):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1순위	상급학교 진학	31.0(7.3)	22.0(7.5)	9.0(6.9)	15.14(6)*
	유학	9.0(2.1)	6.0(2.0)	3.0(2.3)	
	편입학(학생인 경우)	18.0(4.2)	18.0(6.1)	0.0(0.0)	
	취업 및 이직	275.0(64.7)	193.0(65.4)	82.0(63.1)	
	개인 사업 및 창업	39.0(9.2)	21.0(7.1)	18.0(13.8)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19.0(4.5)	15.0(5.1)	4.0(3.1)	
	기타	34.0(8.0)	20.0(6.8)	14.0(10.8)	
2순위	상급학교 진학	36.0(12.8)	27.0(14.1)	9.0(10.0)	12.19(6)
	유학	36.0(12.8)	27.0(14.1)	9.0(10.0)	
	편입학(학생인 경우)	22.0(7.8)	17.0(8.9)	5.0(5.6)	
	취업 및 이직	61.0(21.7)	42.0(22.0)	19.0(21.1)	
	개인 사업 및 창업	94.0(33.5)	53.0(27.7)	41.0(45.6)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8.0(2.8)	8.0(4.2)	0.0(0.0)	
	기타	24.0(8.5)	17.0(8.9)	7.0(7.8)	
3순위	상급학교 진학	45.0(19.1)	33.0(20.1)	12.0(16.7)	5.05(6)
	유학	40.0(16.9)	26.0(15.9)	14.0(19.4)	
	편입학(학생인 경우)	23.0(9.7)	16.0(9.8)	7.0(9.7)	
	취업 및 이직	19.0(8.1)	12.0(7.3)	7.0(9.7)	
	개인 사업 및 창업	53.0(22.5)	41.0(25.0)	12.0(16.7)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7.0(3.0)	6.0(3.7)	1.0(1.4)	
	기타	49.0(20.8)	30.0(18.3)	19.0(26.4)	

*p < .05, **p < .01, ***p < .001

(2)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 진로정체감을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96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평균은 약 3.28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24세 집단이 25-34세 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4-110>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진로정체감 (척도값 평균)	2.96(0.7)	1/5	2.95(0.69)	3.02(0.71)	-0.976
진로준비행동 (척도값 평균)	3.28(0.8)	1/5	3.37(0.74)	3.1(0.9)	3.213**

*p < .05, **p < .01, ***p < .001

9)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

□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 근로의욕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2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활행동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3.56점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장벽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값의 평균은 약 2.82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 및 하위변인

○ 고용희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52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희망의 하위변인인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의 평균 점수는 약 3.48점,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약 3.57점, ‘목적지향’은 약 3.49점, ‘기술과 자원 사용’은 약 3.48점으로 나타남. 한편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적지향적인 고용희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표 4-111>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고용희망: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근로의욕(척도값 평균)		3.52(0.63)	1/5	3.56(0.6)	3.46(0.71)	1.451
자활행동(척도값 평균)		3.56(0.58)	1/5	3.58(0.55)	3.5(0.64)	1.369
고용장벽(척도값 평균)		2.82(0.68)	1/5	2.79(0.66)	2.84(0.74)	-0.68
고용희망	전체	3.52(0.72)	1/5	3.58(0.68)	3.41(0.78)	2.265*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3.48(0.75)	1/5	3.51(0.73)	3.43(0.81)	1.004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동기부여	3.57(0.81)	1/5	3.65(0.78)	3.42(0.87)	2.627**
	목적지향	3.49(0.83)	1/5	3.6(0.77)	3.33(0.92)	3.153**
	기술과 자원 사용	3.48(0.82)	1/5	3.53(0.77)	3.37(0.91)	1.81

*p < .05, **p < .01, ***p < .001

10) 자아정체성 및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 자아정체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 전체의 평균값은 약 3.04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33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기효능감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48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응력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3.29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12>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자아정체감(척도값 평균)	3.04(0.43)	1.5/4.5	3.03(0.44)	3.05(0.43)	-0.449
자아존중감(척도값 평균)	3.33(0.64)	1.2/5	3.38(0.62)	3.23(0.69)	2.18*
자기효능감(척도값 평균)	3.48(0.78)	1/5	3.55(0.77)	3.36(0.77)	2.286*
사회적응력(척도값 평균)	3.29(0.74)	1/5	3.32(0.7)	3.2(0.82)	1.531

*p < .05, **p < .01, ***p < .001

11)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우울 및 영역별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

○ 우울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약 2점으로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값은 2.91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5-24세가 25-34세에 비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가 약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와 가족 간의 관계가 3.34점, 나의 건강상태가 3.11점으로 나타남. 반면에 나의 소득수준은 2.1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직업 2.93점,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2.94점으로 낮게 나타남. 한편, 15-24세가 25-34세 보다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제외한 만족수준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13>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우울(척도값 평균)		2(0.63)	1/4	1.93(0.59)	2.11(0.69)	-2.722**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91(0.91)	1/5	3.05(0.86)	2.71(0.93)	3.707***
만족 수준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2.94(1.03)	1/5	3.09(1)	2.65(1.02)	4.096***
	나와 가족 간의 관계	3.34(1)	1/5	3.32(1)	3.39(1.03)	-0.724
	나의 직업	2.93(1.04)	1/5	3.09(1.02)	2.66(1.04)	4.016***
	타인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	3.39(0.92)	1/5	3.47(0.92)	3.22(0.93)	2.663**
	나의 건강상태	3.11(1.03)	1/5	3.23(1.04)	2.97(0.91)	2.448*
	나의 소득 수준	2.18(0.93)	1/5	2.27(0.95)	2.03(0.88)	2.494*

*p < .05, **p < .01, ***p < .001

12)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점수는 약 4.3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임.

○ 조사대상자의 시민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척도의 평균점수는 약 3.42점

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함.

○ 사회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3.18점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소 심화되었다고 느낌.

<표 4-114>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및 시민성,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4.39(2.22)	0/10	4.42(2.21)	4.23(2.35)	0.784
시민성	3.42(0.65)	1/5	3.44(0.61)	3.38(0.75)	0.946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 인식	3.18(2.27)	0/10	3.2(2.14)	3.14(2.5)	0.245

*p < .05, **p < .01, ***p < .001

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생각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함.

○ 본 사업의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3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15-24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89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참여 및 참여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상담 및 재무교육 등과 같은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약 2.94점으로 조사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3.48점으로 보통 수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1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만족도: 연령 구분

문항	전체: m(sd)	min/max	연령구분		t - test
			15-24세: m(sd)	25-34세: m(sd)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2.93(0.99)	1/5	3.03(0.94)	2.76(1.06)	2.577*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2.89(0.87)	1/5	2.93(0.86)	2.83(0.87)	1.113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2.96(0.81)	1/5	2.98(0.82)	2.96(0.77)	0.254
상담 및 재무교육 등 부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2.94(0.88)	1/5	3(0.86)	2.88(0.87)	1.31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48(0.9)	1/5	3.52(0.89)	3.41(0.9)	1.181

*p < .05, **p < .01, ***p < .00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의 사용 계획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만기시에 수령하게 되는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살펴보면, 사용계획의 1순위(39.5%), 2순위(22.8%) 모두 주택마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다음으로 가구원의 교육비(1순위: 21.9%, 2순위: 13.6%)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에 1순위 사용 계획으로는 부채 상환(11.5%)의 비율이 높았으며, 2순위에는 결혼 및 상제비(13.2%)가 높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사용계획의 3순위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15.8%)이 높게 나타남.

○ 한편, 2순위에서 주택마련과 가구원 교육비에 대한 계획이 25-34세의 조사대상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3순위에서 여행 및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인 15-24세 대상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16>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금 수령시 사용 계획(순위별):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1순위	가구원 교육비	93.0(21.9)	61.0(20.7)	32.0(24.6)	5.43(9)
	주택마련	168.0(39.5)	114.0(38.6)	54.0(41.5)	
	결혼, 상제비	30.0(7.1)	23.0(7.8)	7.0(5.4)	
	노후생활 대비	20.0(4.7)	15.0(5.1)	5.0(3.8)	
	사업자금 마련	25.0(5.9)	18.0(6.1)	7.0(5.4)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11.0(2.6)	9.0(3.1)	2.0(1.5)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9.0(2.1)	7.0(2.4)	2.0(1.5)	
	여행 및 여가생활	18.0(4.2)	15.0(5.1)	3.0(2.3)	
	부채 상환	49.0(11.5)	32.0(10.8)	17.0(13.1)	
	기타	2.0(0.5)	1.0(0.3)	1.0(0.8)	
2순위	가구원 교육비	58.0(13.6)	34.0(11.5)	24.0(18.5)	20.35(9)*
	주택마련	97.0(22.8)	66.0(22.4)	31.0(23.8)	
	결혼, 상제비	56.0(13.2)	45.0(15.3)	11.0(8.5)	
	노후생활 대비	38.0(8.9)	24.0(8.1)	14.0(10.8)	
	사업자금 마련	26.0(6.1)	21.0(7.1)	5.0(3.8)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32.0(7.5)	28.0(9.5)	4.0(3.1)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47.0(11.1)	29.0(9.8)	18.0(13.8)	
	여행 및 여가생활	43.0(10.1)	32.0(10.8)	11.0(8.5)	
	부채 상환	25.0(5.9)	13.0(4.4)	12.0(9.2)	
	기타	3.0(0.7)	3.0(1.0)	0.0(0.0)	
3순위	가구원 교육비	50.0(11.8)	34.0(11.5)	16.0(12.3)	25(9)**
	주택마련	37.0(8.7)	22.0(7.5)	15.0(11.5)	
	결혼, 상제비	43.0(10.1)	32.0(10.8)	11.0(8.5)	
	노후생활 대비	48.0(11.3)	27.0(9.2)	21.0(16.2)	
	사업자금 마련	23.0(5.4)	19.0(6.4)	4.0(3.1)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44.0(10.4)	30.0(10.2)	14.0(10.8)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61.0(14.4)	47.0(15.9)	14.0(10.8)	
	여행 및 여가생활	67.0(15.8)	56.0(19.0)	11.0(8.5)	
	부채 상환	43.0(10.1)	21.0(7.1)	22.0(16.9)	
	기타	9.0(2.1)	7.0(2.4)	2.0(1.5)	

*p < .05, **p < .01, ***p < .001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 욕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후원금/물품 지원이 21.6%(n=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개선이 15.8%(n=67), 문화여가가 13.2%(n=56), 자격증취득교육이 10.6%(n=45)로 높게 나타남. 한편, 연령이 15-24세의 응답자가 25-34세의 응답자보다 후원금/물품, 문화여가에 대한 부가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17>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받고 싶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령 구분

문항	구분	전체 n(%)	연령구분		χ^2 (df)
			15-24세: n(%)	25-34세: n(%)	
부가 서비스 욕구	가족상담/가족교육	30.0(7.1)	16.0(5.4)	14.0(10.8)	28.64(12) **
	문화여가	56.0(13.2)	50.0(16.9)	6.0(4.6)	
	후원금/물품	92.0(21.6)	63.0(21.4)	29.0(22.3)	
	심리상담	33.0(7.8)	26.0(8.8)	7.0(5.4)	
	양육교육	10.0(2.4)	3.0(1.0)	7.0(5.4)	
	의료지원	31.0(7.3)	20.0(6.8)	11.0(8.5)	
	직업교육/훈련	25.0(5.9)	18.0(6.1)	7.0(5.4)	
	자격증취득교육	45.0(10.6)	31.0(10.5)	14.0(10.8)	
	주거개선	67.0(15.8)	40.0(13.6)	27.0(20.8)	
	창업교육	15.0(3.5)	12.0(4.1)	3.0(2.3)	
	재무상담/재무컨설팅	11.0(2.6)	8.0(2.7)	3.0(2.3)	
	금융교육	8.0(1.9)	7.0(2.4)	1.0(0.8)	
	기타	2.0(0.5)	1.0(0.3)	1.0(0.8)	

*p < .05, **p < .01, ***p < .001

5. 조사결과 요약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조사 대상은 평균 23.8세로 1인~4인 가구가 다수이며, 구주보다는 가구원인 경우가 많음.

○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 대상자는 미혼비율이 높고 종교를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비전일제 근로자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전일제 근로자는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원인 경우가 많음.

○ 25~34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가구주 비율, 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또한 25~34세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25~34세 집단은 미혼자녀가 있는 핵가족 구성이 주를 이룸.

□ 고용상태

○ 근로를 하는 경우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높음. 한편, 25~34세의 일용직 비율이 높다는 것과 근로지속가능성 수준이 낮다는 것을 통하여 후기 청년들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음.

○ 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음. 인적 자원 수준에 따른 직종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 전일제 근로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비율이, 비전일제 근로자는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음. 청년층 또한 근로형태에 따른 직종구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적 상황

○ 조사 대상자의 평균 월 소득은 약 117만원이며, 전일제 근로는 하는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에 총 소득이 높음.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숙련 수준에 따른 소득차이로 볼 수 있음.

○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근로소득이 높지만 총 소득은 차이가 없음. 즉 인적 자원 수준은 근로를 통한 소득수준 증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외의 소득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전일제 근로자는 사업소득 수준이 높음. 비전일제 일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통한 소득 외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사대상자의 자산 보유 형태는 주로 금융자산이며, 평균 약 44만원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조사 대상자가 가구원인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함.

○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 부채수준이 높음. 즉, 개인 부채는 학업으로 인한 부채일 가능성이 높음. 한편, 연령이 높은 경우도 개인 부채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월 평균 생활비는 약 98만원이며, 생활비의 약 30%를 식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이 높은 경우,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조사 대상자들은 주관적 소득 수준을 상당히 낮게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비전일제 근로자와 25~34세 대상자들은 더 낮게 인식함. 다시 말해 연령 증가로 인한 지출의 증가와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득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저축

○ 월 평균 저축액은 약 24만원이며, 사업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저축 규모가 크며, 전일제 근로자가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저축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축의 주요 목적은 주택마련과 교육비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대상자들은 교육비 지출에, 대졸 이상 대상자들은 부채상환 목적의 비율이 높음. 한편 비전일제 근로자, 15~24세 대상자는 여가활동을 위한 저축 목적 빈도가 높음.

○ 25~34세 대상자들은 저축을 통한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한 저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와 지출 규모 등을 통하여, 후기 청년들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지출수준을 부담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거

○ 조사 대상자는 주로 임대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25~34세의 임대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음.

□ 건강

○ 조사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수준이었으나, 25~34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수준 이하로 인식함. 후기 청년들의 건강문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문제음주수준은 다소 낮지만,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와 25~34세인 경우에 음주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자의 주요 만성질환으로는 피부관련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등이 있음.

□ 사회적 관계

○ 조사 대상자들의 주된 사회참여 유형은 여가활동, 종교활동, 친목모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적지지 수준은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5~34세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지지 수준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연령 증가로 인한 독립과 부모로의 역할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진로

○ 조사 대상자의 주된 진로계획은 취업, 개인 사업, 진학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5~45세 대상자는 개인 사업 계획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후기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가운데 15~24세의 경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진로정체감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근로인식

○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희망 수준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장벽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고용에 대한 희망 수준은 25~34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심리적 특성

○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5~34세 집단은 15~24세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후기 청년들의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음.

□ 우울 및 만족도

○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소득, 직업,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았음. 그러나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게 나타남.

○ 25~34세 대상자는 15~24세 대상자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으며, 거의 모든 유형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하여 후기 청년들의 어려움이 단일 요인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음.

□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남.

○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이러한 불평등 문제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 대상자의 시민성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에 대한 인식

○ 사업을 통한 금액 지원 수준은 다소 낮게 인식함. 특히 25~34세 집단의 만족도가 낮음. 반면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 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업 관련 행정절차, 부가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다소 낮게 나타남. 특히 대졸 이상 대상자의 경우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사업을 통한 지원액은 주로 주택마련, 교육비 지출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응답함. 대졸 이상 대상자들은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계획 비율이 높았으며, 25~34세 대상자는 가구원의 교육비 지출과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저축에 지원금액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부가 서비스 욕구는 후원금 및 물품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이 높게 나타났음. 그 가운데 고졸 이하 대상자들은 문화여가지원에 대한 욕구가, 대졸 이상 대상자들은 자격취득교육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5~34세 대상자들은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업 비참여는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업 참여의향 수준이 높게 나타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사업의 신청자 모집 당시에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사업의 진행 이전에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표 4-118> 영역별, 집단 구분별 조사결과 요약

구분 / 영역	전제 집단 및 사업참여 여부 (참여 - 비참여)	학력 구분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근로형태 구분 (전일제 - 비전일제)	연령 구분 (15~24세 - 25~34세)
일반적 특성	- 평균 23.8세 - 1~4인 가구 다수(한부모 많음) - 가구원, 미혼 많음. -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	- 대졸 이상 참여자의 미혼 비율이 높음. - 대졸 이상 참여자는 종교를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비전일제 근로자는 1인가구 비율이 높으며, 전일제 근로자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음.	- 가구주 비율, 유자녀비율, 기혼 비율은 25~34세가 더 높음. - 25~34세는 미혼자녀가 있는 핵가족 구성 비율이 높음.
근로 상황	-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많음. - 서비스, 단순노무직 주로 종사함. - 근로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제 근로가 많음.	- 대졸 이상 참여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더 높음. - 대졸 이상의 경우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음. - 근로 지속가능성은 학력과 관련 없음.	- 전일제 근로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율이 높음. - 비전일제 근로자는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음.	- 25~34세는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고, 일용직근로 비율이 높음. - 25~34세는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높음. - 25~34세는 근로지속 가능성 수준이 낮음.
경제적 상황	- 평균 월 소득: 약 117만원 - 근로소득은 사업 참여자가 높음. - 공적 이전소득은 비참여자가 높음. - 평균 자산: 44만원 (대부분 금융자산) - 평균 부채: 약 418만원 (월 상환액: 약 7만원) - 평균 수급기간: 3년 - 월 평균 생활비: 약 98만원 (약 30% 식비 지출) - 주관적 소득 수준 상당히 낮음.	- 학력에 따른 총 소득의 차이 없으나 근로소득은 대졸 이상자가 더 높음. - 사업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고졸 이하 참여자가 더 높음. - 대졸 이상 참여자는 개인 부채 수준이 높음. - 수급여부・기간은 집단 간 차이 없음. - 월 평균 생활비 및 식비 지출비율은 학력에 따른 차이 없음, 통신비는 고졸 이하 참여자가 높음. - 주관적 경제상태 및 경제적 여건 인식 차이 없음.	- 전일제 근로자는 비전일자 근로자에 비해 총소득, 근로소득 수준이 높음. - 비전일제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높음. - 자산 및 부채 상태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음. - 비전일제 근로자의 수급 비율은 높으나 총 수급 기간은 차이 없음. - 전일제 근로자는 총생활비, 보건의료비, 교통/차량유지비, 통신비, 기타소비 등의 지출수준이 더 높음. - 비전일제 근로자가 주관적 소득 수준을 더 낮게 인식	- 25~34세는 총소득,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높음. - 25~34세는 개인부채 및 상환액 수준이 높음. - 25~34세는 총생활비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지출 수준이 높음. - 25~34세는 주관적 소득수준은 더 낮게 평가하고, 경제적 여건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함.
저축	- 월 평균 저축액: 약 24만원 - 사업참여자가 저축액 높음. - 저축목적: 주택마련, 교육비 지출 - 저축 중요성 인식 - 저축할만한 경제적 여유 부족 - 현 정부로부터의 지원 감소를 우려하여 저축을 꺼리는 정도는 다소 낮음.	- 총 저축액 및 저축방식별 금액에 차이는 없음. - 고졸 이하 참여자는 가구원 교육비를, 대졸 이상 참여자는 주택마련 및 부채 상환을 주요 목적으로 저축함. - 저축에 대한 생각은 학력에 따라 차이 없음.	- 비전일제 근로자는 총저축액, 사회보험 및 예금,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저축 규모가 작음. - 주택마련, 교육비를 위한 저축 - 전일제 근로자는 결혼・상제비가, 비전일제 근로자는 여가활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저축할만한 경제적 여유는 비전일제 근로자가 더 부족하다고 느낌.	- 연령에 따른 저축 수준 차이 없음. - 25~34세는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비율이 높음. - 15~24세는 여행 및 여가를 위한 저축 비율이 높음. - 저축으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25~34세는 15~24세에 비해 긍정적 인식 수준이 낮음.

<표 4-118> 영역별, 집단 구분별 조사결과 요약(계속)

구분 / 영역	전제 집단 및 사업참여 여부 (참여 - 비참여)	학력 구분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근로형태 구분 (전일제 - 비전일제)	연령 구분 (15~24세 - 25~34세)
저축	-	-	-	-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저축 인식은 15~24세가 더 높음. - 저축할만한 경제적 여유 수준은 15~24세가 더 높음.
주거	- 주로 임대아파트, 다가구 주택에 거주 - 월세가 다수(평균 약 1034만원 보증금, 약 28만원 월세 지출)	- 고졸 이하 참여자는 일반 단독주택, 임대아파트 거주비율이, 대졸 이상 참여자는 연립주택,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 높음.	- 근로형태에 따른 주거환경에 차이는 없음.	- 25~34세는 임대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음.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수준임. - 문제음주 수준은 다소 낮음. - 외래진료 경험 약 53.2%, 건강검진 수검률 약 22.4% - 주요 만성질환: 피부관련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 학력에 따른 건강 관련 요인에 차이 없음.	- 전일제 근로자는 비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음.	- 25~34세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인식. - 문제음주 수준은 25~34세가 더 높음.
사회적 관계	- 사회참여빈도: 여가 > 종교 > 친목 - 사회적지지 인지 수준은 보통 이상	-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대졸 이상자가 더 높음. 그 외의 활동여부 및 활동일수 등은 차이 없음. - 학력에 따른 사회적지지 인지수준 차이 없음.	- 사회참여, 사회적 지지의 인지수준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 없음.	- 사회참여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 없음. - 사회적지지의 인지수준은 15~24세가 더 높음.
진로	- 주된 진로 계획: 취업 > 사업 > 진학 -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다소 높음. - 진로정체감 수준은 다소 낮음.	- 주된 진로계획에 차이 없음. -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수준에 차이 없음.	- 진로계획,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수준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 없음.	- 25~34세는 개인사업 및 창업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15~24세가 더 높음.
근로 인식	- 근로의욕, 자활을 위한 행동 수준은 다소 높음. - 고용장벽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음. - 고용희망 수준 다소 높음.	- 근로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근로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 없음.	- 연령에 따른 근로의욕, 자활행동, 고용장벽 수준은 차이 없음. - 고용희망에 대한 수준은 25~34세가 더 낮음.
심리적 특성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간 이상. - 자아정체감은 사업참여자가 더 높음.	- 심리적 요인들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심리적 요인들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은 15~24세가 더 높음.

<표 4-118> 영역별, 집단 구분별 조사결과 요약(계속)

구분 / 영역	전제 집단 및 사업참여 여부 (참여 - 비참여)	학력 구분 (고졸 이하 - 대졸 이상)	근로형태 구분 (전일제 - 비전일제)	연령 구분 (15~24세 - 25~34세)
우울 및 만족도	- 우울 수준 다소 낮음. - 전반적 만족도 수준은 다소 낮음. - 소득, 직업, 주거상태 불만족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만족	- 우울 및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직업에 대한 만족 수준은 고졸 이하 참여자가 더 높음.	- 우울 및 만족도 수준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5~34세는 우울 수준이 높음. - 25~34세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 관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만족 수준이 낮음.
사회 인식	- 사회에 대한 신뢰는 다소 낮음, 사업 참여자가 사회 신뢰 수준 더 낮음. - 사회 불평등 문제인식 수준 높음, 사업 참여자가 불평등 인식 수준 더 높음. - 시민성 수준 다소 높음.	-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음.
사업 인식	- 사업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은 중간 수준보다 낮음. - 사업 관련 정보제공, 행정절차, 부가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중간 수준 보다 다소 낮음. -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높음. - 사업 지원 금액의 사용계획은 주로 주택마련, 교육비 지출임. - 부가 서비스 욕구는 후원금 및 물품 지원, 주거환경개선이 높음. - 사업 비참여자의 66%가 본 사업을 알고 있음. - 비참여자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으며, 참여 의향 수준 또한 높음. - 사업 신청 당시 알지 못하여 신청 못한 경우가 약 20%에 해당됨.	- 사업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만족수준을 비교했을 때, 고졸 이상 참여자는 중간 이상이었으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중간 이하의 만족도를 보임. - 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은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졸 이상자는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음. - 고졸 이하 참여자는 문화여가지원 및 후원금 및 물품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고, 대졸 이상 참여자는 자격증취득 교육과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높음.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근로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지원 금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15~24세가 더 높음. - 25~34세는 지원금 수령 시 2순위 사용 계획으로 가구원의 교육비 지출 빈도가 높음. - 25~34세는 지원금 수령 시 3순위 사용 계획으로 노후생활 대비 빈도가 높음. - 15~24세는 지원금 수령 시 3순위 사용 계획으로 여행 및 여가생활 빈도가 높음. - 부가 서비스 욕구 가운데 가족상담 및 가족 교육은 25~34세가 15~24세에 비해 높게 나타남.

05

초점집단면접 연구 결과

제1절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제2절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제3절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제4절 통장사업 이용시 불편한 점 및 제언

Ⅴ. 초점집단면접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사업 초기 시점에서 초기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중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각 3명씩 집단을 이루어 집단별로 2시간 가량 진행함.

<표 5-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 대상 면접조사 참여자

참여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참여자 A	여	21	서울시 강북구
참여자 B	여	25	경기도 평택시
참여자 C	남	22	서울시 은평구
참여자 D	여	25	서울시 종로구
참여자 E	여	26	서울시 노원구
참여자 F	여	21	서울시 광진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이용시 불편한 점, 제언 및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질문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 <표 5-2>에 정리되었듯이 경제적 측면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발견됨. 경제적 측면에서는 목돈이 마련되어 가면서 경제적 안정감, 삶에 위기 발생시 대처능력이 실제적 향상, 탈수급에 대한 준비와 같은 변화가 발견됨.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는 한편 든든한 마음이 들며, 실제로 지원금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려는 모습이 보여 탈수급에서 나아가 자립적 삶에 대한 동기 부여 역할을 수행함을 목격할 수 있었음.

○ 반면 기존 연구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로 보고된 사회적참여 및 사회적영향력 향상과 관련된 변화는 본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조사 시점이 사업 초기 시점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5-2> 통장사업 참여 이후 생활의 변화

효율적 소비에 대해 관심이 생김 지출을 보다 계획적으로 하게 됨	효율적 소비를 하려고 노력함	경제적 측면의 변화
주거 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 집을 마련하는데 보태고자 함	주거 안정을 위한 준비	
탈수급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의 역할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다짐	탈수급의 의지와 준비	
지속적인 저축에 대해 생각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	저축에 대한 생각	
일을 계속 하게 됨	일에 대한 생각	
독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됨	독립, 자립 준비	
직업의 선택의 자유로움 안정감을 느낌 불안감 감소 심리적 여유를 느낌	정서적 안정감 및 불안감 감소	심리·정서적 측면의 변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됨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실행력 향상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실행	

□ 경제적 측면의 변화

경제적 측면에서 통장사업 참여자들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종자돈 마련, 목돈 마련을 통해 위험에의 대처능력 향상, 탈수급의 계기와 기회로서 통장사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효율적 소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게 됨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됨.

"돈을 무작정 모으는 것 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자기개발 등)" (참여자 B)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학원비 지원이나 취업알선보다 훨씬 이게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학원비 지원은 달마다 40만원 이렇게 실업급여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꽁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사업을 보면 활용도가 목돈이라 그런지 확실히 '내가 써야하는 거, 내가 투자해야 하는 거, 내가 부풀려서 써야하는 거'. 제가 본 중에는 가장 좀 그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참여자 E)

○ 주거 안정을 위한 준비

지원금이 현재 삶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일 될 것임.

“돈을 모으는 이유 중 가장 큰 목표는 집 마련인데 현실은 다 모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모은 돈과 대출을 활용하여 주거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에요”(참여자 B)

“주거문제(보증금)에 대해 쓰고 싶어요. 내 돈으로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참여자 A)

○ 탈수급, 탈빈곤의 의지와 준비

사업 참여가 탈수급의 계기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 사업은 참여자들을 울타리 안에 편안하게 있기 보다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한다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참여자들을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탈수급자체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A)

“저는 탈수급 해서 열심히 살 거에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수급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탈수급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참여자 A)

○ 저축에 대한 생각

과거에는 저축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지속하지 않았음.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를 계기로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끈기있게 저축을 하게 됨

“그리고 저축을 해서 나에게 목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축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E)

○ 일에 대한 생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게 됨

“저는 이걸 하기 전에는 알바니까 쉽게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꼭 알바를 해야되서 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3년이니까 3년 동안 일을 계속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뿌듯하고 잘 해서 모아놔야겠다,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F)

○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자립의 준비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독립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지 못할까봐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통장사

업은 목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립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됨

“엄마한테서 독립 할 계획이에요. 지방에 있는 친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서히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고 싶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활력이나 책임감을 기르고 싶어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그래픽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참여자 A)

□ 심리정서적 측면 - 정서적 안정감 및 불안감 감소

○ 정서적 안정감

목돈을 마련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이 발견됨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참여자 A)

“안정감이 있어요. 저한테는 큰 금액이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금액을 봤을 때는 3년이라는 기간도 적정한 거 같고 금액도 적지도 크지도 않는 느낌이고 최선의 수준으로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없었으면 이 돈까지 내가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담이 덜하죠. 이 돈이 뭐라고 이 돈이 3년 뒤에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E)

○ 불안감 감소

미래에 위기가 닥치면 더 힘들어지거나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 참여 이후 든든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감소.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감소하는 한편 여유를 느끼기도 함

“엄마한테서 독립 할 계획이에요. 지방에 있는 친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서히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고 싶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활력이나 책임감을 기르고 싶어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그래픽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참여자 A)

□ 심리정서적 측면 -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동기 부여

○ 미래에 대한 희망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멀리 보게 됨

"다른 지원이 끊길 수 있어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고,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설득하여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자 A)

○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 수립과 실행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 그리고 목돈을 바탕으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생김. 하루하루 살아내기 급급했던 삶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가지게 됨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 더 뒤의 미래를 생각해서요." (참여자 B)

"비싸서 다니기 힘들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개인부담 때문에 다니지 못한 그래픽 학원에 다닐 것에요.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참여자 A)

"수급가구에서 살고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다른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돈을 이정도 까지 벌어야한다' 는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소득이 없었어야 하니까 부담이 갔는데, 이 통장 사업은 일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참여자 A)

"엄마한테서 독립 할 계획이에요. 지방에 있는 친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서히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고 싶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활력이나 책임감을 기르고 싶어요. 우선 돈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그래픽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참여자 A)

2.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통장사업이 만기되면 어떻게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금의 일부를 여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활용하거나, 교육비, 부가적 수입을 위한 투자 종자금으로 활용, 청약, 사업 투자, 로또 구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발견됨

<표 5-3> 통장사업 만기 시 지원금 활용 계획

재충전을 위해 일부는 여행에 활용하고 싶음	문화여가
주거 문제 해결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한 보증금으로 활용 계획	주거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학원비(그래픽)에 쓸 계획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비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를 얻는 데 쓸 계획	창업 비용
목돈 마련을 위한 투자 - 로또, 주식 투자 등	투자

□ 문화여가

일부는 재충전을 위해 나를 위해 여행에 활용하고 싶음

"일부는 여행에 쓰고 나머지는 주거문제(보증금)에 대해 쓰고 싶어요." (참여자 A)

□ 주거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나 청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주거문제(보증금)에 대해 쓰고 싶어요. 내 돈으로 깨끗한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A)

"돈을 모으는 이유 중 가장 큰 목표는 집 마련인데 현실은 다 모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모은 돈과 대출을 활용하여 주거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에요" (참여자 B)

□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비

취업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비싸서 다니기 힘들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서도 개인부담 때문에 다니지 못한 그래픽 학원에 다닐 것에요.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참여자 A)

"저는 취업준비할 때 필요한 교육비로 사용하고 싶어요." (참여자 F)

"일을 안 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애들이랑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는 애들이랑 결과물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생활비와 교육비나 이런 게 벌면서 안하고 쓰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참여자 E)

□ 창업 비용

창업을 위해 가게를 얻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투자에 쓸 것 같아요. 당구장을 할 계획이에요 당구장을 얻기 위한 보증금으로 활용할 거에요”(참여자 C)

□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에의 투자, 주식투자, 부가적 수입을 위한 종자돈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음

“목돈 마련을 위해 로또를 사기도 할거에요”(참여자 C)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서, 더 돈을 벌기 위해 쓰고 싶어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수입을 벌고 싶어요.”(참여자 B)

3. 통장사업 만기 후 기대하는 생활의 변화

통장사업 만기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모습, 탈수급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비가 비싸서 다니지 못했던 학원에 등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등 자립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발견됨

□ 가족으로부터 독립

지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 문제 때문에서 미뤄왔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을 것 같고, 상한선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A)

□ 탈수급

최대소득 제한이 없어서 근로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자유로운 직업 선택 가능

“탈수급 해서 돈을 많이 벌거 같아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정신없이 해서 한달에 600만원 번 적도 있어요. 다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요”(참여자 C)

“저는 탈수급 해서 열심히 살 거에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수급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탈수급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참여자 A)

4. 통장사업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제언

통장사업과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 관련 정보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일하는 곳과 급여가 달라질 때마다 매번 등록해야하는 부분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관련하여 자동으로 소득 등록을 해주거나, 인터넷 등으로 전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기를 요구함. 더하여 취업교육과 알선이 충분치 않아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발견됨

<표 5-4> 통장사업 이용 시 불편한 점 및 제언

사업 홍보와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참여하고 있는 지금도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서 답답함.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음	사업 홍보와 안내의 체계화
매달 수입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야함. 알바를 하면서 수입이 가변적이여서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되기 바람	번거로운 소득 변경 신고 절차와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탈수급 조건은 부담이 됨 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포기할 수 있음	탈수급 조건에 대한 부담과 조건 완화
탈수급을 해서 바로 그 위의 소득층이 되면 많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탈수급 하는 것이 두렵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듬.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람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과 차등 지원

□ 홍보와 안내

사업 홍보와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참여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방법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등이 부족해요.” (참여자 B)

“신청하러 갔는데, 직원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보여주고 알려드려야 하는 상황이였어요” (참여자 D)

“저도 이거를 못할 뻔 했던 게. 우편물이 와서 전화를 드리고 담당자분이 신청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연락드리니까 누락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그 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통 다 그런가보네요.” (참여자 E)

“저는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시더라고요.” (참여자 F)

“어찌되었건 저희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먼저 뭔가를 막 하기가 그런거죠. 그래서 먼저 절차상으로 해주시면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권리에 대해서 당연한거고 요구할 수 있는거라고 유도를 해주시면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잘 하게 될텐데,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혹은 알아서 알아와야지라고 하시고 저는 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구청에 문의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내가 무리해서 어렵게 찾아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E)

□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현재는 매달 수입과 근무지를 오프라인으로 참여자가 직접 등록해야해서 소득이 가변적이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자주 방문해야하는 점이, 참여자를 번거롭게 하고 있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제안됨

"매달 수입을 직접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직접 가서, 사업자 등록이나 연락처를 매번 적어야했어요. 인력을 확충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거나, 혹은 내가 직접 인터넷 전산등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B)

□ 탈수급 조건 완화

탈수급은 일부 참여자와 대상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일 수 있음. 특히 청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사업 참여를 꺼리거나 포기할 수 있음

"또한 통장 수급하려면 탈수급을 해야 하는데 주거지원 등이 많이 떨어질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요. 저희 집도 어릴 때부터 지원을 받아오다 보니까 탈수급이 부담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탈수급 때문에 포기했다고 많이 들었어요. 만기 때 가구와 독립하거나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해요. 이 사업 참여 때문에 모든 가구원이 탈수급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조건완화 필요해요." (참여자 A)

"탈수급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래도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3년 뒤를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 조건이 맞으니까 한 건데. 어린친구들은 그 조건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참여자 E)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거를 취업목적으로 했는데, 탈수급을 해야하니까 부담이 되죠."(참여자 F)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 1,000만원 되는 돈 주고 내가 이거 줄테니까 거기에서 나와라고 하는 맞교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바꿔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E)

□ 차등 지원

수급자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탈수급하여 바로 그 위의 소득을 가지게 되면 많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오히려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음. 이러한 이유로 탈수급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

이 야기되기도 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탈수급과 동시에 많은 지원이 단절되기보다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됨

"최하층뿐만 아니라 차등분배도 필요해요. 저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걸 많이 봤어요. 오히려 더 못사는 사람들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벌면 국가 지원을 못 받으니까요." (참여자 B)

06

결론 및 제언

제1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및 제언
제2절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Ⅵ. 결론 및 제언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및 제언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결론

○ 본 연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중 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가구구성)
- 고용 상태(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 경제적 상황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생각(소득, 자산, 부채, 수급현황, 소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지)
- 저축 상황 및 저축에 대한 생각(저축액, 저축의 주요 목적, 저축에 대한 생각)
- 주거 상황(거주지유형, 점유형태, 점유형태별 거주자산 금액)
- 건강 상황(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정도(외래진료, 입원, 건강검진, 만성질환 별))
- 사회적 관계 상황(사회 참여 정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
- 진로에 대한 생각(1년뒤 예상 진로,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 근로에 대한 생각 및 태도(근로의욕, 일에 대한 생각, 고용장벽, 고용희망)
- 자신의 정체성, 가치와 역량에 대한 생각(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역량)
- 사회에 대한 생각(사회에 대한 믿음 정도, 시민성)
-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도

□ 참여자 집단의 경우 더 높은 상용근로 참여율, 더 높은 근로소득과 총소득 수준

○ 그 결과 고용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 근로를 하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비참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상황 또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에서 비롯한 총소득이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공적 이전소득은 비참여자 집단이 더 높은 수준임

□ 소비, 저축, 주거, 의료서비스이용, 사회적 관계, 근로에 대한 생각, 우울 및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유의한 차이 발견되지 않음

○ 사업 참여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 간에 자산형성지원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저축을 제외하고는 소비나 저축액, 주거상태에 있어서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태의 경우 미참여 집단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참여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서비스 이용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관계 정도 파악을 위한 사회참여 여부 및 정도 및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또한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의욕, 근로태도, 근로장벽, 근로희망 등에서도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우울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자 집단의 경우 더 높은 자아정체감

○ 참여자 집단의 경우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더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자신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에서는 또한 참여집단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님

□ 참여자 집단의 경우 예상 진로와 관련하여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창업 희망 비율 높음

○ 1년 뒤 예상 진로와 관련하여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참여자 집단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높았던 반면, 비참여자 집단의 경우 군입대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 필요 : 사업 시행 초기로서 사업으로 인한 참여자의 변화와 성과라기보다는 참여 결정자와 미참여 결정자 간의 차이로 이해해야

○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청년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상용근로 비율이 높고 따라서 근로소득과 총소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응력 등을 스스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1년 뒤 예상 진로와 관련하여 진학, 편입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조사 시점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기 이전이며 조사 대상 참여자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초기 참여 단계임

○ 따라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차이는 사업 성과, 즉 사업 수행으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참여를 결정한 대상자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상자 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 평가 위한 패널 연구 필요

○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를 횡단적 접근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참여자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장기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패널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의 생애사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편익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한 패널 성과 연구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임

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제언

○ 문헌검토,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발견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한 제안 사항을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중 수급금액 수준,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사업 내용, 사업 절차 및 체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사업 관련 : 사업 대상

□ 탈수급이라는 수급 조건 완화를 통한 참여자 확대 필요 : 탈수급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근로역량이 높은 집단이 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

○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지난 3개월 간 총소득과 근로소득을 비교했을 때, 참여자의 경우 총소득은 약 30만원 정도, 근로소득은 25만원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력과 관련하여 참여자 집단의 경우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대졸자 비율이 10% 가량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가지는 수급을 위한 탈수급 조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탈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다시 말해 근로 역량이 더 높은 대상자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함. 따라서 보다 보편적 사업으로 대상자를 늘리고 탈수급에서 나아가 전인적 역량강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탈수급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함[4)]

4) 예를 들어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국가자격증 취득을 수급 조건으로 추가함으로써 반드시 탈수급을 하지 않아도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해왔음을 증명했다면 수급을 할 수 있음

□ **가입조건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필요 : 현재 가구별 1인만 가입 가능한 조건 완화 필요**

○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한 수급 가구에서 한 명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함. 이는 형제자매가 있는 참여 청년의 경우 자신이 참여함으로써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청년 가구원에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저소득 가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구당 청년 일인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제안함.

(2) 사업 관련 : 사업의 수급금액 관련

□ **가족수급금액 삭감 관련**

○ 현재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의 일부만큼을 가족수급금액에서 삭감하고 있음. 이는 일부 청년의 경우 탈수급 조건으로 인해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가족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참여의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음. 또한 사업에 참여하고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자신이 지원받는 대신 가족들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의 일부가 삭감되는 데 대해 죄책감을 가지기도 함. 이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원을 조건으로 가족수급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은 제고가 필요함

□ **저축금액의 유연화**

○ 현재 저축금액은 소득 대비 일괄적으로 정해짐. 저축금액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10만원, 20만원 등 선택 가능하도록 유연화할 필요 제안

(3) 사업 관련 :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실시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주거·창업 등 자립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주거개선, 문화체험, 커뮤니티 활동 등**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현재 참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해 어떠한 부가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이는 중앙정부의 희망키움통장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같은 대표적인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기도 함[5]. 희망키움통장1의 경우 자립역량강화 교육을(http://www.hopegrowing.com/hope02_01.jsp),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

5)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 2018년 시행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청년 문제의 시급성, 후발 통장사업으로서 빠른 참여자 확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임.

의 경우 1년에 3회의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주거・창업 등 자립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과 같은 부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https://www.welfare.seoul.kr/business/hope/about/hope).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의 경우에도 필수교육으로서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주거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연계 사례관리기관에서 문화체험, 주거개선, 커뮤니티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음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일부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의 높은 만족도 보고 : 금융교육, 재무상담, 창업교육, 문화체험, 커뮤니티 활동**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순성 외, 2014) 결과, 1년에 3회의 다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는 금융교육에 대해 94.4%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재무컨설팅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 자립정도 제공의 경우에도 89.4%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종료 후에 금융교육, 재무상담, 창업교육에 각각 33.2%, 26.5%, 12.0%가 참여하였음. 이는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의 참여가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졌음을 의미함

○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서종녀, 2017)는 이러한 부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사업 참여자들이 금융교육, 문화체험,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보고함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에도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고려 필요 : 직업교육, 자격증취득 지원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기존 사업에서 높은 만족도 보고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심으로**

○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에도 부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을 고려해볼 필요성을 제안함. 기존의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금융교육, 문화체험, 커뮤니티 활동과 같인 청년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업 중심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 조사에서 지원금 수령 후 창업을 계획하거나 지원금 수령 후 지원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로또에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발견됨. 이는 일부 참여자의 경우 수령한 지원금을 의미없이 소비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수령할 금액으로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주거 보증금으로의 활용함

과 동시에 교육비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 또한 발견됨. 이러한 이러한 활용은 예상 수령금으로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현실적 계획을 기반으로 효율적, 합리적으로 수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재무계획을 세워보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또한 제안함

○ 더하여 본 연구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후원금/물품(21.1%), 주거개선(15.6%), 자격증취득교육(10.4%), 심리상담(7.6%), 가족상담(7.6%) 순으로 나타남. 이는 발달 단계상 미래와 직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오프라인 집합교육, 오프라인 일대일 상담, 온라인 교육 균형 있게 활용

○ 교육 방식으로는 사업 참여자들이 모두 근로 중인 청년임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의 집합교육을 일부 활용하되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금융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재무상담 및 컨설팅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근로와 삶에 있어서 책임감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저소득 수급가구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발견된 청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음.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의 경우 정직원으로도 일해봤는데 정직원으로 일했더니 책임을 질 일이 생기고 쉬고 싶을 때 쉬기도 어려워서 그만두고 다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또 다른 청년의 경우에도 현재 10년 넘게 미용실에서 보조미용사로 일하다가 전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미용업을 그만두려는 이유의 하나로 보조미용사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고객에 대해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이처럼 청년들이 임시직/일용직에서 상근직으로 또한 오랜시간 기술을 익혀 보조직에서 전문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서 책임을 지기 싫거나 두려워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저소득 수급가구 청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즘 세대의 청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일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가지지 못하고 수급으로 살아가는 저소득 수급가구 청년의 특징적 모습일 수도 있음

○ 이러한 특성이 왜 야기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향후에도 고용 시장 뿐 아니라 본인의 삶이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와 삶에 있어서의 태도와 관련하여 책임감을 고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설계하여 제공할 필요를 또한 제안함

(4) 사업 관련 : 사업 절차 및 체계 관련 제언

□ 적극적·다각적 홍보

○ 사업의 적극적 홍보 필요성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서 발견되었는데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참여자의 경우 1인가구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비참여자의 경우 조부모와 살고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면접조사로부터 대체로 스스로 버스 광고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함께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입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보호자와 사는 경우 사업에의 정보 접근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비참여자의 경우 90% 이상이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필요하며 80%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36%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 또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42%에 달하였음. 이는 해당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의 다각적 홍보의 필요성을 제안함. 본 사업의 경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는 것은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음

□ 진행사항에 대한 후속 안내

○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장에 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후속 안내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조건과 내용 등을 잘 모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또한 후속 안내는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기나 반기별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사업 참여한지 얼마나 되었으며, 지원금은 언제 수급가능하며, 수급 조건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 안내를 제공할 필요를 제안함

□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의 사업 숙지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자들의 다수가 사업 참여시에도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거나 사업 참여 이후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을 해당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했으나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경험을 진술함

○ 이는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와 추가배치, 통장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숙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해야할 업무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거나 참여자들이 요청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할 정도의 숙지가 필요함

□ 인터넷 뱅킹에서도 확인가능하도록

○ 사업에 참여하면서 통장에는 지원금이 찍혀 통장으로는 지원금이 모여가는 것이 확인가능하나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 뱅킹에서는 지원금을 확인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고 오프라인 은행보다 온라인 상에서의 은행업무 활용도가 더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터넷 뱅킹에서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변화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편할 필요 있음

□ 사업자 등록 절차 간편화 및 전산화

○ 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 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적(24.7%), 일용직(20%)에 종사하고 있음.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 비율은 상용직 근로비율(25.1%)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로 상당수의 참여자가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경우 매월 근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고용지위가 불안정하고 수입이 불규칙한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소득이 변경될 때마다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서 사업자 등록과 연락처를 변경해야 해서 매우 번거로우며 근로에 장애가 되기도 함.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거나 이직 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편화할 필요성을 제안함.

2.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패널조사 설계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음.

□ 먼저, 패널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조사시점, 조사인원, 조사대상, 조사간격 등에 대해 제언하고, 패널 운영 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사대상 관리와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에 관하여 제언하였음.

1) 패널조사 설계 관련 제언

□ 기본방향:

○ 대표성 확보: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전국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조사여야 하며, 성별, 연령 등의 다양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성과 측정: 성과를 횡단적·종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며, Page-Adams & Sherradon(1997) 성과틀에 PYD모델의 청년특성을 더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야 함.

○ 저소득청년들의 삶 측정: 저소득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욕구 그리고 그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조사인원:

○ 지역별 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 확보 및 패널이탈 가능성을 고려하여 1,000명의 조사인원 확보를 제안함. 보통의 패널조사들은 한국복지패널 7,000가구, 한국노동패널 5,000가구로 그 수가 크나 본 조사는 저소득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000가구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제안함.

○ 차수가 거듭될수록 패널이탈자가 발생하나 사업기간 동안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수마다 새로운 패널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패널을 최대한 잘 관리하여 이탈자를 최소화하면서 패널인원의 감소를 방지해야 할 것임.

□ 조사대상:

○ 전국에 있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가 조사대상이며,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조사를 실시함. 가구단위 조사는 아니지만 개인을 통해 필요한 가구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본 사업은 가구가 아닌 개인의 탈수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개인단위 조사가 적절함.

○ 표본추출은 광역시도 수준에서 지역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표본으로 추출함. 즉, 광역시도를 조사구단위로 설정하고, 광역시도별 중복이나 누락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광역시도 수준에서 적절한 수가 확보되어 지역별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층화변수로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가입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층화표집을 제안함.

○ 미가입자의 경우 패널관리가 어렵고, 참여자의 종단적 변화 분석을 통해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조사간격 및 기간:

○ 조사간격은 1년, 조사시기는 연초 2-3월이 적절함.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모두 가능하며,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추후에 이를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선정해야 함.

○ 대면 면접조사는 응답의 질 관리가 가능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음.

○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는 상대적으로 응답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나 비용효율적임. 자기기입식 조사가 어려운 아동이나 노인은 온라인 조사를 하지 않는 편이나, 청년의 특성 상 인지수준이 높아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자기기입식 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 응답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청년들의 온라인 응답 능력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응답의 질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았음.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 조사가 효율적임.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들도 양적 조사와 함께 질적 조사(인터뷰)를 진행하여 성과를 다면적으로 측정하였음. 본 패널도 양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규모 면접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서면동의를 획득한 후 패널로 확정함.

○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의 경우 표본으로 선정된 개인에게 전화를 통해 패널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이메일 등으로 서면동의를 획득한 후 패널로 확정함.

○ 설문지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결과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보완하고, 반드시 예비조사를 거친 후 본 조사에서 설문지를 사용해야 함.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공통문항을 설정하고, 패널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추가문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통장가입연도, 2차년도, 3차년도, 탈수급 이후 1년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내용을 조금씩 개별화할 필요가 있음.

2) 조사대상 관리 관련 제언

□ 패널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패널이탈 방지임.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의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거절이나 추적 불가 등의 관리문제로 인한 패널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함. 실제 다른 패널조사를 보면 자연감소보다는 거절이나 추적 불가 등의 관리문제로 인한 패널 이탈이 많아 패널 이탈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널이탈 방지를 위한 조사대상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

음.

○ 조사기관의 신뢰도 향상: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자활센터의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함. 보통 우편으로 발송하나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조사참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사참여에 대한 간접적 보상(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개선 및 확대, 빈곤율 감소) 뿐만 아니라 조사참여 노력과 시간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 추후 조사표가 완성되면 응답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임. 일반적인 횡단조사의 설문지에 비하여 패널조사는 설문의 양이 꽤 많은 편이므로 최소한 20,000원 상당의 보상은 필요할 것임. 온라인 조사라는 전제하에서는 기프티콘이 가장 적합한 보상도구일 것으로 보임.

○ 이사 및 가구분리 정보 제공 시 적절한 보상 제공: 이사나 세대분리가 발생했을 경우, 패널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변동사항 발생 시 조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주기적 연락 및 관계 형성 노력 실시: 조사는 1년에 1회 실시되나, 분기에 1번 이상은 패널에게 연락을 취해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연락의 내용은 생일축하, 결혼기념일 축하 전달이 될 수 있고, 패널조사의 결과와 정책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될 수도 있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기관에서 패널을 패널연구 성공을 이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관리체계의 일원화: 패널조사를 종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조직이 필요함. 따라서 패널조사가 가능한 인력(최소 4명, 관리책임자, 설문지 개발 및 조사관리, 자료분석, 행정지원)이 있는 조직을 패널관리조직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함. 다른 패널조사처럼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매년 담당조직이 변경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 충분한 패널 구축 및 관리 비용 확보: 조사원 인건비, 분석비용, 응답사례금, 패널관리비용 등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패널 관리 비용을 확보해야 함. 5,000가구의 패널을 관리하는 경우 5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00명의 패널 관리에는 1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원의 체계적 선발/배치/교육: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조사원은 조사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되도록 하며, 배치 및 교육 또한 조사전문업체가 일임하도록 함. 다만, 패널관리조직은 조사지침서, 설문지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조사원 교육은 조사 전에 집단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수시로 개별적으로 조사에 대해 질의할 수 있도록 소통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함.

3)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관련 제언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은 지양해야 하나 패널 연구의 특성상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함. 조사기관은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함.

○ 개인정보관리방침 수립

- 여타 다른 패널들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패널이 개인정보관련 문의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필요한 근거로써 개인정보관리방침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립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패널조사의 윤리적 진행 절차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신청하고, 심의를 통과한 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함.

○ 개인정보관리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패널에게 조사참여 전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계법 제33조에 의한 비밀보호,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함.

○ 개인정보접근성 관리:

- 패널추적 및 자료분석 등을 위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나 이는 조사관계자들에 한하여 공유되어야 함.
-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공유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에서 공유되어야 함.
- 조사원에게는 담당 패널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어야 함.

○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데이터에 개인정보 추적을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처리를 해야 함.

○ 개인정보 파기:

- 통계법에 의거 수집된 자료는 3년 간 보관할 수 있음. 따라서 3년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함.

참고문헌

서종녀. 2015.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기초분석보고서.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서종녀. 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이봉주. 2018. 청년 니트의 현황과 원인. 빈곤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발표자료. 한겨레신문사・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순성 김미현 조효주 한가영. 2009, 2010, 2011.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 성과측정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이순성 서용희 김기재. 2012.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장기적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이순성. 201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최조순 현동길 장동호 성열서. 20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성과 분석.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최현수 한창근 최준영 박경희. 2010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1차).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한창근 최준영. 2011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2차).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한창근 최준영. 2012 탈 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3차).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 한창근 최준영 김성아. 2013. 2013년 희망키움통장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Galster, G. C. (1987). Home ownership and neighborhood reinvestmen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Green, R. K., & White, M. J. (1997). Measuring the benefits of home owning: Effects on children. Journal of Urban Economics, 41, 441-461.

Learner, R. M. et al. (2005). Positive youth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and community contributions of fifth-grade adolescents: findings from the first wave of the 4-H stud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1), 17-71.

Levinson, D. (1989). Family violenc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Massey, D. S., & Basem, L. C. (1992). Determinants of savings, remittances, and spending patterns among U.S. migrants in four Mexican communities. Sociological Inquiry, 62, 185-207.

Noponen, H. (1992). Loans to the working poor: A longitudinal study of credit, gender and the household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234-251.

Oskamp, S., Harrington, M. J., Edwards, T. C., Sherwood, D. L., Okuda, S. M., & Swanson, D. C. (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3, 494-519.

Page-Adams, D. (1995). 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Page-Adams, D., & Sherraden, M. (1997). Asset building as a community revitalization strategy. Social work, 42(5), 423-434.

Perkins, D. D., Florin, P.,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M.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83-115.

Petersen, R. (1980). Social class, social learning, and wife abuse. Social Service Review, 54, 390-406.

Rohe, W. M., & Stegman, M. A. (1994b). The impact of home ownership on the social and political involvement of low-income people. Urban Affairs Quarterly, 30, 152-172.

Schuler, S. R., & Hashemi, S. M. (1994). Credit programs, women's empowerment, and contraceptive use in rural Bangladesh. Studies in Family Planning, 25, 65-76.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 E. Sharpe.

Thompson, A. M. III. (1993). Rural emergency medical volunteers and their communities: A demographic compariso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18, 379-392.

하나은행 희망내일키움통장 안내
http://www.hopegrowing.com/hope02_01.jsp

서울시복지재단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안내
https://www.welfare.seoul.kr/business/hope/about/hope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안내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부록

1. 참여자대상조사표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A0_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조사표 (참여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및 (재)중앙자활센터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패널자료 구축을 위하여 본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년도 패널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패널조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 (재)중앙자활센터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락 처: 연구책임자 최상미 donggukabp@gmail.com, 02-2260-3659

조사원 기입란

주소	시군구 번호 참고		☞ 시군구 번호 5자리 중 앞 2자리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36) 세종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50) 제주 ☞ 시도 번호 이하 3자리는 시군구 코드 참고
	시 군 구 번 호		☞ 2018년 시군구 코드 기준 A0_2
	세부주소	도로명(신)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_____(시·군·구) _____(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지 번 (구)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조사원 이름	(인)	조사원 소속		지도원 확인	(인)

< 연구참여 동의서 >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답례품 수령확인서

조사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현황 및 욕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등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답 례 품	상품권 금 이만원권(₩ 20,000)

2018 년 11 월 일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당지급 및 소득세법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3호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증빙서류 보관 기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년 11 월 일

성명 : (서명)

A. 가구 일반현황

A1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A1_1	성별	□ ① 남 □ ② 여	A1_4	가구주 여부	귀하는 가구주 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1_2	생년월일	□□□□ 년 A1_2_1 □□ 월 A1_2_2 □□ 일 A1_2_3			
A1_3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수	□□ 명 (1인 가구: 0명)	A1_6	혼인상태	□ ① 미혼 □ ⑤ 이혼 □ ② 기혼 □ ⑥ 사실혼관계(동거) □ ③ 별거 □ ⑦ 기타 □ ④ 사별
A1_5	자녀 수 (응답자 기준)	□□ 명 (비해당: 0명)			
A1_7	학력 (졸업기준)	□ ① 무학 □ ④ 고등학교 □ ② 초등학교 □ ⑤ 대학(4년미만) □ ③ 중학교 □ ⑥ 대학교 이상	A1_10	가구구성	□ ① 1인 가구 □ ② 부부 (응답자+배우자) □ ③ 부부 (응답자+배우자)+미혼자녀 □ ④ 부모+자녀 (응답자 포함) □ ⑤ 한부모가정 (부모(응답자)+미혼자녀) □ ⑥ 한부모가정 (한부모+자녀(응답자포함)) □ ⑦ 형제자매 □ ⑧ 조부모/한부모+손자녀(응답자포함) □ ⑨ 기타 (_____)
A1_8	장애여부	□ ① 비해당(비장애인) □ ② 경증(4~6급) □ ③ 중증(1~3급)			
A1_9	종교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A1_11	근로형태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직 근로자 □ ③ 일용직 근로자 □ ④ 자활근로/공공근로 □ ⑤ 고용주/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실업자(지난4주간 구직활동) □ ⑧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주부, 군인 등)	A1_12	직종분류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⑪ 해당없음(비경제활동인구)
A1_13	근로시간형태	□ ① 전일제 □ ② 시간제	A1_14	근로지속 가능성	□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A2_1 응답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득(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면접원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월소득, 응답자 개인의 소득에 한함.

항목			응답
근로소득	A2_1_1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으로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을 의미함.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로서의 소득을 포함)	월 평균 □□□□ 만원
	A2_1_2	**사업소득** (주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활동으로 아르바이트, 투잡, 농한기의 농어가 소득 등을 말함.)	월 평균 □□□□ 만원
기타소득	A2_1_3	**공적 이전소득** (국가 혹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기타 정부보조금 등을 의미함.)	월 평균 □□□□ 만원
	A2_1_4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을 포함하여 주변단체, 기관(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장학금, 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월 평균 □□□□ 만원

A2_2 응답자의 저축, 자산,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면접원 저축은 지난 3개월 기준 월평균 금액, 자산 및 부채는 조사 시점 기준 총액기재

항목			응답
저축 (지난 3개월 기준)	A2_2_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월 평균 ____ 만원
	A2_2_2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암보험, 연금보험 등)	월 평균 ____ 만원
	A2_2_3	은행예금, 계, 기타보험 등(주식, 증권, 어음구입 등)	월 평균 ____ 만원
	A2_2_4	자산형성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월 평균 ____ 만원
자산 (부동산 제외)	A2_2_5	금융자산 (은행예금, 저축성보험, 타지 않은 곗돈, 빌려준 돈)	총 ____ 만원
	A2_2_6	기타 자산(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회원권 등)	총 ____ 만원
부채	A2_2_7	응답자 개인 부채(학자금 대출금 등, 총 이자 포함)	총 ____ 만원
	A2_2_8	응답자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월 평균 ____ 만원

☞면접원
- 부채에 은행 빚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
- 총 자산 및 총 부채액은 가족명의가 아닌 응답자 본인 명의의 금액에 한정함.
-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단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이나 연체액은 부채에 포함

A2_3 2017년(1.1~12.31.) 간 저축(보험포함)의 주요 목적을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주십시오.

저축목적 1순위 A2_3_1	저축목적 2순위 A2_3_2	저축목적 3순위 A2_3_3
① 가구원 교육비(본인 포함)	⑤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⑨ 부채 상환
②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⑥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⑩ 특별한 목적이 없음
③ 결혼, 상제비	⑦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⑪ 기타(_____)
④ 노후생활 대비	⑧ 여행 및 여가생활	

A2_4 저축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_4_1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A2_4_2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A2_4_3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A2_4_4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A2_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해당 여부
A2_5_1 수급 여부 및 수급 기간 (아래 해당 급여를 1개 이상 받은 전생애 동안의 기간)	□ ① 비해당 □ ② 해당 (해당시 아래 급여 받은 기간 입력) ↳ 총 □□년 □□개월 A2_5_2 A2_5_3 **응답자가 포함된 가구의 총 수급기간**
A2_6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을 모두 고르시오. (중복응답 가능)	A2_6_1 □ ① 생계급여 A2_6_2 □ ② 의료급여 A2_6_3 □ ③ 주거급여 A2_6_4 □ ④ 교육급여 A2_6_5 □ ⑤ 해산 및 장제급여 A2_6_6 □ ⑥ 자활급여

A3_1 응답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항목			응답
A3_1_1	총 생활비	(아래 세부항목의 합)	월 평균 □□□□ 만원
A3_1_2	식료품비	(주식, 부식, 간식비, 외식비, 학교급식비, 주류 비용 등)	월 평균 □□□□ 만원
A3_1_3	의류·신발비	(외의, 내의 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의류수선비 및 세탁 비 등)	월 평균 □□□□ 만원
A3_1_4	보건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 보장구 등)	월 평균 □□□□ 만원
A3_1_5	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등)	월 평균 □□□□ 만원
A3_1_6	문화여가비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 교양오락서비스, 비디오(DVD) 대여료, TV수신료, 애완동물 및 관련 비용 등)	월 평균 □□□□ 만원
A3_1_7	교통·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대리운전비 등)	월 평균 □□□□ 만원
A3_1_8	통신비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 평균 □□□□ 만원
A3_1_9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친목 및 교제비용, 종교관련 비용, 관혼상비, 용돈, 가정용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실내장식품 등 등)	월 평균 □□□□ 만원
A3_1_10	세금 및 관리비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등록세 등 / 관리비: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 공과금 등)	월 평균 □□□□ 만원

☞**면접원** **- 매달 지출한 항목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의 연간 총지출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작성, 비해당의 경우 0만원으로 기입**
- 생활비에 월세 등과 같은 주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A4_1 귀하의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아주 건강이 좋지 않다 ← 보통이다 → 아주 건강하다

A4_2 귀하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 및 예시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해당 여부	사유 코드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2017.11.01.~2018.10.31)	A4_2_1 □ ① 없음 □ ② 있음 ↳ 외래진료 사유 : [ ] (사유코드 참고 후 입력) A4_2_4	⓪ 비해당(외래 또는 입원 경험 없음)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형, 정형, 교정 ⑦ 기타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2017.11.01.~2018.10.31)	A4_2_2 □ ① 없음 □ ② 있음 ↳ 입원 사유 : [ ] (사유코드 참고 후 입력) A4_2_5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2016.11.01.~2018.10.31)	A4_2_3 □ ① 없음 □ ② 있음	
만성질환 보유 여부 (2018.10.31기준)	A4_2_6 □ ① 없음 □ ② 있음 ↳ 주된 만성질환 병명 : [_____] (주관식 입력) A4_2_7	

※ 만성질환은 사람간 전파가 없는 비감염성 질환을 말하며, 3개월 이상의 오랜 경과를 취하는 질환을 의미함. 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짐.
※ 주로 순환기계(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 협심증), 근골격계(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호흡기계(폐결핵, 천식), 내분비 대사성질환(당뇨병, 갑상샘질환),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샘암 등), 기타질환(우울증,아토피피부염, 신부전,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분류

A4_3 음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예	② 아니오
A4_3_1 1) 당신은 최근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A4_3_2 2) 최근 다른 사람들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A4_3_3 3) 당신은 술을 마시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A4_3_4 4)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해 혹은 숙취해소를 위해 술을 마셔야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A5_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일반 단독주택
□ 2) 다가구주택(원룸 포함)
□ 3) 다세대 주택
□ 4) 연립주택(빌라)
□ 5) 일반 아파트
□ 6)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 7) 비거주용건물(상가 · 공장 · 여관 등) 내 주택
□ 8)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복지주택 등)
□ 9)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건물이 아닌 경우)
□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A5_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면접원 점유형태에 따른 부가정보 입력

□ 1) 자가 → 주택 및 토지의 총 금액: 총 [ ][ ][ ][ ][ ] 만원 A5_2_1
□ 2) 전세 → 전세보증금: 총 [ ][ ][ ][ ][ ] 만원 A5_2_2
□ 3) 월세(사글세, 년세 포함) → 보증금: 총 [ ][ ][ ][ ][ ] 만원 A5_2_3, 월세: 월 평균 [ ][ ][ ][ ] 만원 A5_2_4
□ 4) 무상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면접원
- 응답자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가구주의 점유 형태 입력
- 년세의 경우, 12를 나누어 월평균 지출 금액을 기재
- 월세 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금에 0만원 기재

A6_1 귀하의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결혼, 출산 등은 "기타"에 기입

1순위 항목 A6_1_1		2순위 항목 A6_1_2		3순위 항목 A6_1_3	

① 상급학교 진학 ② 유학 ③ 편입학(학생인 경우) ④ 취업 및 이직 ⑤ 개인 사업 및 창업 ⑥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⑦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⑧ 기타 (직접입력)

☞면접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 이하의 순위 항목은 결측 처리

A6_2 귀하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하 ← 중 → 상

B. 주관적 지표

B1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1_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1_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B1_1_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한다.					
B1_1_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B1_1_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B1_1_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B1_1_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B1_1_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B1_1_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B1_1_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2_1	나는 나를 위해 설정한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B1_2_2	나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B1_2_3	나는 대체로 내 삶에 중요한 성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B1_2_4	나는 내가 정해서 노력하는 많은 일들에서 대체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B1_2_5	나는 나에게 닥칠 많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B1_2_6	나는 내가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B1_2_7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하는 편이다.					
B1_2_8	대체로 힘든 일을 할 때도, 나는 잘 해내는 편이다.					

B1_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3_1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B1_3_2	나와 가족 간의 관계					
B1_3_3	나의 직업					
B1_3_4	가족 외 타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					
B1_3_5	나의 건강상태					
B1_3_6	나의 소득 수준					
B1_3_7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B1_4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는지 가장 가까운 정도에 체크하십시오.

문항(지난 1주일 동안)		① 전혀 없었다	② 1~2번 있었다	③ 3~4번 있었다	④ 5~7번 있었다
B1_4_1	먹고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B1_4_2	비교적 잘 지냈다.				
B1_4_3	상당히 우울했다.				
B1_4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B1_4_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B1_4_6	행복한 편이었다.				
B1_4_7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B1_4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B1_4_9	슬픔을 느꼈다.				
B1_4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B1_4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B1_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5_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B1_5_2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B1_5_3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B1_5_4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B1_5_5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B1_5_6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B1_5_7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B1_5_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B1_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6_1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B1_6_2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B1_6_3 나는 향후 나의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아갈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B1_6_4 나는 특정한 어느 한 직업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낀다.					
B1_6_5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					

B2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1_1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B2_1_2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B2_1_3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B2_1_4 여윳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B2_1_5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B2_1_6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B2_1_7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B2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2_1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B2_2_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2_2_3 나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 할 때, 내 모습에 만족한다.					
B2_2_4 나는 좋은(괜찮은) 직장에서 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B2_2_5 나는 좋은(괜찮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B2_2_6 나는 일하면서 부딪치는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B2_2_7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B2_2_8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B2_2_9 나는 일과 관련하여 밝은 미래를 꿈꾼다.					
B2_2_10 나는 앞으로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2_2_11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험을 쌓아갈 것이다.					
B2_2_12 나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 질 거라고 확신한다.					
B2_2_13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B2_2_14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2_2_15 나는 앞으로 내 직업을 통해 이룰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B2_2_16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B2_2_17 나는 내 기술을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2_2_18 나는 내 자원 (예. 끈기, 성실함, 근면함, 유쾌함, 친근함, 유머 등의 성격, 친구, 가족 등)을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2_2_19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는데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B2_2_20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는데 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B2_2_21 나는 내 직업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이다.					
B2_2_2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B2_2_2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벌지 못하지만 결국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B2_2_2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2_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3_1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B2_3_2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					
B2_3_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B2_3_4 나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한다.					

B2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4_1 지금 하는 일은 내 능력에 맞는다.					
B2_4_2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은 소중하다.					
B2_4_3 일하는 것이 즐겁다.					
B2_4_4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B2_4_5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B2_4_6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2_4_7 일하는 목표가 명확하다.					
B2_4_8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B2_4_9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B2_4_10 일해서 받은 보수는 내가 일한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B2_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5_1 지각 및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B2_5_2 근무하는 곳의 규칙을 준수한다.					
B2_5_3 직장 상사, 동료와 잘 지낸다.					
B2_5_4 하는 일에 집중을 잘 한다.					
B2_5_5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B2_5_6 매달 저축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B2_5_7 지인과 안부 전화를 나눈다.					
B2_5_8 직장 동료들과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B2_5_9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B2_5_10 몸과 옷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B2_5_11 면도, 화장을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쓴다.					
B2_5_12 끼니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먹는다.					
B2_5_13 몸이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간다.					
B2_5_14 게임 등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한다.					

B2_7 다음 문항을 읽고 이하의 내용이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1점에서 5점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영향을 미치는 편임	⑤ 매우 영향을 미침
B2_7_1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문제					
B2_7_2 부진했던 (이전의) 학업 성적					
B2_7_3 우리 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B2_7_4 부모의 보호와 사랑 부족					
B2_7_5 교육, 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B2_7_6 부모,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하는 상황					
B2_7_7 스트레스, 외상, 우울함, 불안함과 같은 정신적 문제들					
B2_7_8 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					
B2_7_9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지지적 환경의 부족					
B2_7_10 내가 원하는 것과 가족의 기대 간의 불일치					
B2_7_11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교육 자원의 부족					
B2_7_12 직업관련 경력 부족					
B2_7_13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					
B2_7_14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2_7_15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2_7_16 지역사회 내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문제					
B2_7_17 SNS,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					
B2_7_18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한 게임에의 지나친 몰입					

B3_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믿을 수 있다

B3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2_1 나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B3_2_2 나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나 자신과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					
B3_2_3 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					
B3_2_4 사람들은 내가 세심하고 이해심이 있다고 말한다.					
B3_2_5 나는 나 자신을 낯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B3-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3-1 나는 내가 속한 사회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라도 협력한다.					
B3-3-2 나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사회나 조직의 규정과 절차를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B3-3-3 나는 조직이나 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의 책임이 아닌 일이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3-3-4 나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요구된 일을 회피하지 않는다.					
B3-3-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성공)을 축하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B3-3-6 새롭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B3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4_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					
B3_4_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					
B3_4_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B3_4_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B3_4_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줄 누군가가 있다.					
B3_4_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B3_4_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B3_4_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B3_4_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B3_4_10 나에게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누군가가 있다.					
B3_4_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B3_4_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B3_5 지난 1년(2017.11.01~2018.10.31) 동안 해당 활동에 대한 귀하의 참여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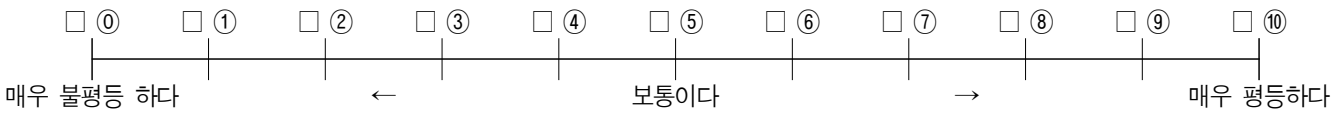
문항	경험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일수
1) 종교활동	B3_5_1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7
2) 여가활동(음악, 독서, 영화, 스포츠, 레저활동 등)	B3_5_2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8
3) 친목모임(친구 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	B3_5_3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9
4) 정당, 정치 관련 모임(정당 활동, 정치 참여 모임 등)	B3_5_4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10
5)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B3_5_5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11
6) 기타 시민단체(환경단체 등)	B3_5_6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12

☞면접원 **참여 일수 작성 : 매주 참여하는 경우 = 52일 / 매월 참여하는 경우 = 12일**
하루에 본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경우도 1일로 측정

B3_6 지난 1년 간 귀하의 기부 참여에 대한 내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기부 여부 및 기부액
귀하는 지난 1년 간 기부를 하였습니까? (2017.11.01.~2018.10.31)	B3_6_1 □ ① 아니다 □ ② 그렇다 ↳ 연간 총 [ ][ ][ ][ ] 천원 B3_6_2

B4_1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C.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면접원 해당영역(C.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추가문항)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D영역(자산형성지원사업 비참여자 대상 추가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C1 다음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C1_1 지원 금액(월 10만원)의 수준					
C1_2 사업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 제공					
C1_3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C1_4 상담 및 재무교육 등 부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					
C1_5 위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귀하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C2_1 다음 중 귀하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함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주세요.

1순위 항목 C2_1		2순위 항목 C2_2		3순위 항목 C2_3	
① 가족상담·가족교육		⑥ 의료지원		⑪ 재무상담·재무컨설팅	
② 문화여가		⑦ 직업교육·훈련		⑫ 금융교육	
③ 후원금/물품		⑧ 자격증취득교육		⑬ 기타(_____)	
④ 심리상담		⑨ 주거개선			
⑤ 양육교육		⑩ 창업교육			

C3_1 자산형성지원사업 만기 시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주세요.

1순위 항목 C3_1		2순위 항목 C3_2		3순위 항목 C3_3	
① 가구원 교육비(본인 포함)		⑤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⑨ 부채 상환	
②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⑥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⑩ 특별한 목적이 없음	
③ 결혼, 상제비		⑦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⑪ 기타(_____)	
④ 노후생활 대비		⑧ 여행 및 여가생활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비참여자대상조사표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A0_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조사표 (비참여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및 (재)중앙자활센터에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패널자료 구축을 위하여 본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년도 패널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패널조사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 (재)중앙자활센터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락 처: 연구책임자 최상미 donggukabp@gmail.com, 02-2260-3659

조사원 기입란

주소	시군구 번호 참고		☞ 시군구 번호 5자리 중 앞 2자리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36) 세종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50) 제주 ☞ 시도 번호 이하 3자리는 시군구 코드 참고
	시 군 구 번 호		☞ 2018년 시군구 코드 기준 A0_2
	세부주소	도로명(신)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_____(시·군·구) _____(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지 번 (구)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도로명) (세부주소) _____

조사원 이름	(인)	조사원 소속		지도원 확인	(인)

< 연구참여 동의서 >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 답례품 수령확인서

조사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현황 및 욕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 등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답 례 품	상품권 금 이만원권(₩ 20,000)

2018 년 11 월 일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당지급 및 소득세법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3호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증빙서류 보관 기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년 11 월 일

성명 : (서명)

A. 가구 일반현황

A1 다음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A1_1	성별	□ ① 남 □ ② 여	A1_4	가구주 여부	귀하는 가구주 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1_2	생년월일	□□□□ 년 A1_2_1 □□ 월 A1_2_2 □□ 일 A1_2_3			
A1_3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수	□□ 명 (1인 가구: 0명)	A1_6	혼인상태	□ ① 미혼 □ ⑤ 이혼 □ ② 기혼 □ ⑥ 사실혼관계(동거) □ ③ 별거 □ ⑦ 기타 □ ④ 사별
A1_5	자녀 수 (응답자 기준)	□□ 명 (비해당: 0명)			
A1_7	학력 (졸업기준)	□ ① 무학 □ ④ 고등학교 □ ② 초등학교 □ ⑤ 대학(4년미만) □ ③ 중학교 □ ⑥ 대학교 이상	A1_10	가구구성	□ ① 1인 가구 □ ② 부부 (응답자+배우자) □ ③ 부부 (응답자+배우자)+미혼자녀 □ ④ 부모+자녀 (응답자 포함) □ ⑤ 한부모가정 (부모(응답자)+미혼자녀) □ ⑥ 한부모가정 (한부모+자녀(응답자포함)) □ ⑦ 형제자매 □ ⑧ 조부모/한부모+손자녀(응답자포함) □ ⑨ 기타 (_____)
A1_8	장애여부	□ ① 비해당(비장애인) □ ② 경증(4~6급) □ ③ 중증(1~3급)			
A1_9	종교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A1_11	근로형태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직 근로자 □ ③ 일용직 근로자 □ ④ 자활근로/공공근로 □ ⑤ 고용주/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실업자(지난4주간 구직활동) □ ⑧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주부, 군인 등)	A1_12	직종분류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⑪ 해당없음(비경제활동인구)
A1_13	근로시간형태	□ ① 전일제 □ ② 시간제	A1_14	근로지속 가능성	□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 가능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

A2_1 응답자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득(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면접원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월소득, 응답자 개인의 소득에 한함.

항목			응답
근로소득	A2_1_1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으로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을 의미함.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로서의 소득을 포함)	월 평균 □□□□ 만원
	A2_1_2	**사업소득** (주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활동으로 아르바이트, 투잡, 농한기의 농어가 소득 등을 말함.)	월 평균 □□□□ 만원
기타소득	A2_1_3	**공적 이전소득** (국가 혹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기타 정부보조금 등을 의미함.)	월 평균 □□□□ 만원
	A2_1_4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을 포함하여 주변단체, 기관(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장학금, 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월 평균 □□□□ 만원

A2_2 응답자의 저축, 자산,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면접원 저축은 지난 3개월 기준 월평균 금액, 자산 및 부채는 조사 시점 기준 총액기재

항목			응답
저축 (지난 3개월 기준)	A2_2_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월 평균 ☐☐☐☐ 만원
	A2_2_2	민간 의료보험 및 개인연금(암보험, 연금보험 등)	월 평균 ☐☐☐☐ 만원
	A2_2_3	은행예금, 계, 기타보험 등(주식, 증권, 어음구입 등)	월 평균 ☐☐☐☐ 만원
	A2_2_4	자산형성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월 평균 ☐☐☐☐ 만원
자산 (부동산 제외)	A2_2_5	금융자산 (은행예금, 저축성보험, 타지 않은 곗돈, 빌려준 돈)	총 ☐☐☐☐ 만원
	A2_2_6	기타 자산(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회원권 등)	총 ☐☐☐☐ 만원
부채	A2_2_7	응답자 개인 부채(학자금 대출금 등, 총 이자 포함)	총 ☐☐☐☐ 만원
	A2_2_8	응답자 개인 부채에 따른 월 평균 상환액	월 평균 ☐☐☐☐ 만원

☞면접원
- 부채에 은행 빚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등이 포함
- 총 자산 및 총 부채액은 가족명의가 아닌 응답자 본인 명의의 금액에 한정함.
- 카드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음. 단 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이나 연체액은 부채에 포함

A2_3 2017년(1.1~12.31.) 간 저축(보험포함)의 주요 목적을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해주십시오.

저축목적 1순위 A2_3_1		저축목적 2순위 A2_3_2		저축목적 3순위 A2_3_3	
① 가구원 교육비(본인 포함)		⑤ 사업(투자) 자금 마련(창업 포함)		⑨ 부채 상환	
② 주택마련(전세금 포함)		⑥ 자동차, 가구, 가전 등 내구제 구입비		⑩ 특별한 목적이 없음	
③ 결혼, 상제비		⑦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⑪ 기타(_____)	
④ 노후생활 대비		⑧ 여행 및 여가생활			

A2_4 저축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_4_1	저축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A2_4_2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					
A2_4_3	나는 저축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A2_4_4	현재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잃을까 걱정이 되어 저축을 하지 않는다					

A2_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해당 여부
A2_5_1 수급 여부 및 수급 기간 (아래 해당 급여를 1개 이상 받은 전생애 동안의 기간)	□ ① 비해당 □ ② 해당 (해당시 아래 급여 받은 기간 입력) ↳ 총 □□년 □□개월 A2_5_2 A2_5_3 응답자가 포함된 가구의 총 수급기간
A2_6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을 모두 고르시오. (중복응답 가능)	A2_6_1 □ ① 생계급여 A2_6_2 □ ② 의료급여 A2_6_3 □ ③ 주거급여 A2_6_4 □ ④ 교육급여 A2_6_5 □ ⑤ 해산 및 장제급여 A2_6_6 □ ⑥ 자활급여

A3_1 응답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의 소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항목			응답
A3_1_1	총 생활비	(아래 세부항목의 합)	월 평균 □□□□ 만원
A3_1_2	식료품비	(주식, 부식, 간식비, 외식비, 학교급식비, 주류 비용 등)	월 평균 □□□□ 만원
A3_1_3	의류·신발비	(외의, 내의 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의류수선비 및 세탁 비 등)	월 평균 □□□□ 만원
A3_1_4	보건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 보장구 등)	월 평균 □□□□ 만원
A3_1_5	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등)	월 평균 □□□□ 만원
A3_1_6	문화여가비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 교양오락서비스, 비디오(DVD) 대여료, TV수신료, 애완동물 및 관련 비용 등)	월 평균 □□□□ 만원
A3_1_7	교통·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대리운전비 등)	월 평균 □□□□ 만원
A3_1_8	통신비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 평균 □□□□ 만원
A3_1_9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장신구, 경조비, 친목 및 교제비용, 종교관련 비용, 관혼상비, 용돈, 가정용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실내장식품 등 등)	월 평균 □□□□ 만원
A3_1_10	세금 및 관리비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등록세 등 / 관리비: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 공과금 등)	월 평균 □□□□ 만원

☞면접원 - 매달 지출한 항목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의 연간 총지출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작성, 비해당의 경우 0만원으로 기입
- 생활비에 월세 등과 같은 주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A4_1 귀하의 최근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해주세요.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아주 건강이 좋지 않다 ← 보통이다 → 아주 건강하다

A4_2 귀하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 및 예시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해당 여부	사유 코드
지난 1년 동안 외래진료 여부 (2017.11.01.~2018.10.31)	A4_2_1 ☐ ① 없음 ☐ ② 있음 ↳ 외래진료 사유 : [ ] (사유코드 참고 후 입력) A4_2_4	⓪ 비해당(외래 또는 입원 경험 없음)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형, 정형, 교정 ⑦ 기타
지난 1년 동안 입원 여부 (2017.11.01.~2018.10.31)	A4_2_2 ☐ ① 없음 ☐ ② 있음 ↳ 입원 사유 : [ ] (사유코드 참고 후 입력) A4_2_5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 (2016.11.01.~2018.10.31)	A4_2_3 ☐ ① 없음 ☐ ② 있음	
만성질환 보유 여부 (2018.10.31기준)	A4_2_6 ☐ ① 없음 ☐ ② 있음 ↳ 주된 만성질환 병명 : [_____] (주관식 입력) A4_2_7	

※ 만성질환은 사람간 전파가 없는 비감염성 질환을 말하며, 3개월 이상의 오랜 경과를 취하는 질환을 의미함. 질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짐.
※ 주로 순환기계(고혈압, 이상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 협심증), 근골격계(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호흡기계(폐결핵, 천식), 내분비 대사성질환(당뇨병, 갑상샘질환),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샘암 등), 기타질환(우울증,아토피피부염, 신부전,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분류

A4_3 음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예	② 아니오
A4_3_1 1) 당신은 최근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A4_3_2 2) 최근 다른 사람들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A4_3_3 3) 당신은 술을 마시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A4_3_4 4)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신을 차리기 위해 혹은 숙취해소를 위해 술을 마셔야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A5_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1) 일반 단독주택
☐ 2) 다가구주택(원룸 포함)
☐ 3) 다세대 주택
☐ 4) 연립주택(빌라)
☐ 5) 일반 아파트
☐ 6) 임대아파트(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 7) 비거주용건물(상가 · 공장 · 여관 등) 내 주택
☐ 8)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복지주택 등)
☐ 9)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건물이 아닌 경우)
☐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A5_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면접원 점유형태에 따른 부가정보 입력

☐ 1) 자가 → 주택 및 토지의 총 금액: 총 [ ][ ][ ][ ][ ] 만원 A5_2_1
☐ 2) 전세 → 전세보증금: 총 [ ][ ][ ][ ][ ] 만원 A5_2_2
☐ 3) 월세(사글세, 년세 포함) → 보증금: 총 [ ][ ][ ][ ][ ] 만원 A5_2_3, 월세: 월 평균 [ ][ ][ ][ ] 만원 A5_2_4
☐ 4) 무상
☐ 5)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면접원
- 응답자가 가구주가 아닌 경우, 가구주의 점유 형태 입력
- 년세의 경우, 12를 나누어 월평균 지출 금액을 기재
- 월세 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금에 0만원 기재

A6_1 귀하의 1년 뒤의 예상 진로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결혼, 출산 등은 "기타"에 기입

1순위 항목 A6_1_1		2순위 항목 A6_1_2		3순위 항목 A6_1_3	

① 상급학교 진학 ② 유학 ③ 편입학(학생인 경우) ④ 취업 및 이직 ⑤ 개인 사업 및 창업 ⑥ 군입대(미필자의 경우) ⑦ 특별한 진로 계획 없음 ⑧ 기타 (직접입력)

☞면접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 이하의 순위 항목은 결측 처리

A6_2 귀하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하 ← 중 → 상

B. 주관적 지표

B1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1_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1_2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B1_1_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한다.					
B1_1_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B1_1_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B1_1_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B1_1_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B1_1_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B1_1_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B1_1_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B1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2_1	나는 나를 위해 설정한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B1_2_2	나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B1_2_3	나는 대체로 내 삶에 중요한 성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B1_2_4	나는 내가 정해서 노력하는 많은 일들에서 대체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B1_2_5	나는 나에게 닥칠 많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B1_2_6	나는 내가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B1_2_7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대부분의 일을 잘 하는 편이다.					
B1_2_8	대체로 힘든 일을 할 때도, 나는 잘 해내는 편이다.					

B1_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3_1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B1_3_2	나와 가족 간의 관계					
B1_3_3	나의 직업					
B1_3_4	가족 외 타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친분 관계					
B1_3_5	나의 건강상태					
B1_3_6	나의 소득 수준					
B1_3_7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B1_4 귀하는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는지 가장 가까운 정도에 체크하십시오.

문항(지난 1주일 동안)		① 전혀 없었다	② 1~2번 있었다	③ 3~4번 있었다	④ 5~7번 있었다
B1_4_1	먹고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B1_4_2	비교적 잘 지냈다.				
B1_4_3	상당히 우울했다.				
B1_4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B1_4_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B1_4_6	행복한 편이었다.				
B1_4_7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B1_4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B1_4_9	슬픔을 느꼈다.				
B1_4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B1_4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B1_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5_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B1_5_2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B1_5_3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B1_5_4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B1_5_5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B1_5_6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B1_5_7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B1_5_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B1_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1_6_1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B1_6_2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B1_6_3 나는 향후 나의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아갈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B1_6_4 나는 특정한 어느 한 직업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낀다.					
B1_6_5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해마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					

B2_1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1_1 오늘 돈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					
B2_1_2 나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B2_1_3 자주 생활비 걱정을 한다.					
B2_1_4 여윳돈이나 비상금이 없어 심리적 긴장감이 크다.					
B2_1_5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해 어려움이 크다.					
B2_1_6 돈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있다.					
B2_1_7 돈 문제로 인해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B2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2_1 나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잘 해낼 수 있다.					
B2_2_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2_2_3 나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 할 때, 내 모습에 만족한다.					
B2_2_4 나는 좋은(괜찮은) 직장에서 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B2_2_5 나는 좋은(괜찮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B2_2_6 나는 일하면서 부딪치는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B2_2_7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B2_2_8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잘한다.					
B2_2_9 나는 일과 관련하여 밝은 미래를 꿈꾼다.					
B2_2_10 나는 앞으로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2_2_11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험을 쌓아갈 것이다.					
B2_2_12 나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 질 거라고 확신한다.					
B2_2_13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B2_2_14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2_2_15 나는 앞으로 내 직업을 통해 이룰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B2_2_16 나는 일과 관련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B2_2_17 나는 내 기술을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2_2_18 나는 내 자원 (예. 끈기, 성실함, 근면함, 유쾌함, 친근함, 유머 등의 성격, 친구, 가족 등)을 어떻게 직장/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B2_2_19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는데 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B2_2_20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는데 내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B2_2_21 나는 내 직업과 관련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이다.					
B2_2_22 나는 내 삶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B2_2_23 나는 비록 지금 당장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벌지 못하지만 결국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B2_2_24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내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2_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3_1 나는 친구나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B2_3_2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책, 인터넷 사이트 등)를 찾아본다.					
B2_3_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B2_3_4 나는 직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교재 및 기자재를 구입한다.					

B2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4_1 지금 하는 일은 내 능력에 맞는다.					
B2_4_2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은 소중하다.					
B2_4_3 일하는 것이 즐겁다.					
B2_4_4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B2_4_5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B2_4_6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2_4_7 일하는 목표가 명확하다.					
B2_4_8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B2_4_9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B2_4_10 일해서 받은 보수는 내가 일한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B2_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2_5_1 지각 및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B2_5_2 근무하는 곳의 규칙을 준수한다.					
B2_5_3 직장 상사, 동료와 잘 지낸다.					
B2_5_4 하는 일에 집중을 잘 한다.					
B2_5_5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B2_5_6 매달 저축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B2_5_7 지인과 안부 전화를 나눈다.					
B2_5_8 직장 동료들과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B2_5_9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B2_5_10 몸과 옷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B2_5_11 면도, 화장을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쓴다.					
B2_5_12 끼니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먹는다.					
B2_5_13 몸이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간다.					
B2_5_14 게임 등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한다.					

B2_7 다음 문항을 읽고 이하의 내용이 자신의 생활이나 진로 준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1점에서 5점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임	③ 보통	④ 영향을 미치는 편임	⑤ 매우 영향을 미침
B2_7_1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문제					
B2_7_2 부진했던 (이전의) 학업 성적					
B2_7_3 우리 가족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B2_7_4 부모의 보호와 사랑 부족					
B2_7_5 교육, 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 부족					
B2_7_6 부모,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하는 상황					
B2_7_7 스트레스, 외상, 우울함, 불안함과 같은 정신적 문제들					
B2_7_8 가족 간의 불화 및 단절					
B2_7_9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지지적 환경의 부족					
B2_7_10 내가 원하는 것과 가족의 기대 간의 불일치					
B2_7_11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교육 자원의 부족					
B2_7_12 직업관련 경력 부족					
B2_7_13 충동구매, 과도한 지출 등 재정적 문제					
B2_7_14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2_7_15 술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					
B2_7_16 지역사회 내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문제					
B2_7_17 SNS, 동영상 시청 등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					
B2_7_18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한 게임에의 지나친 몰입					

B3_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믿을 수 있다

B3_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2_1 나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B3_2_2 나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나 자신과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					
B3_2_3 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					
B3_2_4 사람들은 내가 세심하고 이해심이 있다고 말한다.					
B3_2_5 나는 나 자신을 낯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B3-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3-1 나는 내가 속한 사회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라도 협력한다.					
B3-3-2 나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사회나 조직의 규정과 절차를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B3-3-3 나는 조직이나 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의 책임이 아닌 일이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3-3-4 나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요구된 일을 회피하지 않는다.					
B3-3-5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성공)을 축하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B3-3-6 새롭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B3_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B3_4_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					
B3_4_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					
B3_4_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B3_4_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B3_4_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줄 누군가가 있다.					
B3_4_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B3_4_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B3_4_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B3_4_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B3_4_10 나에게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누군가가 있다.					
B3_4_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B3_4_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B3_5 지난 1년(2017.11.01~2018.10.31) 동안 해당 활동에 대한 귀하의 참여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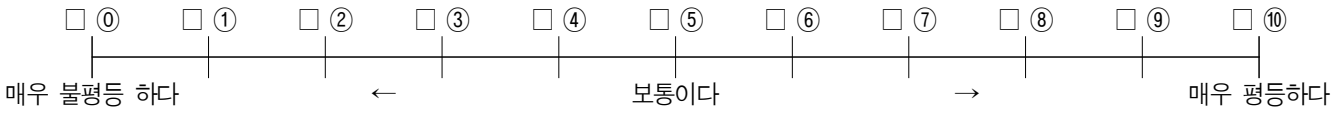
문항	경험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일수
1) 종교활동	B3_5_1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7
2) 여가활동(음악, 독서, 영화, 스포츠, 레저활동 등)	B3_5_2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8
3) 친목모임(친구 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	B3_5_3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9
4) 정당, 정치 관련 모임(정당 활동, 정치 참여 모임 등)	B3_5_4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10
5) 자선단체, 자원봉사활동 단체	B3_5_5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11
6) 기타 시민단체(환경단체 등)	B3_5_6 □ ① 비참여 □ ② 참여 ↳ 연간 총 [ ][ ][ ] 일 B3_5_12

☞면접원 **참여 일수 작성 : 매주 참여하는 경우 = 52일 / 매월 참여하는 경우 = 12일**
하루에 본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경우도 1일로 측정

B3_6 지난 1년 간 귀하의 기부 참여에 대한 내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기부 여부 및 기부액
귀하는 지난 1년 간 기부를 하였습니까? (2017.11.01.~2018.10.31)	B3_6_1 □ ① 아니다 □ ② 그렇다 ↳ 연간 총 [ ][ ][ ][ ] 천원 B3_6_2

B4_1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C. 자산형성지원사업 비참여자 대상 추가문항

☞면접원 **해당영역(D. 자산형성지원사업 비참여자 대상 추가문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문항입니다.**

D1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응답
D1_1	귀하는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고 있었다. □ ② 모르고 있었다.
D1_2	귀하는 청년대상의 통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D1_3	귀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D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기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
□ 2)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할 수 없었다.
□ 3) 본 사업 외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본 사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명(_____)** D2_1
□ 4) 본 사업의 지원 금액이 낮아 신청하지 않았다.
□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하지 않았다.
□ 6) 사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신청하지 않았다.
□ 7) 본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
□ 8) 기타(_____)

☞면접원 **※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예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울) 서울희망플러스,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 (대전) 행복나눔청년희망통장 / (경기) 일하는청년통장 /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